

연구보고 2017-13



KIC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초등자녀 양육지원 방안

이재희 김근진 엄지원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17-13

초등자녀 양육지원 방안

이재희 김근진 엄지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 리 말

유아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로의 진학 시기는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는 시기이다. 아동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졸업하여 새로운 교실, 선생님, 친구들에 적응해야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과정에도 적응해야하며 부모도 역시 이러한 아동의 적응 과정을 함께 공유하게 된다.

아동이 초등학교 전이 과정을 어떻게 보냈는지는 향후 아동의 학습 성취와 지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성인기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아동의 초등학교 전이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국가에서는 이미 유아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 전이 과정에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예비 학급 구성은 물론 가정 학습환경 조성, 지역사회와 연계된 전이 프로그램개발 등까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는 아직 초등학교 전이에 대한 지원체계 매우 부족하다는 점과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이슈가 아동의 적응과 전이보다 돌봄 공백 우선시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이 초등교육과정에 성공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미시적으로는 향후 아동의 올바른 성장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는 국가경쟁력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이에 대한 논의와 체계 구축이 돌봄 공백 문제에 가려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매우 아쉬운 대목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초등학교 전이와 돌봄 공백 문제를 연계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행복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담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가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에 따른 적응과 전이, 돌봄 공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7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직무대행 **이미화**

차 례

요약	1
I.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내용	13
3. 연구방법	14
4. 연구범위	17
II. 연구의 배경	18
1. 초등학교 취학 시기의 아동 발달 특성	18
2. 초등학교 취학에 따른 부모 역할 변화	22
3. 교육과정의 변화	24
4. 소결: 초등학교 적응 및 전이 중심으로	28
III. 초등자녀 양육지원 정책 현황	32
1. 돌봄 정책	32
2. 부모교육	60
3. 시간 지원정책	67
4. 소결	75
IV. 초등자녀 양육지원 정책 해외 사례	80
1. 방과후 돌봄 정책	80
2. 초등학교 적응 및 전이 지원 정책	88
3. 소결	96
V. 가정생활 변화와 아동의 학교 적응	98
1. 가정생활 변화	98
2.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이 취업모의 근로 조건에 미치는 효과	106
3. 어머니의 취업과 일-양육 갈등이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효과	121
4. 소결	130

VI.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부모와 아동의 인식과 요구 사항	133
1.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부모의 인식	133
2.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아동의 인식	146
3. 소결	149
VII. 결론 및 정책제언	153
1. 정책의 기본 방향	153
2. 정책 제언	155
3. 방과 후 돌봄 활성화 및 내실화 방안	160
참고문헌	166
Abstract	180
부록	183
부록 1. 연구 참여에 대한 설명문	185
부록 2. 화용능력 체크리스트	187
부록 3. 면접진행 매뉴얼	188
부록 4. 부모 대상 면담지	190
부록 5. 아동 대상 면담지	192

표 차례

〈표 I-3- 1〉 심층면담 참여 어머니 인구통계학적 특성	15
〈표 I-3- 2〉 자문회의	16
〈표 II-2- 1〉 초등학교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정보 유형	23
〈표 II-3- 1〉 유아교육의 목표	26
〈표 II-3- 2〉 초등학교 교육 목표	26
〈표 II-3- 3〉 누리과정 교육과정에서의 유아 평가	27
〈표 II-3- 4〉 초등교육과정에서의 아동 평가	27
〈표 III-1- 1〉 2017년 초등돌봄교실 참여대상	33
〈표 III-1- 2〉 초등돌봄교실 연도별 현황	38
〈표 III-1- 3〉 2016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40
〈표 III-1- 4〉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44
〈표 III-1- 5〉 2016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	45
〈표 III-1- 6〉 2016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 현황	45
〈표 III-1- 7〉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만족도	46
〈표 III-1- 8〉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예산지원(2017년)	48
〈표 III-1- 9〉 지역아동센터 연도별 현황(2004~2015년)	48
〈표 III-1-10〉 지역아동센터 시도별 현황(2016년)	49
〈표 III-1-11〉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이용 현황(2004~2016년)	50
〈표 III-1-12〉 지역아동센터 경제상황별 이용아동 현황(2010~2016년)	51
〈표 III-1-13〉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 종합형) 현황(2017)	52
〈표 III-1-14〉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현황	53
〈표 III-1-15〉 시간제 아이돌보서비스 연령별 이용 현황(2015년)	54
〈표 III-1-16〉 도봉형 마을방과후활동 업무 추진 체계	57
〈표 III-2- 1〉 부처별 부모교육 현황(2016년 3월 기준)	63
〈표 III-3- 1〉 육아휴직 제도의 자녀연령 확대과정	68
〈표 III-3- 2〉 육아휴직급여 지급기준 변화(2017. 9. 1.)	69
〈표 III-3- 3〉 육아휴직 및 지원금액 현황	70
〈표 III-3- 4〉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현황	71

〈표 III-3-5〉 초등학생 자녀(6~8세) 육아휴직자 현황	71
〈표 III-3-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현황	73
〈표 III-3-7〉 CJ그룹 초등학생 자녀 돌봄 시간지원 사내정책	74
〈표 III-3-8〉 SK텔레콤 초등학생 자녀 돌봄 시간지원 사내정책	74
〈표 III-4-1〉 초등학생 아동 돌봄 정책 비교	75
〈표 V-1-1〉 아동의 일일 활동별 소요 시간1	98
〈표 V-1-2〉 아동의 일일 활동별 소요 시간2	99
〈표 V-1-3〉 아동의 수면 습관	99
〈표 V-1-4〉 학기 및 방학 중 돌봄	101
〈표 V-1-5〉 돌봄 및 양육서비스 이용 시간 및 빈도	101
〈표 V-1-6〉 돌봄 및 양육서비스 이용 비용	102
〈표 V-1-7〉 이용 중인 사교육 교과목	102
〈표 V-1-8〉 사교육 주당 총 이용 시간	103
〈표 V-1-9〉 일자리에 대한 어머니의 전반적 만족도	104
〈표 V-2-1〉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이 취업모의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균형패널) ·	117
〈표 V-2-2〉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이 취업모의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균형패널) ·	118
〈표 V-2-3〉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이 취업모의 상용직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 (균형패널)	118
〈표 V-2-4〉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이 취업모의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 (불균형패널)	119
〈표 V-2-5〉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이 취업모의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불균형패널)	120
〈표 V-2-6〉 아동 초등학교 입학이 취업모의 상용직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 (불균형패널)	121
〈표 V-2-7〉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이 기혼여성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 (불균형패널)	121
〈표 V-3-1〉 어머니의 직장 재직 여부가 학교 생활 관심, 학업관심도, 모-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23
〈표 V-3-2〉 모 재직 여부 및 학교생활관심, 학업관심도, 모-자녀 상호작용이 아동의 학교 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24

〈표 V-3- 3〉 모 재직 여부 및 학교생활관심, 학업관심도, 모-자녀 상호작용이 아동의 학업수행 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25
〈표 V-3- 4〉 모 재직 여부 및 학교생활관심, 학업관심도, 모-자녀 상호작용이 아동의 또래 관계 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25
〈표 V-3- 5〉 모 재직 여부 및 학교생활관심, 학업관심도, 모-자녀 상호작용이 아동의 교사 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26
〈표 V-3- 6〉 부모의 일-양육 갈등이 학교 생활 관심, 학업관심도, 모-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27
〈표 V-3- 7〉 부모의 일-양육 갈등 및 학교생활관심, 학업관심도, 모(부)-자녀 상호작용이 아동의 학교 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28
〈표 V-3- 8〉 일-양육 갈등 및 학교생활관심, 학업관심도, 모(부)-자녀 상호작용이 아동의 학업수행 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28
〈표 V-3- 9〉 일-양육 갈등 및 학교생활관심, 학업관심도, 모(부)-자녀 상호작용이 아동의 또래관계 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29
〈표 V-3-10〉 일-양육 갈등 및 학교생활관심, 학업관심도, 모(부)-자녀 상호작용이 아동의 교사 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30
〈표 VII-2-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	157

그림 차례

[그림 II-1- 1] 학교준비 개념도	29
[그림 III-1- 1] 2017년 초등돌봄교실 개선방안	35
[그림 III-1- 2] 지역 돌봄기관 안내지도 예시: 경기 성남시	36
[그림 III-1- 3] 초등돌봄교실 중점추진과제	37
[그림 III-1- 4] 초등돌봄교실 운영학교 현황	39
[그림 III-1- 5] 초등돌봄교실 운영교실 현황	39
[그림 III-1- 6] 초등돌봄교실 참여학생 현황	39
[그림 III-1- 7] 초등돌봄교실 지역별 현황	41
[그림 III-1- 8] 초등돌봄교실 학부모 만족도조사 결과	41
[그림 III-1- 9] 방과후학교 비전 및 목표	43
[그림 III-1-10]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44
[그림 III-1-11]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만족도	46
[그림 III-1-12] 지역아동센터 연도별 현황	49
[그림 III-1-13]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이용 현황	50
[그림 III-1-14]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및 아이돌보미 현황	53
[그림 III-1-15] 시간제 아이돌보서비스 이용아동 현황(2015년)	54
[그림 III-1-16] 도봉형 마을방과후활동 기대효과	58
[그림 III-2- 1] 예비 초등학생 학부모 온라인교육(학부모On누리)	62
[그림 III-2- 2]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온라인교육센터 “학부모On누리”	64
[그림 III-2- 3] 전국 시·도 학부모지원센터 현황(2017년 4월 기준)	65
[그림 III-2- 4]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홈페이지	66
[그림 III-3- 1] 육아휴직 및 지원금액 현황	70
[그림 III-3- 2] 초등학생 자녀 육아휴직급여 월별 지급현황(2016)	71
[그림 III-3-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현황	73
[그림 III-4- 1] 돌봄정책 초등학생 이용률	77
[그림 IV-1- 1] OECD 국가 아동의 기관 기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참여율 (2014)	81

[그림 IV-1-2] OECD 국가 아동의 기관 기반 방과후돌봄 서비스 주당 이용시간 (2014)	81
[그림 IV-1-3] OECD 국가 소득에 따른 돌봄서비스 이용률(2014)	82
[그림 IV-2-1] 프랑스의 학교 정규수업 시간 및 돌봄 프로그램 개입 현황	84
[그림 V-1-1]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 및 수면 시각	100
[그림 V-1-2] 월 평균 가구 소득 및 지출	103
[그림 V-1-3] 어머니의 취업 여부	104
[그림 V-1-4] 부모의 결혼만족도 및 부부갈등	105
[그림 V-1-5] 어머니의 양육 행동 및 양육 스트레스	106
[그림 V-2-1] 아동의 연령에 따른 취업모의 임금수준 변화	116
[그림 V-2-2] 아동의 연령에 따른 취업모의 근로시간 변화	116
[그림 V-2-3] 아동의 연령에 따른 취업모의 상용직 취업확률 변화	117
[그림 V-3-1] 어머니의 직장 재직이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효과 경로 ..	126
[그림 V-3-2] 어머니의 일-양육갈등이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효과 경로 ..	130
[그림 VII-1-1] 초등자녀 양육 지원 정책 방향 및 개요도	154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아동은 초등학교 입학 시기 동안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의 기관에서의 경험에서 벗어나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공간에 적응해야함.
-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을 지원해주기 위해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부모에게는 돌봄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시기임. 초등 저학년의 경우 수업 시수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교육과 돌봄 시간보다 상대적으로 짧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짐.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부모와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음. 최근 다양한 관계 부처에서 운영·계획하고 있는 초등학교 부모 지원 제도를 분석하고 보완점, 또한 각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나. 연구 내용

-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 아동의 발달 특성 파악
-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후 부모와 아동의 가정생활 변화 탐색
- 초등 부모 및 아동에게 지원되는 정책현황 검토
- 국외 초등 대상 돌봄 정책 및 적응 지원 정책 검토
- 초등학교 입학 및 적응과정에 대한 부모와 아동의 인식 파악
- 초등 부모의 정책요구도 파악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국내외 관련 제도 및 정책자료 수집
- 심층면접 조사
 -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60명과 부모 60명을 대상으로 아동이 초등학교 진학 후 좋아진 점, 어려운 점 및 불안한 점, 초등학교 진학으로 인해 변화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대처 방안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음.
- 한국아동패널 분석
 - 한국아동패널 7차(만 6세), 8차(만7세)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입학 전과 후의 부모 및 아동의 가정생활 변화를 파악하였음.
 - 한국아동패널 4차(만 3세)~8차(만 7세)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이 취업모의 근로조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음. 더불어 어머니 취업과 아동의 학교 적응과의 관계성 분석하였음.
- 연구범위
 -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에 초점을 맞춰 수행하였음.
 - 초등학교 저학년은 수업시간이 고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고,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로 전이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유-초연계, 돌봄 정책 등의 개입 등이 중요한 시기임.

2. 연구 배경

가. 초등학교 취학 시기의 아동발달 특성

- 초등학교 취학 시기는 Piaget의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다양한 인지전략이 발달하는 시기이지만 자극을 처리하는 인지적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시기임.
- 또한 이 시기는 Erikson의 근면성과 열등감 단계로 사회적 관계를 넓히면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적응 실패는 향후 학교 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나. 초등학교 취학에 따른 부모 역할 변화

- 아동의 초등학교 진학으로 부모도 적응의 문제를 함께 겪게 됨. 이로 인해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증가함.
- 자녀가 초등학교 진학함에 따라 자녀 능력에 관한 정보, 새 초등학교에 관한 정보, 초등 교육과정에 관한 정보 등이 필요함. 즉, 부모에게도 학교 준비와 학습준비가 필요함.

다. 교육과정의 변화

- 유아교육의 목적은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인데 반해 초등교육의 목적은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습관과 기초능력을 기르고 인성을 함양하는데 있음.
- 이러한 목적의 차이로 인해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는 운영, 교수 방법, 아동 평가 등의 차이가 존재하고, 부모와 아동은 이러한 교육과정의 차이로 인해 이질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적응의 어려움을 겪기도 함.

라. 소결: 초등학교 적응 및 전이 중심으로

-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후 성공적인 전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아동은 물론 학교, 가족 모두가 준비가 필요하고, 이러한 세 주체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초등학교 입학시기의 아동은 인지,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함.

3. 초등자녀 양육지원 정책 현황

가. 돌봄 정책

- 초등 부모 및 아동을 위한 국가단위의 돌봄 정책은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음.

□ 초등돌봄교실은 학교의 '별도 시설(전용 또는 겸용 교실)'이 갖춰진 공간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돌봄 활동'이고 참여대상과 시간 기준으로 '오후돌봄', '저녁돌봄',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로 구분할 수 있음.

– 초등돌봄교실은 2016년 11,920개실의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24만 4천여명의 아동이 이용하여 전체 초등학생의 9.1%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 방과후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지원으로 이뤄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임. 전체 초등학교 중 99.8%가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초등학생의 65.9%가 참여하고 있음.

□ 지역아동센터는 빈곤가정의 아동을 돌보기 위한 공부방을 계승한 아동복지 시설로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됨. 2016년 기준 4,107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82,140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음.

□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로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함. 2015년도 기준 25,418명의 초등 아동 가구가 이용하고 있음.

□ 지자체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방과후돌봄 정책은 도봉구에서 운영하는 마을 방과후활동임.

– 도봉형 마을방과후 활동 정책은 지자체가 방과후 학교를 직접 운영하는 모델로 학교는 방과후 운영 및 교육장소를 제공하고 구청은 방과후학교를 전담하고 프로그램 개설부터 강사선발, 강사료 지급, 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전담함.

나. 부모 교육 및 시간 지원 정책

□ 예비 학부모 교육은 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지역교육청, 지역학부모 센터 등에서 제공되고 있음. 특히,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복지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부는 학부모지원센터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에 필요한 학부모 교육을 운영하고 있음.

-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학부모On누리틀 통해 자녀의 학령기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전, 후,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에 맞춰 학교생활, 건강 가정, 교육재정지원, 나눔교육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초등 부모 사용할 수 있는 시간지원 정책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고 최근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음.
 - 육아휴직자는 2001년에 25명에 불과하다가 2016년에 7,616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남성 육아휴직자도 과거에는 전체 1~2%만 차지하였으나 2016년도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8.5%를 차지함.
- CJ, SK텔레콤 등은 사내 정책으로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사원에게 돌봄 휴가 및 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4. 초등자녀 양육지원 정책 국외 사례

가. 방과후 돌봄 정책

- 아동의 연령 만 6-11세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기관-기반(center-based) 방과후 돌봄 서비스 참여율이 70%가 넘는 국가는 헝가리, 덴마크, 슬로베니아, 스웨덴이었으며, OECD 평균 참여율은 30% 수준이었음.
- OECD 국가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 평균 주당 이용 시간은 10시간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방과후 돌봄 서비스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방과후 돌봄 서비스는 지자체 등 학교 외 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여가 활동 중심으로 구성됨.

나. 초등학교 적응 및 전이 지원 정책

- 프랑스,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유-초연계 과정이 잘 이어지도록 교육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예비학급 및 유아학급 개설 등 구체적인 초등학교 적응 및 전이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됨.

- 사례 조사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과 이에 대한 지원은 아동을 중심으로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여 전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었음

5. 가정생활 변화와 아동의 학교 적응

가. 가정생활 변화

-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후 일과 시간의 가장 큰 변화는 방과 후 돌봄 시간의 증가였음. 아동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재원중일 경우에는 방과후 돌봄 시간이 0.85시간이었으나 초등학교 입학 후 2.51 시간으로 증가하였음.
- 초등학교 입학 후 아동의 돌봄 서비스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조부모 및 기타 친인척에게 부탁하는 비율이 학기 중 17.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초등돌봄교실 이용 12.5%, 지역 아동센터 1.3% 순이었음.
 - 조부모나 기타 친인척 도움을 받는 경우는 학기 중 기준 주당 평균 4.23일, 하루 평균 5.22시간을 맡기는 것으로 나타났음. 초등돌봄교실 주당 평균 이용일 및 이용시간은 4.83일, 2.96시간이었고, 지역아동센터는 평균 5.1일, 4.73 시간이었음.
- 초등학교 입학 전 후 자녀로 인한 지출 비용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어머니 취업률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결혼만족도와 부부 갈등, 양육스트레스도 비슷한 수준이거나 개선되는 경향을 보임.

나.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이 취업모의 근로 조건에 미치는 효과

- 한국아동패널(4~8차)을 이용하여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이 취업모의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은 취업모의 임금 수준을 떨어뜨리고, 근로시간을 감소시키며, 상용직 취업률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입학은 취업모의 노동시간을 주당 평균 7시간 줄이고, 상용직 취업확률을 약 20%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 어머니의 취업과 일-양육 갈등이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효과

- 한국아동패널(8차)을 이용하여 어머니의 취업과 일-양육갈등이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선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어머니가 직장에 재직하는 경우, 아동의 학교생활의 관심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아동의 학교 적응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일-양육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생활의 관심이 떨어지고 아동의 학교 적응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일-양육 갈등은 아동의 학교생활 관심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6.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부모와 아동의 인식과 요구사항

가.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부모의 인식

- 부모들은 자녀의 빠른 등교 인해 아침 시간이 부족해졌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이 일찍 끝나는 관계로 돌봄 공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부모들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준비하기 위해 지인이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지역과 학교 특성 등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하는 정보를 얻기 힘들다고 호소한 경우가 많았음.
-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 지원을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생활습관 및 한글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유치원·어린이집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전이관련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부모들은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후 지원해야할 부분이 크게 증가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숙제 지원뿐만 아니라 참여해야하는 학교 행사의 증가가 어려움의 주 원인이었음.
- 돌봄 교실과 방과후 수업에 대해 부모들은 신청을 하더라도 선정되고 힘들고, 자격조건이 까다롭다는 점,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 등을 언급하였음.

나.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아동의 인식

- 아동들은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과 활동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였고, 부모와 공유하는 시간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음.
- 아동은 유치원·어린이집에 비해 엄격한 생활규칙과 선생님에 대한 적응이 어렵다고 언급하였음. 또한 등교 시간이 빨라져 학교 수업시간에 졸리고 피곤한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였음.
- 아동들은 초등학교 끝난 이후 대부분 학원이나 돌봄교실,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예체능 활동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과후 돌봄은 아동의 만족도가 높았으나, 프로그램 없이 장시간 시간만 보내는 돌봄에 대해서는 불만족 수준도 높았으며, 적응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 초등학교 적응 및 전이 지원 프로그램을 경험한 아동은 없었으며 가정에서는 생활 교육, 유치원·어린이집에서는 알림장 작성과 한글 연습 위주로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아동들은 교우관계보다 교사와의 관계, 학업 부분에 대한 걱정과 불만이 많았음. 또한 수업시간이 길고 휴식시간이 짧기 때문에 적응이 힘들다는 아동의 의견이 많았음.

7. 결론 및 정책제언

가. 정책의 기본 방향

- 2015년 발표된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방과후 돌봄의 최종 목표는 아동의 행복한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함.
- 부모와 아동의 관계가 초등자녀 양육지원 방안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가정양육 내실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이를 위해 기업과 지역사회와 일-가정양립 문화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함.

- 지역사회에서도 국외사례와 같이 학교와 공동으로 아동의 초등학교 전이 및 적응 지원에 참여해야 함.
- 학교를 중심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지자체, 부모와 공동으로 내실 있는 유-초연계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노력해야함.

나. 정책제언

-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부모에 대한 시간지원 정책임.
 - 기업의 초등 자녀 부모 대상 육아지원 정책 우수 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등의 정책이 필요함.
-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부모교육 활성화와 지역 학부모와의 멘토링 등 부모에게 필요한 초등학교 입학 관련 정보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아동의 학교 적응과 전이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유-초연계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초연계 지역협의체 구성, 교사 양성과정에서의 유-초연계 과목 활성화 및 공동연수 추진, 유-초연계과정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관리 등이 있음.

다. 방과 후 돌봄 활성화 및 내실화 방안

- 방과후 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에 대한 통합·관리 행정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함.
 - 각 부처에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 돌봄 서비스의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중복성을 줄이기 위해서 통합관리 체계가 필요함.
- 방과후 돌봄 서비스 공급에 대한 목표설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성과관리가 필요함.
- 방과후 돌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돌봄에 대한 학교와 지자체 협력이 강화해야하고 지자체에 운영방안의 자율성을 확보해야함.
- 교육부의 나이스(NEIS) 시스템 등으로 일원화하여 방과후 돌봄에 대한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하고, 지역단위 조사 등,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돌봄 조사 방법에 개선이 필요함.

-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기반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방과후 돌봄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 및 전이를 위해 놀이 및 여가활동 위주로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방과후 돌봄의 질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방과후 교사 전문성 개발 등이 필요하고 최소의 질적 기준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교사의 처우도 개선되어야 함.
- 초등돌봄교실 등 방과후 돌봄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또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은 아동에게 새로운 환경의 적응이라는 숙제를 남긴다. 이 시기는 부모의 의존도가 높았던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교육과 돌봄을 받던 시기보다 독립적인 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된다. 아동의 발달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된다.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으로 인한 환경 변화는 급작스럽게 이뤄진다. 이러한 환경변화가 아동의 개인적인 발달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고 진행할 때 아동은 적응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평균적인 발달 수준의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급격한 변화 과정에 적응하는 것은 어렵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제시된 것 같이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의 3월 1일이다. 즉 만 6세 혹은 7세에 아동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아동은 이 시기 동안 유치원·어린이집에서의 경험에서 벗어나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공간, 선생님, 친구들에 적응해야하고 아동의 역할, 정체성, 기대, 주변과의 상호작용 등 많은 변화에 노출된다(장명림 외, 2014). 기본적으로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아동은 초등학교 입학 초기에 적응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유아교육의 목적은 풍부하고 바람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고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곽희선, 1993)이지만, 초등교육은 향후 학교에서 교육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 학습 기능을 숙달하고 기본적 자질을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이정환, 1998; 이남연, 2005).

이러한 차이를 아동이 적응하는지 여부가 이후에 학교 교육을 통해 성공적으로 인지적, 지적 성장을 하는지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마주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못하면 아동은 공포감, 혐오감, 열등감을 경험할 수 있다(최지영·염애경, 2011). 이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시기의 적응 여부가 향후 상급학교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성인기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Pianta & Karft-Sayre, 2003).

아동의 성공적인 초등학교 적응을 위해서는 부모의 지원도 필요하다. 유치원·어린이집보다 상대적으로 학급 당 교사 대 아동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대교사와의 1대1 상호작용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동 마다 발달 속도가 다르고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녔던 연령인 만 5세 시기와 초등학교 입학한 연령인 만 6세 시기의 발달의 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는 초등학교 입학 후 자녀가 잘 적응했는지를 민감하게 관찰해야할 시기이다.

초등학교 진학 후 아동의 적응의 문제는 부모의 역할 변화와도 결부되게 된다. 초등 부모들은 자녀 취학에 따른 양육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영복, 2005). 또한, 초등 부모는 영유아 시기와는 다른 유형에 스트레스 부담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시기와는 다르게 초등학교 수업 적응, 평가, 교사와의 관계 등, 아동이 새롭게 경험해야할 과제들에 대한 우려가 발생한다(장명림 외, 2015). 예를 들면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앞둔 부모의 고민 1위는 교우관계로 나타났다(베이비뉴스 2017년 1월 17일 기사¹⁾). 즉, 자녀를 유치원·어린이집에 보냈을 때와는 다른 고민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아동의 적응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는 돌봄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초등 저학년의 경우 수업 시수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교육·돌봄 시간보다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지게 된다. 이러한 돌봄 공백 시간을 해결하기 위해 부모들은 방과 후 학원을 이용하기도 한다. 2015년 제3차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의 절반 이상이 방과 후에 학원(60.7%)을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초등돌봄교실 6.3%, 공부방 2.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들 중에서도 약 37%는 기관 이용 후에도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5)²⁾.

즉, 초등학교 입학 시기의 부모들은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에 대한 지원, 돌봄 공백이라는 이중고를 겪는다. 따라서 다른 양육 시기보다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영유아 시기에 비해 아동과 부모가 활용할

1) 베이비뉴스(2017. 1. 17).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앞둔 부모 고민 1위 '교우관계' (검색일: 2017.6.30.)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no=44429>

2) 여성가족부(2015). 가족실태조사(검색일: 2017년 10월 23일).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1510001022&conn_path=I3

수 있는 사회적 자원과 지원이 부족하였다. 현재 초등학교 적응 지원은 전무할 뿐만 아니라 방과후 돌봄이 초등 돌봄교실 위주로 이뤄지고 있지만 이마저도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부모와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근 다양한 관계 부처에서 운영·계획하고 있는 초등학교 부모 지원 제도를 분석하고 보완점, 또한 각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초등학교 부모의 양육지원 요구 및 자녀 진학으로 인한 어려움, 우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현재 초등학교 부모 지원 정책의 보완점,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전술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입학 시기의 아동의 발달 특성을 살펴본다. 유치원·어린이집의 마지막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발달상에 특성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둘째, 초등학생 입학 후 부모와 아동의 가정생활 변화를 살펴본다. 또한 부모의 역할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양육행동 및 역할 변화를 살펴본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후 어머니들의 취업률 변화, 취업모의 근로 조건변화, 어머니의 취업과 일-양육 갈등과 아동의 학교 적응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셋째, 초등 부모 및 아동에게 지원되는 정책 현황을 검토한다. 방과후돌봄교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취학 학부모 준비 지원 프로그램은 물론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같은 시간지원 정책도 검토한다.

넷째, 국외의 초등학생 부모 및 아동에게 지원되는 정책에 대해서 검토한다. 독일, 스웨덴 등 부모 및 초등학생에게 지원되는 돌봄 정책 및 초등학교 적응지원 정책에 대해서 살펴본다.

다섯째, 초등학교 입학 및 적응 과정에 대한 부모와 아동의 인식을 파악한다.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과 전이 과정 중에 나타나는 부모와 선생님의 태도,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와의 차이, 초등학교 적응에 어려운 점 등에 대한 아동과 부모의 인식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여섯째,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정책 요구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 자녀

가 초등학교 진학하여 겪게 되는 어려운 점, 불편한 점, 개선을 위해 지원해야 할 점 등의 요구사항을 파악한다.

마지막은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아동의 성공적인 초등학교 적응과 전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개선점을 도출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및 국내외 관련제도 및 정책 자료 수집

본 연구 수행을 위해 살펴본 문헌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진학 시기의 아동의 신체, 정서, 인지적 발달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둘째는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부모들의 취학준비, 취학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연구들이었다. 셋째는 초등학교 전이와 관련된 연구를 참고하였다. 초등학교 전이에 연구를 검토할 때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아동을 둘러싼 생태학적 환경 전이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넷째, 우리나라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정책 및 서비스를 검토하였다. 돌봄 서비스뿐만 아니라 취학 준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외의 초등학생 및 부모에게 지원되는 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선진 국가의 취학 아동 대상 및 부모에게 지원되고 있는 정책을 조사하였다.

나. 심층면담조사

초등학교 1학년 아동 60명과 해당 아동의 어머니 6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에 있어 아동의 의사소통 항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소정·이은주·김영태(2012)가 개발한 화용능력 체크리스트 중 담화관리(말을 주고받거나 주제를 시작하고 유지하고 끝내는 것과 관련된 기술) 항목에 부모가 모두 그렇다라고 응답한 아동과 부모만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부록 2참조). 가구 특성(맞벌이 여부), 지역을 고려하여서 심층면담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 어머니가 거주하는 지역은 대도시 30명(33.3%), 중소도시 19명(31.7%), 읍면 21명(35.0%)이었으며, 외벌이 가구 31명(51.7%), 맞벌이 가구 29명(48.3%)이었다. 구체적인 심층면담에 참여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I-3-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3-1〉 심층면담 참여 어머니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명(%)

구분	소분류	수(비율)	구분	소분류	수(비율)	
지역별	대도시	20(33.3)	양육비	10만원미만	12(20.0)	
	중소도시	19(31.7)		10만원~20만원 미만	11(18.3)	
	읍면	21(35.0)		20만원~30만원 미만	7(11.7)	
맞벌이 여부	외벌이	전업주부		31(51.7)	30만원~40만원 미만	8(13.3)
	맞벌이	시간제		15(25.0)	40만원~50만원 미만	5(8.3)
		전일제		11(18.3)	50만원 이상	16(26.7)
		자영업 등		3(5)	무응답	1(1.7)
자녀수	1명	6(10)		가구 소득	250만원 이하	8(13.3)
	2명	40(66.7)			250만원 초과~400만원 이하	18(30.0)
	3명	13(21.7)			400만원 초과	13(21.7)
	4명	1(1.7)	무응답		21(35.0)	
재직 기간	1년 미만	10(16.7)	10년 이상	9(15.0)		
	1년 이상~10년 미만	10(16.7)	전업주부	31(51.7)		
		계	60(100%)			

어머니에 대한 심층면담 질문은 아동이 초등학교 진학 후 좋아진 점, 어려운 점 및 불안한 점, 아동이 초등학교 진학으로 변화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대처하고 있는 방안, 이러한 대처 방안을 지원하는 혹은 방해하는 국가 정책 등 무엇인지 등이었다. 아동에게는 초등학교 입학 후 좋아진 점, 힘들어진 점, 부모님의 태도가 달라진 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과 초등학교 선생님과 차이점, 혼자 있는 시간 여부, 부모님이 없으면 불편한지 등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심층면담 조사의 진행과 내용 순서는 IRB 승인(KICCEIRB-2017-제03호)을 획득하였다. 자세한 면접조사 진행매뉴얼은 부록3에 부모와 아동의 면담 문항은 각각 부록 4와 5에 첨부되어 있다.

다. 한국아동패널 분석

초등학교 입학 전과 입학 후의 아동의 하루 일과 시간 변화,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 부모의 가정생활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아동패널 7차(2014년), 8차(2015년)의 기초 통계분석 자료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이 취업모의 노동시장 근로조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의 4~8차년도(2011~2015)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 변수는 어머니의 근로조건 관련 변수 중 임금수준, 주당 노동시간, 상용직 여부였다.

추가적으로 한국아동패널 8차 자료를 활용하여 어머니의 취업과 아동의 초등 학교 적응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직장 재직 여부와 아동의 학교 적응과의 관계성, 부모의 일-양육갈등과 아동의 학교적응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직장재직 여부와 아동의 학교 적응과의 관계성, 부모의 일-양육갈등과 아동의 학교적응과의 관계성에 미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매개변수로 부모의 학교생활의 관심, 학업에 대한 관심,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라.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연구방향 방향 결정 및 관련 정책개발의 도움을 받기 위해 초등학교 적응, 방과후 돌봄, 여성 노동 시장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을 실시하였다.

〈표 1-3-2〉 자문회의

구분	시기	참석자	내용
제1차	2017. 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전문가 1인	◦ 연구방향 및 아이돌봄서비스 자문
제2차	2017. 3	사회보장정보원 전문가 2인	◦ 초등학생 부모 대상 보육 및 서비스 현황 파악
제3차	2017. 3	한국교육개발원 전문가 2인	◦ 연구방향 및 초등자녀 방과후돌봄 정책 개선방향 논의
제4차	2017. 3	대학교수 2인	◦ 질적분석 및 면담질문구성 자문
제5차	2017. 5	대학교수 2인	◦ IRB 심의사항 보완점 자문
제6차	2017. 6	대학교수 1인, 현장 전문가 1인	◦ 중간보고서 검토
제7차	2017. 8	도봉구청 교육정책특별보좌관	◦ 도봉구 방과후 마을학교 자문 ◦ 초등자녀 돌봄지원 정책제언 자문
제8차	2017. 8	사회보장정보원 전문가 1인	◦ 패널자료 분석 자문
제9차	2017. 9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장	◦ 방과후돌봄 정책방안 자문
제10차	2017. 9	패널자료분석 전문가 1인	◦ 패널자료 분석 자문
제11차	2017. 10	대학교수 2인, 지자체 공무원 1인	◦ 최종보고서 검토
제12차	2017. 11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전문가 1인	◦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운영 시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제13차	2017. 11	초등학교 교사 3인	◦ 초등돌봄교실 운영 자문
제14차	2017. 11	대학교수 2인	◦ 초등자녀 양육지원 정책방안 검토

4. 연구범위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주로 1학년)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수업시간이 고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고, 유아교육에서 초등교육으로 전이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 비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하교시간이 빨라, 돌봄 정책 등의 개입이 중요한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유-초연계, 초등돌봄교실 등이 주요 정책인데 반해,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는 방과후 교실, 방과후 아카데미 등이 주요 정책이다. 따라서 초등 연령대에 따라 적용되는 정책이 다소 차이가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부모의 관여가 줄어들고 아동의 자율성 부분이 중요해진다. 따라서 본 연구 제목은 '초등자녀 양육지원 방안'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지원이 초점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생활에 관여도가 높은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II. 연구의 배경

1. 초등학교 취학 시기의 아동 발달 특성

초·중등교육법 제13조 1항에 따르면 아동이 6세가 된 날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시행 2016.8.4., 법률 제13943호, 2016.2.3., 일부개정). 2항에 따르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에도 입학시킬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1항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기는 만6세~7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초등학교 취학 직전과 직후 연령대는 발달단계로 크게 구분되지 않는 시기이다. 보통 만 6세~만 11세 사이를 아동 중기 단계라고 구분한다(Berk, 2001). 즉, 발달상 급격한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초등학교 취학이라는 급격한 환경적 변화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이 시기의 발달상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초등학교 취학 시기의 인지발달, 사회 및 정서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인지발달

초등학교 취학 시기는 인지발달의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듯이 Piaget의 구체적 조작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다양한 인지적 전략을 습득하는 단계이다(Wadsworth, 1996).

우선 첫 번째로 보존개념 및 가역성을 습득하는 시기이다(Wadsworth, 1996). 특정 물질이 물리적이거나 형태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속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특히, 역방향의 정신적 사고까지 행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유목과 서열에 대한 이해를 습득하는 시기이다(Wadsworth, 1996). 각, 사물을 공통성 있는 것으로 묶는다는가, 양적 차원을 기준으로 배치를 하는 인지적 전략을 습득한다. 특히 유목에 대한 이해는 범주를 일반 범주와 특수범주로 구분하고 각 범주와 관계성(예, 위계)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Hodges &

French, 1988). 또한, 서열에 대한 이해도 이행 추론까지 도달하게 된다(Andrews & Halford, 1998). 이행 추론이란 사물 A와 B의 관계, B와 C의 관계를 통해 A와 C의 관계까지 추론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공간추리 능력이 크게 발달하는 단계이다(Wadsworth, 1996). 아동 중기 초기에는 공간에 대한 이해가 완성된 단계가 아니지만 만 8-10세 정도에 '생각으로 걷기' 책략을 사용하여 지도 및 공간에 대한 이해 수준이 정교하게 된다(Gauvain & Rogoff, 1989). 이후 만 11세 이후에 지도와 지도를 나타내는 공간을 찾는 수준이 완성되어 지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게 된다(Liben, 2001).

네 번째는 정보처리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이다(Kail & Park, 1992, 1994). 뇌의 수초화 및 시냅스 연결이 확장되고, 작업 기억 내의 더 많은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정보처리의 효율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Halford & Andrews, 2006).

다섯 번째는 주의력의 증가와 더불어 억제능력도 증가하는 시기이다(Dempster & Corkill, 1999; Lin, Hsiao, & Chen, 1999). 이 시기 아동들은 목표와 관련 있는 자극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이 발달한다(Goldberg, Maurer, & Lewis, 2001). 이러한 주의력 발달은 목표와 관련 없는 자극에 대한 생각을 방지할 수 있는 억제능력의 상승이 동반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Dempster & Corkill, 1999). 이러한 주의력의 발달도 그림이나 읽기 자료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찾는 속도와 정확률이 크게 증가한다(Piaget, Gauvain, & Cole, 2004).

마지막으로 기억책략을 활용하면서 지식 활용능력, 기억수행 능력이 발달한다(Schneider, Knopf, & Stefanek, 2002). 자발적으로 정보를 반복하는 시연이나 관련된 항목을 서로 묶어서 기억하려는 책략인 조직화 등을 활용한다(Kunzinger, 1985). 이러한 책략 사용의 발달로 인해 특정 주제에 대한 지식을 쌓음으로 인해서 특정 주제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고, 관련 주제에 대한 정보의 저장과 인출이 수준이 비전문적인 영역보다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인지적 능력의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계가 분명한 시기이다. 아직 자극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동하기 전에 판단을 내리는 것에 미숙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Tuchfarber, Zins, & Jason, 1997). 특히, 앞서 전술한 여러 가지 능력이 완성되는 단계는 아동 중기 말기인 만 11세 정도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취학시기인 6-7세 수준은 인지발달이 매우 미숙한 상태이다. 예를 들면, 앞서 전술한 인지발달 능력 중에 공간 추리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여전히 미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다(Howard, Broughton, &

Committee on Psychosocial Aspects of Child and Family Health, 2004).

또한 이 시기는 아동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수준에 따라 인지 발달의 개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다. 아동의 보존개념 및 이행추론 같은 인지전략 획득이 문화나 교육환경에 따라 획득연령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Artman & Cahan, 1993)

나. 정서 및 사회적 발달

초등학교 취학 시기는 Erikson 이론의 심리 갈등 단계인 근면성과 열등감 단계이다(Berk, 2001). Erikson은 이 단계의 가장 큰 특징은 초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넓히면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학업을 시작하면서 노동에 대한 가치를 학습하고, 책임감을 발달하는 단계라고 설명하였다(Erikson, 1959). 이 과정에서 사회적 기술과 자신이 맡은 과업을 충실히 하지 못하게 되면 비관주의에 빠지게 되어 열등감이 형성된다고 보았다(Hamachek, 1977).

특히 이 시기 중점적으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부분은 자기에 대한 이해부분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자기 개념을 형성하기 시작한다(Berk, 2001). 이러한 자기개념 파악의 일환으로 자신의 능력이나 외모, 행동에 대한 사회적 비교하기 시작한다(Butler, 1998). 취학 전 아동도 자신의 능력을 비교하기는 하지만, 주로 1:1의 비교였다면, 이 시기 아동들은 1대 다수의 아동까지 비교를 할 수 있게 된다(Butler, 1998). 또한 집단에 소속함으로 인해 제공받는 피드백을 통해 자기개념을 형성하기도 한다(Oosterwegel & Oppenheimer, 1993).

이러한 자기개념의 형성으로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Marsh, 1990). 6~7세 시기에는 외모, 사회적 능력, 학업 능력 등으로 구분하여 자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러한 자기 평가의 범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많아지게 된다(Van den Bergh & De Rycke, 2003). 특히 외모 부분이 다른 평가영역보다 가치를 두게 된다(Marsh, Craven, & Debus, 1998).

이 시기의 아동은 자기에 대한 개념과 사회적 민감성 등의 발달과 더불어 정서발달도 이뤄지게 된다(Berk, 2001). 거짓말 같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책임감 회피 등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떨어지기도 한다(Ferguson, Stegge, & Damhuis, 1991).

정서에 대한 이해가 발달하지만 완전한 이해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Flavell, Flavell, & Green, 2001). 구체적으로 한 번에 다양한 정서를 느낄 수 있고 혼

합정서를 이해하기도 한다(Pons, Lawson, Harris, & De Rosnay, 2003; Saarni, 1999). 이러한 부분의 발달과 더불어 조망수용능력의 발달한다. 조망수용 능력이란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낄지를 추측하는 능력으로 공감능력도 발달까지 이어지게 된다(Hoffman, 2008).

정서에 대한 자기 조정은 10세 이후에나 발달하게 된다(Kilewer, Fearnow, & Miller, 1996). 구체적으로 정서 조절 책략이라고 알려진 문제중심대처, 정서중심대처 같은 책략들이 발달하게 된다(Brenner & Salovey, 1997).

도덕적 이해와 사회 관습의 이해 함께 발달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아동중기 초기인 6-7세 수준에서는 엄격한 균등, 보상에 개념으로 도덕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Damon, 1981). 또한 만7-8세가 의도까지 파악하여 도덕적 판단을 하게 된다(Bussey, 1999).

아동 중기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술, 타인에 대한 이해, 정서관리 능력들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시기이다. 하지만 초등학교 취학 시기는 사회 및 정서 발달이 이뤄지는 초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적응 실패는 향후 학교 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목해야할 부분은 또래관계 부분이다. 사회적 집단과 유사한 또래집단이 구성되어 사회적 구조를 경험하기 시작한다(Cairns, Xie, & Leung, 1998). 이런 또래 집단의 형성으로 또래집단의 이탈, 합류 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들은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한다(Bagwell, Schmidt, Newcomb, & Bukowski, 2001).

이러한 문제의 극단적인 예는 집단 따돌림이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에 집단 따돌림 발생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경희·고재홍, 2006). 이러한 직장 따돌림으로 인한 피해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학업성취, 등을 저하시키고 우울증 발생, 파괴적인 행동까지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Kochenderfer-Ladd & Wardrop, 2001; Paul & Cillessen, 2003).

이외에 아동들이 겪을 수 있는 발달상의 문제는 학업 실패에 대한 불안(Cassady & Johnson, 2002)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간혹 강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공포증 등을 경험하기도 한다(Gullone, 2000). 또한, 이러한 문제가 학교 공포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학교 공포증을 주로 경험하는 아동은 초등학교 입학 시기인 5-7세 사이이고, 학교 공포증에 가장 큰 원인은 어머니와의 분리이다(Elliot, 1999).

2. 초등학교 취학에 따른 부모 역할 변화

앞서 살펴보았듯이 초등학교 취학 시기는 아동의 완전한 발달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로 인해 아동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불안 요소가 많은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부모의 지원은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다(최지영·염애경, 2011). 특히, 아동이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기 시기 때문에 부모의 양질의 취학 지원이 더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놀이 활동이 중심이고 교육시간 및 내용이 매우 유연하였던 유치원·어린이집에 비해 초등학교는 일정 및 내용이 매우 구조화되어 있다. 이러한 규격화된 교육환경을 아동은 인생에서 처음 접하게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적응에 상당히 어려움을 표하게 된다(박효정, 2002). 초등학교 입학 초기에 적응에 실패하게 되면, 학교에 대한 공포감이 만들어지게 되고, 학교 내 친구들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초등학교 생활에 영향을 주게 된다(이경민·강정원, 2006).

적응의 문제는 부모도 함께 겪게 된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및 지식의 습득과 활용성이 낮아 적절한 부모역할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자녀 양육지원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김영복, 2005). 실제로, 이러한 역할 수행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아동의 학교 생활의 부적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입학 유예결정을 내리기도 한다(이윤경·박은혜·전홍주, 2007). 즉, 자녀에게 초등학교 입학은 학부모에게 심리적 부담과 불안감이 발생시킬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허혜경, 2014). 정우정(2006) 연구에 따르면 학부모의 96.4%가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에 대해 걱정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불안감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의 자녀의 생활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정우정(2006)의 연구에서 학부모에게 자녀의 입학 후 가장 힘들었던 이유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정보를 얻을 만한 곳이 없었다의 응답비율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미리 습득해야할 필요가 있다. 허혜경(2014)의 연구에서 자녀가 초등학교로 전이하는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조사한 목록을 살펴보면 학부모가 취득해야하는 다양한 정보가 요

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학부모 자체도 이러한 정보 습득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허혜경(2014)이 조사한 초등학교 관련 정보는 가족의 지원과 정서적 격려, 자녀능력이 관한 정보 등 다양하다. 구체적인 필요 정보는 <표 II-2-1>에 제시하였다.

<표 II-2-1> 초등학교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정보 유형

내용	
• 가족의 지원과 정서적 격려	• 초등학교 전이준비에 관한 정보
• 자녀능력에 관한 정보	• 초등학교학업요구사항에 대한 정보
• 초등학교의 행동요구에 관한 정보	• 유치원의 전이준비 숙지
• 학부모의 전이준비에 관한 정보	• 학교의 지원과 정서적 격려
• 새 초등학교에 관한 정보	• 유치원 과정에 관한 정보
• 초등교육과정에 관한 정보	• 새 초등학교 교사에 관한 정보

자료: 허혜경(2014). 유아-초등교육 전이에 관한 학부모의 인식과 참여 실태. 유아교육연구, 34(2), p 445. 재구성.

소개한 정보 유형들은 결국 아동의 학교 준비도와 학습 준비도의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학교준비도와 학습준비도는 “학교생활전반에 걸쳐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학습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적응과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준비를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이나 학습준비도는 성공적인 학업수행에 필수적인 선수요인으로 학습의 기초기능이 강조되는 협의의 개념이다(김창복·이신영, 2013: 2)”

부모의 학교준비도와 학습준비도의 차이는 아동의 학교 생활의 적응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Diamon, Reagan, & Bandyk, 2000). 따라서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과 초등교육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아동에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취학 전 아동의 학교 생활의 적응을 돕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실시하는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도 존재한다(최지영·염애경, 2011). 최지영·염애경(2011)의 연구에 따르면 취학 전 아동의 학부모 대부분이 아동의 학교적응 지원에 필요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조사 결과 실제로 많은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부모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부모교육은 주로 원장, 원감을 포함한 교사가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교장이나 교감이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모 교육수준에서 넘어 자녀의 취학 후 학교 적응 지원을 위해 사교육까지

실시하기도 한다. 전술하였듯이 학부모는 자녀의 사회적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업 등 다양한 적응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안고 있지만(지성애 외, 2006), 가장 큰 우려 사항은 자녀의 학업에 대한 적응이다(김창복·이신영, 2013).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선학습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는 부모도 존재한다(황운세·최미숙, 2006). 실제로 황운세·최미숙(2006) 연구에서는 자녀의 학업 적응을 위해 국어와 수학에 대한 지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후 외(2011) 연구에서는 외국어 교육 등을 추가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옥·배지희(2014) 연구에서도 학부모들이 자녀 친구들과 사이에서 뒤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학부모들이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학부모 역할 및 인식의 차이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학부모의 배경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은영·손원경, 2010; 지성애, 2010; 지성애·정대현 외, 2006).

특히, 부모와 학력수준과 소득수준의 차이가 자녀 취학에 대한 준비도 및 지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주후, 2007; 김창복·이경순·나성식, 2007; 지성애, 2010).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은 학부모는 실제 초등학교 교사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는 경향성이 높았으며, 사회-정서 발달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후(2007) 연구에서는 부모와 학력수준이 높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부모의 집단 보다 인지 중심 발달보다 사회-정서 발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김창복 외(2007) 연구에서도 부모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이 기초학습 능력 및 지식 습득을 높은 집단에 비해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성애(2010) 연구에서도 학부모 학력과 경제력이 낮을 수록 유-초연계과정과 전이라는 용어, 취학과 관련된 이해도 수준이 낮았다.

3. 교육과정의 변화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은 실질적인 목적과 목표의 차이가 존재한다. 유아교육의 목적은 누리과정 교육 과정의 목적에 기재되어 있는 것 같이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반면 초등교육의 목적은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습관 및 기초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두 교육과정의 큰 차이는 학습의 유무이다. 누리교육과정의 목표에는 학습이란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 초등학교 교육은 학습,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누리교육과정은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인데 비해 초등교육과정은 한발 더 나아가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배려하는 태도까지를 목적으로 한다. 즉, 초등학교에서 고급 사회적 기술 요구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목표 및 목적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이끌어낸다.

우선,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 기관의 운영이 다르다. 유치원·어린이집은 초등학교보다 돌봄이 우선이기 때문에 매우 자율적이고, 비구조화 되어 있는 반면, 초등학교는 학업 성취의 목적도 존재하기 때문에 구조화 정도가 심하다(조운주·김은영, 2009). 예를 들면, 유치원은 각 아동의 흥미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자유선택이 중심이나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은 단조롭게 구성되어 있는 측면이 강하다(조운주·김은영, 2009).

또한, 유아교육기관과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의 차이가 존재한다. 유아교육과정은 놀이와 활동 중심인데 비해 초등학교는 교과서 중심, 교사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진다(장명림 외, 2015). 그렇기 때문에 유아교육과정에서 수업시간에 자유롭게 이동했던 것에 익숙했던 아동들은 이질감을 경험하기도 한다(정대현·지성애, 2006). 또한, 교사의 상호작용 패턴도 달라져, 교사와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유치원과는 다르게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는 교과서 내용 위주로 질문과 답이 이뤄지는 지시적인 형태로 교사와 상호작용이 이뤄지고 규칙적용도 초등학교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김민진, 2006).

누리교육과정과 초등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과정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누리교육과정은 1일 4~5시간 기준으로 편성하고, 5개 영역의 내용을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반면(교육부 고시 제2015-61호, 유치원 교육과정(3-5세 연령별 누리과정:2), 초등학교에는 각 교과목별 수업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초등학교 1~2학년의 교과 시간은 총 국어 448시간, 수학 256시간 등 총 연간 1,74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2. 초등학교 교육과정]:8).

〈표 II-3-1〉 유아교육의 목표

구분	내용
1. 목적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목표	가. 기본 운동 능력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른다. 다.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라.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 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마.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세계를 탐구하며, 일상생활에서 수학적·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자료: 교육부 고시 제 2015 - 61호. 유치원 교육과정(3-5세 연령별 누리과정). p.2

〈표 II-3-2〉 초등학교 교육 목표

교육 목표	
초등학교 교육은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1)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기르며,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운다
2)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3)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고 자연과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심성을 기른다
4)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른다.

자료: 교육부 고시 제2015 - 74호. [별책2. 초등학교 교육과정] p.28.

특히, 아동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낸다. 누리교육과정에서의 유아 평가는 내용상 유아에 대한 학습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 유아의 특성의 변화 정도 수준을 측정하고, 관찰 활동 결과물 분석, 부모면담만 이뤄지고 인지검사까지 이뤄지지 않는다.

반면 초등교육과정에서의 아동 평가는 실제로 학습 평가가 이뤄진다. 실제로 적절한 학습과 습득과정이 이뤄지고 있는지, 수업의 질이 충실한지 등을 평가하고 일정한 성취기준을 설정하여 교수·학습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즉, 아동의 서술형, 논술형 평가 및 수행 평가와 같은 인지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아동은 입학 초기에 이러한 평가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표 II-3-3〉 누리과정 교육과정에서의 유아 평가

유아평가 내용
(1) 누리과정 목표와 내용에 근거하여 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평가한다.
(2) 유아의 지식, 기능, 태도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3) 유아의 일상생활과 누리과정 활동 전반에 걸쳐 평가한다.
(4) 관찰, 활동 결과물 분석, 부모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5) 유아평가 결과는 유아에 대한 이해와 누리과정 운영 개선 및 부모 면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자료: 교육부 고시 제 2015 - 61호. 유치원 교육과정(3-5세 연령별 누리과정). p.4.

〈표 II-3-4〉 초등교육과정에서의 아동 평가

아동평가 내용
가. 평가는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1) 학교는 학생에게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과 추수 지도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학생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수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나. 학교와 교사는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중요하게 지도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며 교수·학습과 평가 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1) 학생에게 배울 기회를 주지 않은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2)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을 평가하여 모든 학생이 교육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3) 학교는 학생의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에 대한 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 학교는 교과외 성격과 특성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1)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 및 수행평가의 비중을 확대한다.
2)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과는 타당한 평정 기준과 척도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3) 실험·실습의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4) 창의적 체험활동은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결정하여 평가한다.
5) 전문교과Ⅱ의 실무 과목은 성취 평가제와 연계하여 내용 요소를 구성하는 능력 단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료: 교육부 고시 제2015 - 74호. [별책2 초등학교 교육과정] p.28.

4. 소결: 초등학교 적응 및 전이 중심으로

초등학교 취학은 앞서 아동의 인지적, 사회·정서적 발달, 부모의 변화, 교육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양한 환경 변화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아동은 성공적인 전이를 거쳐야 한다. “전이(transition)는 한 가지 형태, 환경, 조건 혹은 장소에서 다른 형태나 환경, 조건 장소로 이동해가는 과정”(나수현, 2008, 장명립 외 2015: 21에서 재인용)이다. 즉, 아동이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새로운 교육환경인 초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은 전이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의 전이는 초등교육뿐만 아니라 향후 교육과정 성공에도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Entwisle & Alexander,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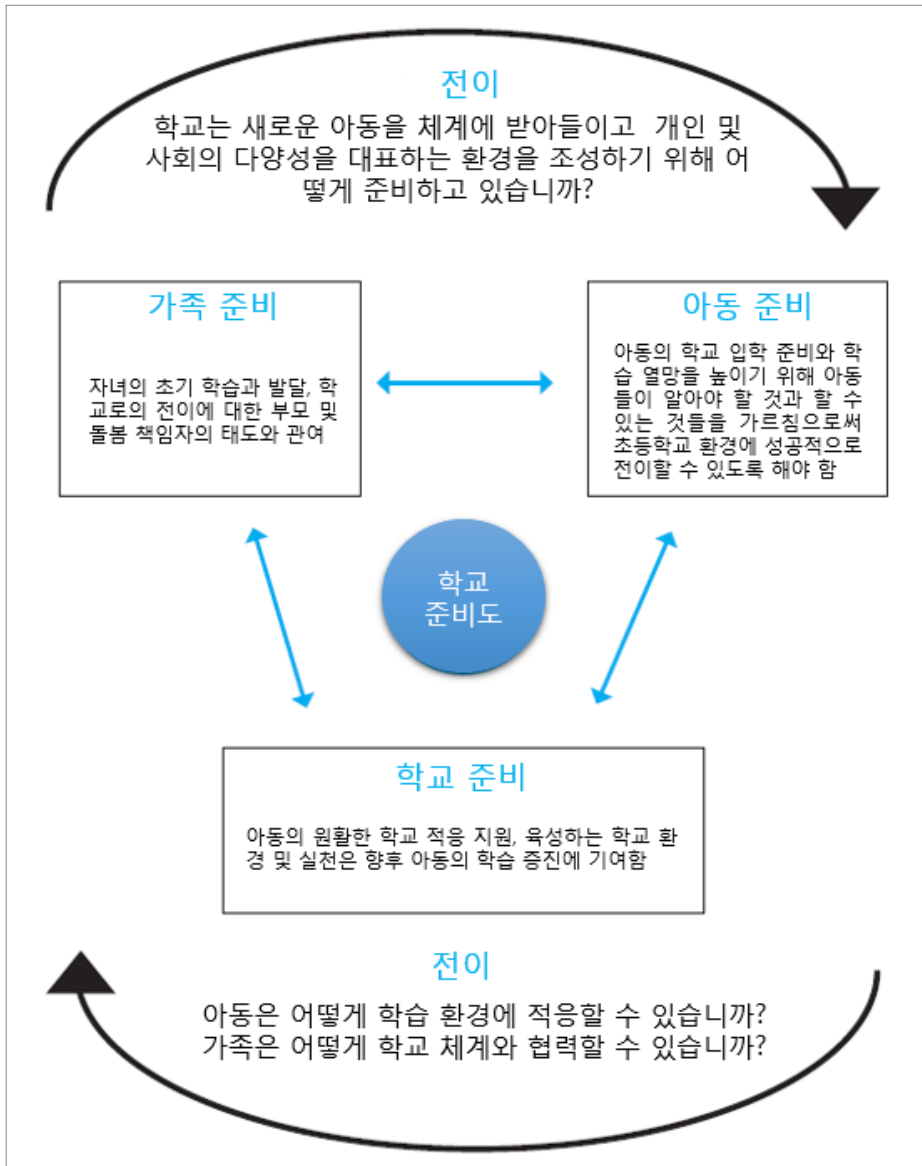
성공적인 전이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변화한 학교 안과 밖의 환경 변화 대한 아동의 적응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아동의 변화된 교육환경에 대한 전이 및 적응 지원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개념이 학교 준비도(school readiness)이다.

학교준비도는 크게 3가지 관련 차원으로 정의된다(UNICEF, 2012). 첫 번째는 아동의 준비, 두 번째는 학교의 준비, 마지막으로는 가족의 준비이다. [그림 II-1-1]에 제시된 것과 같이 학교에서 역량과 기술을 쌓을 수 있도록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과 학교의 준비도 필요하다.

첫 번째 아동 준비 부분은 아동의 초등학교에 성공적인 전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아동이 학교에 입학하고 학습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아동이 알아야 할 것들이다(Lara-Cinisomo, Pebley, Vaiana, & Maggio, 2004). 주로 다양한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발달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두 번째는 학교 준비로 학교의 환경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초등학교에 아동이 원활하게 전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초기 학습과 초등학교 환경 사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의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다(UNICEF, 2012).

마지막은 가족 준비로 아동의 초기학습, 발달, 학교로의 전이에 대한 부모와 돌봄 책임자의 태도와 관여가 이에 해당한다. 가족은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초기 학습, 아동의 학교 등원 등을 지원해야하고 적응에 필요한 스트레스도 관리해줘야 한다. 이러한 부분은 부모의 자녀 초기학습과 발달에 대한 관심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료: UNICEF(2012). School readiness and transitions. p. 5.

[그림 II-1-1] 학교준비 개념도

따라서 전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아동의 성공적인 적응 및 전이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 번째로 이 시기 아동의 인지적 발달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다양한 인지적 책략인, 보존개념 획득, 유목화 서열화, 공간추리 능력, 조직화 등의 기억 책략 등이 완성되는 시기는 아동 중기 말엽인 11세 이후이다. 즉, 인지적으로 한계가 명확한 지점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인지 책략은 사회·문화적 환경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적절한 교육환경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누리교육과정과 초등교육과정의 차이에서 볼 수 있듯이 초등교육과정에서 급격하게 수행평가로 전환되기 때문에, 인지적 발달이 완전치 않은 상태에서 수행평가의 진행은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의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외에, 공간추리 능력, 억제 같은 인지 능력도 발달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미아사고, 교통사고, 게임 중독 등의 문제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아동의 사회적 관계 부분이다. 새로운 친구와 관계를 형성하는 문제 등 또래 관계에 대한 부분은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의 문제로 자주 언급되었던 요인이다(김민진, 2008). 부모의 초등학교 취학의 걱정과 우려에서도 또래관계가 자주 언급되어 왔다(김창복·이신영, 2013; 장명림 외 2015; 허혜경, 2014). 이 시기는 아동의 사회적 비교가 시작되는 관계이고, 이러한 사회적 비교에서 자기개념을 구성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이 초등학교 적응 및 전이를 성공적으로 마치는데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또래관계가 원만히 이뤄지지 못하면 아동의 자아존중감, 학업성취 저하, 우울증 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심하게는 집단 따돌림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세 번째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아직 완전한 발달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족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아동에게서 발생하는 이유 없는 공포증은 어머니로부터 분리에 대한 우려로 발생되기도 한다(Gullone, 2000).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변화 등으로 인해 요구되는 학부모 역할변화에 대한 적응이 선결과제이다. 이러한 적응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고 부모교육도 필요하다. 또한, 적응 및 전이에 대한 학부모 지원이 학부모에 학력 및 경제수준의 차이로 인해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소득수준과 학력 수준이 높은 학부모는 아동의 인지적 능력 수준의 지원보다도 사회·정서 발달 측면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준이 낮은 부모보다 양질의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차이는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 및 전이에 대한 양극화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적응 및 전이를 위한 보편적인 부모

의 역할 모델 제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유-초연계 과정에 대한 모델 구성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학교 교실환경을 비롯하여, 수업방식, 교사 태도 등 전반적인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을 제시하였다(김창복·이신영, 2013; 지성애, 2010; 허혜경, 2014). 이에 대비책으로 교육부는 2015개정 초등학교교육과정에는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초기적응을 위한 체험활동 시간을 아동의 입학 초기 적응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고 체험활동 시간 배당기준도 이전 272시간에서 336시간으로 크게 증가시키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장명림 외, 2015). 따라서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아동의 유아교육기관에서 초등교육기관의 성공적으로 전이기 되기 위해서는 유-초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일관성, 전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학부모, 유아교육자, 초등교육자를 비롯한 아동의 생태학적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계층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Ⅲ. 초등자녀 양육지원 정책 현황

초등자녀 양육지원 정책을 크게 돌봄 서비스 지원, 교육 및 정보제공, 시간지원의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돌봄 서비스 지원은 주로 방과후돌봄을 뜻하며,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초등학교 전이 지원은 교육 및 정보제공으로, 자녀의 성장발달에 적절한 부모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시간지원은 부모가 자녀양육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1. 돌봄 정책

초등 부모와 아동 위한 대표적인 아동 돌봄 정책인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봄서비스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중 방과후학교는 돌봄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지만, 돌봄 서비스 제공이 운영 목적 중 하나이며,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방과후돌봄의 한 방편으로 이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수요자의 관점에서 돌봄 정책으로 분류하였다.

가. 초등돌봄교실

초등돌봄교실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맞벌이 가정 증가에 따라 초등자녀를 둔 부모들이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학교 내에 방과후돌봄 기능 강화방안으로 추진되어온 교육부의 정책이다(교육부 보도자료, 2016. 06. 23).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17시까지의 오후돌봄과 17~22시의 저녁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교육부 보도자료, 2016. 06. 23). 2004년 '방과후 보육'으로 28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도입된 후, 2006년 '도시 초등보육 지원'으로 400개 초등학교로 확대되고 매년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교육부 보도자료, 2016. 06. 23).

1) 정책내용

초등돌봄교실(이하 돌봄교실)은 '별도 시설(전용 또는 겸용교실 등)이 갖추어진 공간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돌봄 활동'을 말한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7:3). 돌봄교실은 참여대상과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돌봄', '저녁돌봄',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로 구분할 수 있다. 오후돌봄은 주로 1~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며, 저녁돌봄은 오후돌봄 참여 학생 중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제공한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7:4).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3~6학년 학생 중 오후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7:4). 이는 돌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가 방과후돌봄 서비스 간 연계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표 III-1-1〉 2017년 초등돌봄교실 참여대상

구분	참여대상
오후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학년은 기 구축된 돌봄교실에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함. 단, 시·도 및 학교 여건에 따라 담임 등이 추천한 학생(예: 일시적 실직, 일시적 경력단절 등으로 구직중인 가정 자녀 등)도 포함됨. · 1~2학년 학생 수용 후, 추가 수용 가능한 경우 3학년 이상은 학교 여건에 따라 우선 순위^{주1)}를 정해 수용함.
저녁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후돌봄에 참여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함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공간에서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3~6학년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학생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1~2개 이상 참여하면서, 오후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함.

주: 1) 우선순위의 예로는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 중 '16 오후돌봄 참여 학생, 저학년 우선, 저녁돌봄 참여 여부, 방과후학교 참여 여부 등이 있음.

2) 단위학교는 학교여건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운영할 수 있음.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한국교육개발원. p.4

단위학교는 돌봄교실의 참여희망 학생을 수요 조사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수요조사는 학교여건에 따라 1년에 1~4회 정도 실시할 수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7:3). “초등돌봄교실 길라잡이”에서는 돌봄교실은 가급적 1층에 배

치하고, 관리실과 인접하게 하여 학생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며,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아늑하게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7). 그러나 시설 설치기준이 권고사항에 그치고, 필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임의의 기준으로 학교여건에 따라 유휴교실이나 다양한 특별실 등이 활용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돌봄교실의 운영규모는 교실 당 20명 내외로 편성·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7:5).

프로그램은 매일 1개 이상의 무상프로그램을 제공하되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유상 제공할 수 있으며, 교육비 지원대상은 전액 무상으로 한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7:5). 오후돌봄의 무상프로그램은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저학년 특성에 맞는 놀이 및 안전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7:5).

돌봄전담사는 돌봄교실 운영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유·초·중등 교사,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인력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은 시·도별로 채용기준·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7:6). 방과 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은 교육기부자, 자원봉사자, 교원, 학부모 등 다양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별도 자격제한이 없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7:6). 단, 돌봄 인력 활용 시에는 사전에 성범죄·아동학대관련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확인한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7:6). 2017년에는 돌봄교실 운영의 체계적 관리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 돌봄전담사 대상 교육을 강화하며, 2015년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개발·보급한 “온라인(초등돌봄.com)”을 통해 콘텐츠를 지속·제공한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7:22).

교육부는 2017년 초등돌봄교실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는데, 학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돌봄교실을 내실화하고,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구축하고 체험기간을 운영하여 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이다(교육부 보도자료, 2017. 01. 11). 또한 인구과밀지역에서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이 신청자 초과로 수용되지 못하는 경우 시도별 즉각 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수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교육부 보도자료, 2017. 01. 11).

특히, 실당 운영비를 기존보다 1천만원 증액하여 4천만원으로 책정하여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운영시간 연장 시 운영 지원금으로 활용하여 돌봄교실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운영시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7:15). 또한 시설 증축을 통해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며, 전용교실 전환 지원, 노후시설 환경개선 등 시설 만족도를 향상을 기하고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7:15).

또한, 2017년 지역돌봄협의체(183개), 권역별 협의회(949개)를 대상으로 지역 돌봄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교육청 및 지자체 간, 학교와 지역돌봄기관 간 연계체제를 강화하여 방과후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7:23).

구분	'16년	'17년
실당 운영비	· 오후 : 30백	· 오후 : 40백(10백만원 증액)
운영 시간	· 학부모 수요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학부모 수요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 연장·조정 운영 및 방학 등 휴업일 중 오전부터 운영 권장
프로그램	· 매일 1개 이상 무상 프로그램	· 매일 1개 이상 무상프로그램 지속 강화 ·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내 다양한 돌봄 인력을 활용하여 틈새 프로그램 운영
돌봄 전담사	· 원격교육 운영 지원 · 대체인력풀 구축 권장	· 시도별 처우개선 방안 마련 · 돌봄전담사 대상 집합·원격교육 운영 및 대체인력풀 구축·활용
시설	· 시설 증축	· 시도의 수요 반영하여 시설 증축(약 200실) · 겸용교실을 전용교실로 전환 지원 ·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구축 및 기존 노후 시설 보수 등 환경개선 지원
지역 연계	· 학교 및 지역돌봄기관간 협의체 운영 강화 · 자원봉사 인력 등 활용	· 저녁 및 방학 등 휴업일 중 돌봄 연계체제 강화 · 대학생, 퇴직교원, 학부모 등 교육기부 자원 활용 확대
홍보	· 교육청·학교 홈페이지, SNS 등 활용	· 정책 소통 기회 마련, 돌봄교실 우수사례 확산 등 적극적인 홍보 실시 · 교원 대상 정책 인식 개선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17. 01. 11). 2017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 별첨 2 발췌.

[그림 III-1-1] 2017년 초등돌봄교실 개선방안

학부모는 교육부·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지역 돌봄안내지도를 확인하고 다운받을 수 있다(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³⁾, 2017. 5. 15 인출).



자료: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2017. 5. 15 인출) <https://www.afterschool.go.kr/careservice/careserviceMap.do>

[그림 III-1-2] 지역 돌봄기관 안내지도 예시: 경기 성남시

2017년에는 학부모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초등돌봄교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베스트베이비, 2017년 3월호⁴). 2016년까지는 초등돌봄교실 관련 정보를 예비 학부모의 경우에는 예비소집일 학교방문을 통해서, 재학생 학부모의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을 확인해야만 가능했지만, 2017년부터는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를 통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초등돌봄교실 정보를 확인할

3)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2017. 5. 15 인출) <https://www.afterschool.go.kr/careservice/careserviceMap.do>

4) 베스트베이비(2017. 3월호). ‘달라지는 2017 육아지원정책. (2017. 5. 29 인출)

http://navercast.naver.com/magazine_contents.nhn?rid=1097&contents_id=132945

수 있다(베스트베이비, 2017년 3월호). 학교방문 없이 관련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학부모의 편의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된다(베스트 베이비, 2017년 3월호). 또한 돌봄교실 배정 상황은 SMS를 통해 전달되며, 출결 상황, 급간식 메뉴, 귀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베스트베이비, 2017년 3월호).

초등돌봄교실 정책의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서 학년 특성에 맞게 운영을 다양화하고, 학교장 재량으로 돌봄 체험 기간을 운영하며, 휴업일 운영의 내실화, 돌봄교실 시설 증축 등이 추진한다(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2017. 6. 1 인출)⁵⁾. 둘째, 질 높고 안전한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놀이/안전 프로그램 강화, 돌봄전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저녁돌봄 및 귀가안전을 강화하고, 급·간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2017. 6. 1 인출). 셋째, 지역과 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역돌봄기관과의 연계,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활성화한다(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2017. 6. 1 인출)(그림 III-1-3 참조).

중점 추진 과제 및 세부 추진 과제		
1	수요자 중심의 돌봄교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 특성에 맞는 운영 다양화 - 학교장 재량 돌봄체험 기간 운영 - 방학등 휴업일 운영 내실화 - 돌봄교실 시설 증축
2	질 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 및 안전 등 프로그램 강화 - 돌봄전담사 전문성 제고 및 사기 진작 - 저녁돌봄 및 귀가안전 강화 - 급·간식 안전관리 강화
3	지역과 사회가 함께하는 돌봄서비스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돌봄기관과 연계 등 강화 - 지역사회 자원 활용 활성화 - 대학생 봉사활동 활용 강화 - 학부모 및 퇴직교원 참여 활성화

자료: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검색일: 2017. 6. 1)

<https://www.afterschool.go.kr/careservice/classroom.do>

[그림 III-1-3] 초등돌봄교실 중점추진과제

5)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검색일: 2017. 6. 1) <https://www.afterschool.go.kr/careservice/classroom.do>

2) 운영 현황

초등돌봄교실은 2004년 사교육비 경감정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당시는 '방과후 교실')의 운영을 도입하는 정책이 채택된 이후, 꾸준히 참여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조진일·김홍원·최형주 외, 2015:21-22).

〈표 III-1-2〉 초등돌봄교실 연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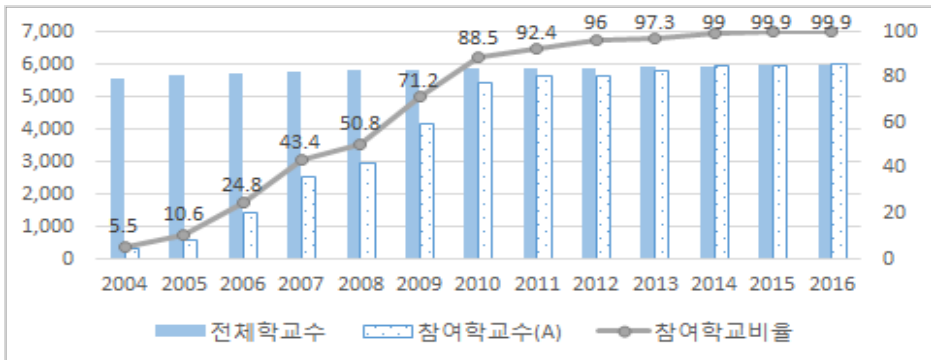
단위: 개, (%), 교실, 천명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학교수(A)	5,541	5,646	5,733	5,756	5,813	5,829	5,854	5,882	5,895	5,913	5,934	5,978	6,001
참여학교수(B)	337	609	1,421	2,508	2,962	4,146	5,430	5,639	5,652	5,784	5,938	5,972	5,998
참여학교비율	(5.5)	(10.6)	(24.8)	(43.4)	(50.8)	(71.2)	(88.5)	(92.4)	(96.0)	(97.3)	(99.0)	(99.9)	(99.9)
돌봄교실수(C)	445	889	1,631	2,718	3,334	4,622	6,200	5,430	7,086	7,395	10,966	12,380	11,920
평균교실 수 ^{주1)}	0.1	0.2	0.3	0.5	0.6	0.8	1.1	0.9	1.2	1.3	1.8	2.1	2.0
평균교실 수 ^{주2)}	1.3	1.5	1.1	1.1	1.1	1.1	1.1	0.8	1.3	1.3	1.8	2.1	2.0
전체학생수 (천명)(D)	4,116	4,023	3,925	3,830	3,672	3,474	3,299	3,132	2,952	2,784	2,729	2,715	2,673
참여학생수 (천명)(E)	8	13	37	50	55	77	104	124	159	160	221	240	244
학생참여율 ^{주3)}	(0.2)	(0.3)	(0.9)	(1.3)	(1.5)	(2.2)	(3.2)	(4.0)	(5.4)	(5.7)	(8.1)	(8.8)	(9.1)

- 주: 1) C/A: 전체 학교당 평균교실 수
 2) C/B: 참여 학교당 평균교실 수
 3) E/D: 전체 초등학생 대비 참여학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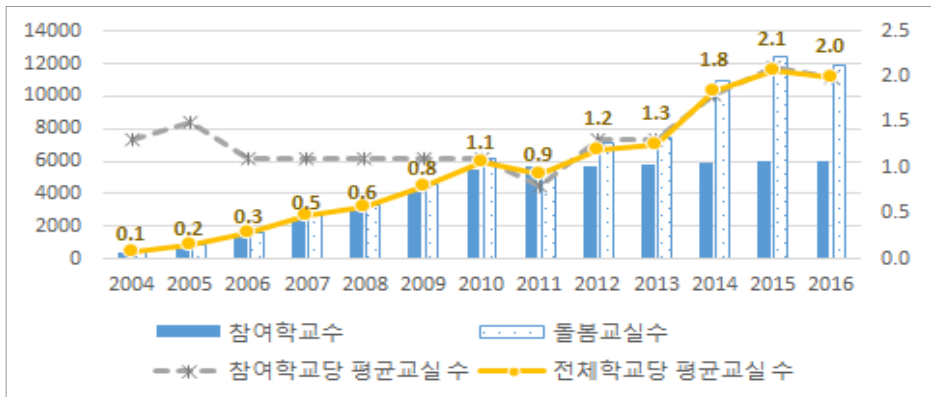
- 자료: 1) 조진일·김홍원·최형주·손종렬·신화주·안성현·정유진(2015). 초등돌봄교실의 환경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22.
 2) 교육부 보도자료(2016. 06. 23). 행복교육과 일가정 양립의 핵심정책, 초등돌봄교실. p.1
 3) 교육통계서비스 2004~2016년 초등학교 연도별 추이(검색일: 2017. 6. 27)
http://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943&survSeq=2016&itemCode=01&enuId=m_010105&suppCd1=010105&suppCd2=010105&flag=B
 4) 교육부 보도자료(2016. 5. 3).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안). p.2

〈표 III-1-2〉에 따르면 2004년에는 전국 초등학교 중 337개교(5.5%)에서 돌봄교실이 445실이 설치되어 8천여명이 이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이용 학생 수가 10만명이 넘어섰다. 2014년부터는 전체 초등학교의 99%(5,938개교)가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실 수는 1만개를 넘어섰다. 2016년에는 11,920개실의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학교당 평균 교실 수는 2개 정도이며, 총 24만 4천여명의 초등학생이 이용하고 있다. 이는 전체 초등학생의 9.1% 수준이다. 초등돌봄교실 이용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방과후돌봄 수요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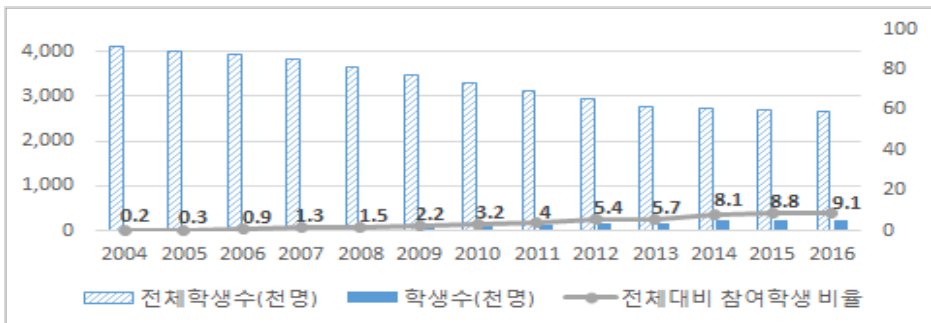
자료: <표 III-1-2> 그림으로 구성

[그림 III-1-4] 초등돌봄교실 운영학교 현황



자료: <표 III-1-2> 그림으로 구성

[그림 III-1-5] 초등돌봄교실 운영교실 현황



자료: <표 III-1-2> 그림으로 구성

[그림 III-1-6] 초등돌봄교실 참여학생 현황

2016년 초등돌봄교실의 17개 시·도별 운영 현황은 다음 <표 III-1-3>과 같다. 오후돌봄교실은 방과후부터 17시까지 돌봄을 제공하고, 저녁돌봄교실은 17시부터 22시까지 돌봄을 제공한다(교육부 보도자료, 2017.1.11.). 오후돌봄교실은 전국 11,920교실에서 238,48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경기지역이 2,760교실을 54,171명이 이용하여 전국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았고, 서울이 1,666교실을 33,094명이 이용하여 그 다음을 차지했다. 저녁돌봄교실은 전국 1,847교실에서 12,488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서울지역이 393교실을 2,537명이 이용하여 전국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았고, 경기지역이 227교실을 2,065명이 이용하여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부산, 인천, 대전지역은 저녁돌봄이용자가 1천명이 넘어서고 있으며 오후돌봄 이용자 10명 중 1명이상이 저녁돌봄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도시 지역에서 특히 저녁돌봄 수요가 높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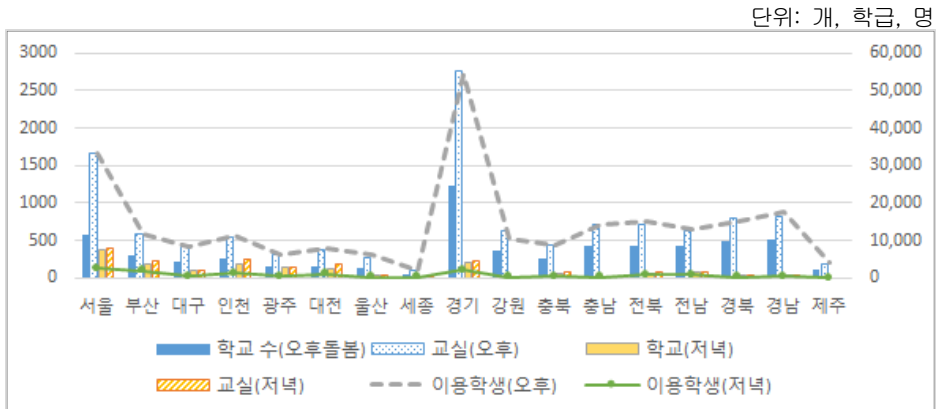
<표 III-1-3> 2016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단위: 개, 실, 명, (%)

시·도	오후돌봄			저녁돌봄		
	학교 수	교실 수	이용학생 수	학교 수	교실 수	이용학생 수
서울	571(9.5)	1,666(14.0)	33,094(13.9)	378(23.6)	393(21.3)	2,537(20.3)
부산	303(5.1)	585(4.9)	11,773(4.9)	180(11.3)	223(12.1)	1,788(14.3)
대구	218(3.6)	425(3.6)	8,159(3.4)	90(5.6)	90(4.9)	353(2.8)
인천	246(4.1)	538(4.5)	11,168(4.7)	172(10.8)	255(13.8)	1,297(10.4)
광주	150(2.5)	313(2.6)	6,061(2.5)	146(9.1)	149(8.1)	275(2.2)
대전	147(2.5)	366(3.1)	7,737(3.2)	117(7.3)	172(9.3)	1,078(8.6)
울산	119(2.0)	273(2.3)	5,976(2.5)	31(1.9)	32(1.7)	116(0.9)
세종	37(0.6)	98(0.8)	1,821(0.8)	10(0.6)	10(0.5)	111(0.9)
경기	1,238(20.6)	2,760(23.2)	54,171(22.7)	204(12.8)	227(12.3)	2,065(16.5)
강원	357(6.0)	617(5.2)	10,449(4.4)	11(0.7)	11(0.6)	178(1.4)
충북	260(4.3)	431(3.6)	8,835(3.7)	58(3.6)	71(3.8)	426(3.4)
충남	416(6.9)	706(5.9)	14,394(6.0)	14(0.9)	15(0.8)	150(1.2)
전북	416(6.9)	720(6.0)	15,192(6.4)	61(3.8)	67(3.6)	814(6.5)
전남	422(7.0)	621(5.2)	13,035(5.5)	71(4.4)	71(3.8)	770(6.2)
경북	487(8.1)	802(6.7)	14,952(6.3)	32(2.0)	35(1.9)	240(1.9)
경남	506(8.4)	818(6.9)	17,689(7.4)	25(1.6)	26(1.4)	290(2.3)
제주	105(1.8)	181(1.5)	3,974(1.7)	0(0.0)	0(0.0)	0(0.0)
계	5,998(100.0)	11,920(100.0)	238,480(100.0)	1,600(100.0)	1,847(100.0)	12,488(100.0)

주: 오후돌봄은 방과후~17시까지, 저녁돌봄은 17~22시까지 돌봄을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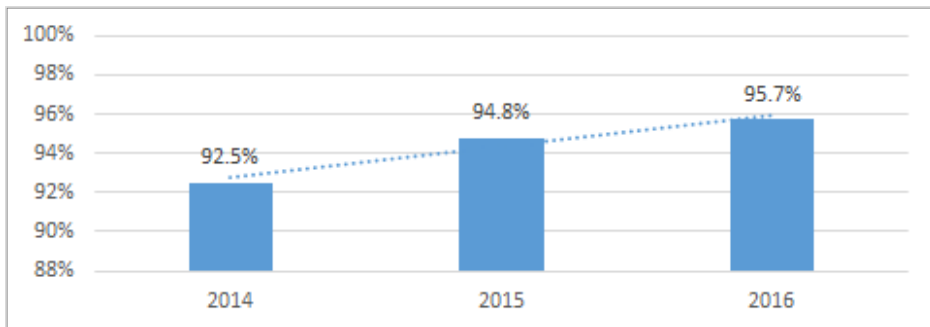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17. 01. 11). 2017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 별첨 1” 발췌 후 비올추가



자료: <표 III-1-3>를 그림으로 구성

[그림 III-1-7] 초등돌봄교실 지역별 현황

교육부가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초등돌봄교실 만족도는 2014년 92.5%에서 2016년 95.7%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에게 가장 호평 받는 교육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17. 1. 11).



주: 학부모 만족도 전수조사 결과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17. 1. 11). 2017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

[그림 III-1-8] 초등돌봄교실 학부모 만족도조사 결과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년 기준 전체 초등학생의 9.1%만이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고, 돌봄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돌봄교실의 지속적인 확충과 물리적·인적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나. 방과후학교

1) 정책내용

방과후학교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교육활동이다(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⁶⁾, 2017. 5. 15 인출). 방과후학교는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및 교육부 고시 제2013-7호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⁷⁾, 2017. 5. 15 인출).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이며, 저소득학생을 대상으로는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6).

방과후학교는 95년 5.31 교육개혁에서 방과후 교육활동 도입이 제안됨에 따라 도입되어 2006년에는 전국 초중고에 전면 도입되었고, 2007년부터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전국 17개가 운영되고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16. 5. 3:2). 방과후학교는 예체능 등을 통한 소질·적성·진로 계발, 교과외 심화·보충 등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흡수·대체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6:1). 또한 도시 저소득층과 농어촌 소재학교 학생에 대한 수강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6:1).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으며, 단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연중 운영 가능하다⁸⁾(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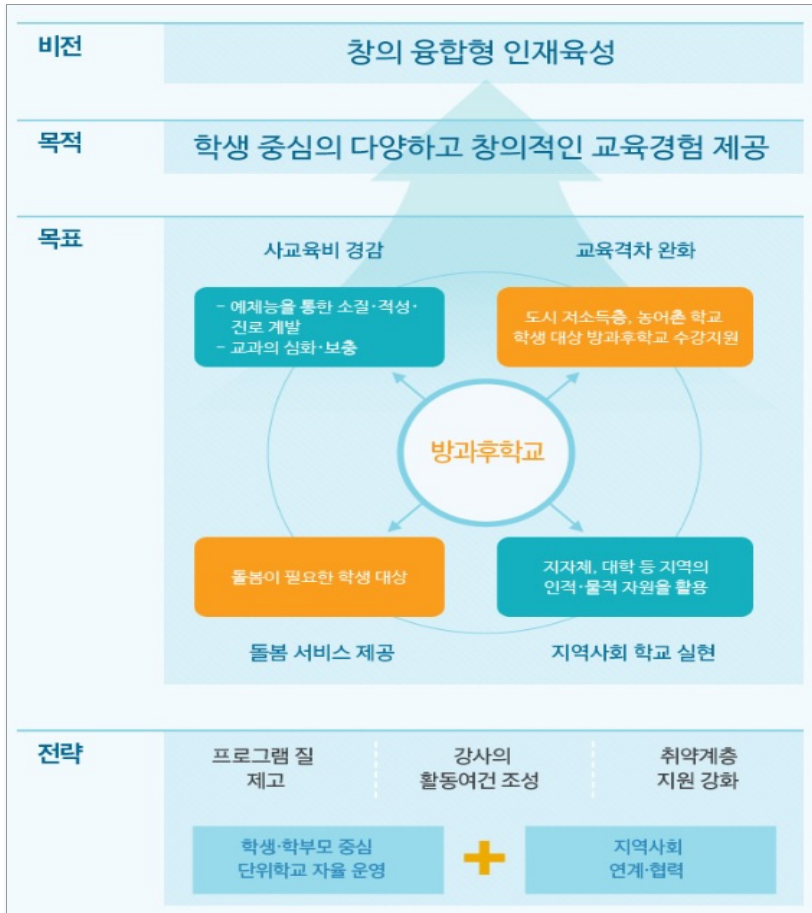
교육부는 2016년 5월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정규교육과정이 충분히 제공하기 힘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공교육을 보완하고,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4대 영역 9개 중점과제를 마련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16. 5. 3). 학생 수요에 맞는 질 높은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기 위해 사전 수요조사로 영역별·수준별·무학년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예술·체육 분야 수요증대에 대응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확대하며, 방과후학교지원

6)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2017. 5. 15 인출) <https://www.afterschool.go.kr/info/infomation.do>

7)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2017. 5. 15 인출) <https://www.afterschool.go.kr/info/infomation.do>

8) 동(同)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2018년 2월까지 한시적 적용

센터)를 통해 현장지원을 강화하여 새로운 프로그램 적극 발굴, 컨설팅 제공, 지역 봉사자 등 인력풀 구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교육부 보도자료, 2016. 5. 3). 또한 현장 교원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고, 방과후학교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와 역할 등에 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교육 보안을 위한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다(교육부 보도자료, 2016. 5. 3).



자료: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2017. 5. 15 인출) <https://www.afterschool.go.kr/info/information.do>

[그림 III-1-9] 방과후학교 비전 및 목표

9)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활용 가능한 자원과 단위학교를 연계하여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5. (17개 시·도교육청 공동개발) 2016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안). p.13)

2) 운영현황

방과후학교는 2016년 4월 30일 기준으로 전국 6,204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초등학교 중 99.8%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참여 초등학생 수는 전국 1,761천명으로, 전체 초등학생의 65.9%가 참여하고 있다(교육부 홈페이지, 2017. 3. 20 인출¹⁰⁾). 최근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초등학교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참여하는 초등학생의 수나 비율은 다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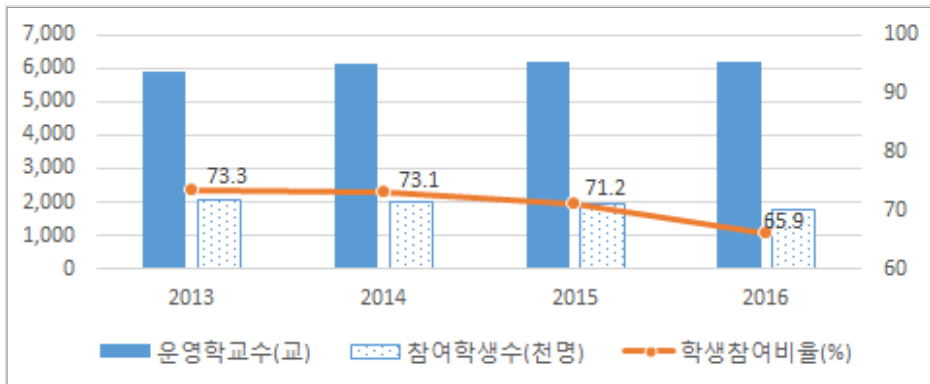
〈표 III-1-4〉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단위: 교, 천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운영 초등학교 수	5,906	6,148	6,179	6,204
운영 비율(%)	(100.0)	(99.9)	(99.9)	(99.8)
참여 초등학생 수	2,035	1,992	1,932	1,761
이용 비율(%)	(73.3)	(73.1)	(71.2)	(65.9)

주: 각 년도 4월 30일 기준

자료: 교육부 홈페이지. 각 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http://www.moe.go.kr/boardCnts/list.do?boardID=317&m=030202&s=moe>(2017. 3. 20 인출)



자료: <표 III-1-4>를 그림으로 구성

[그림 III-1-10]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다음 <표 III-1-5>와 같다. 교과프로그램은 약 5만 9천여개로 전체의 26.6%이며, 특기적성프로그램은 약 16만 3천여개로

10)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7&boardSeq=70367&d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202&opType=N>

73.4%로 나타나 교과보다는 비교과 특기적성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 교과 프로그램은 주로 영어 관련 프로그램(9.3%), 수학 관련 프로그램(7.0%), 과학 관련 프로그램(5.3%)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기적성프로그램은 주로 체육(16.1%), 음악(15.3%), 미술(10.4%), 컴퓨터(9.6%)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교육부 홈페이지, 2017. 3.20 인출).

〈표 III-1-5〉 2016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개(%)

교과프로그램								특기적성프로그램						총계
59,257 (26.6)								163,271 (73.4)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제2	기타		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	독서	기타	
관련	관련	관련	관련	관련	외국어	기타		관련	관련	관련	관련	논술	기타	
3,840	15,630	1,603	11,785	20,604	3,212	2,583		33,953	23,054	35,747	21,473	6,159	42,885	
(1.7)	(7.0)	(0.7)	(5.3)	(9.3)	(1.4)	(1.2)		(15.3)	(10.4)	(16.1)	(9.6)	(2.8)	(19.3)	
222,528 (100.0)														

자료: 교육부 홈페이지(2017. 3. 20 인출). 2016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7&boardSeq=7036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202&opType=N>

프로그램은 외부강사가 진행하는 경우가 85.4%로 매우 높고, 현직교원이 진행하는 경우는 14.6%이다. 교과프로그램은 현직교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27.3%, 특기적성프로그램은 현직교원이 10.5%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외부강사에 의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6〉 2016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 현황

단위: 명(%)

교과프로그램			특기적성프로그램			전체프로그램		
현직교원	외부강사	소계	현직교원	외부강사	소계	현직교원	외부강사	총계
8,096	21,527	29,623	9,387	80,440	89,827	17,483	101,967	119,450
(27.3)	(72.7)	(24.8)	(10.5)	(89.5)	(75.2)	(14.6)	(85.4)	(100.0)

주: 볼드체는 총계에 대한 해당소계의 비율임.

자료: 교육부 홈페이지(2017. 3. 20 인출). 2016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7&boardSeq=7036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202&opType=N>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에 대한 초등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다음 <표 III-1-7>과 같다. 2016년에는 학생 89.7점, 학부모 86.8점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부터 점진적으로 만족도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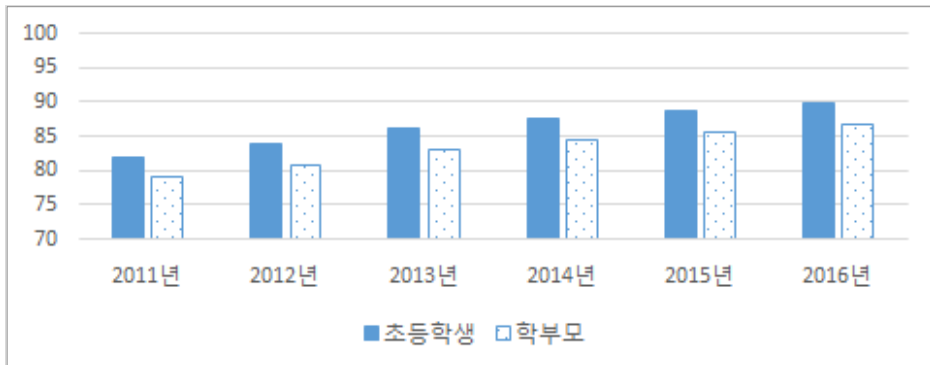
〈표 III-1-7〉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만족도

단위: 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초등학생	82.0	83.8	86.1	87.5	88.8	89.7
학부모	79.2	80.8	83.1	84.4	85.7	86.8

자료: 교육부 홈페이지(2017. 3. 20 인출). 2016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7&boardSeq=7036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202&opType=N>



자료: <표 III-1-7>을 그림으로 구성

〔그림 III-1-11〕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만족도

다. 지역아동센터

1) 정책내용

지역아동센터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빈곤가정의 아동을 돌보기 위한 공부방의 전통을 계승한 아동복지시설이다(유희정·홍승아·김지혜 외, 2014:148).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으로 제도권에 진입하였다(유희정 외, 2014:148).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17:3).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운영하며 지역사회 내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 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

(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를 제공한다(보건복지부, 2017:3).

지자체 및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 한부모·조손, 맞벌이·이혼가정의 아동·다문화 가정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적극 발굴·보호하여 아동방임을 예방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7:19). 신고정원의 90% 이상을 우선보호아동으로 유지해야 하며, 일반아동은 10% 이내로 이용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7:19). 우선보호아동은 중위소득 100%이하의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동이다(보건복지부, 2017:19). 우선보호아동은 소득, 돌봄 필요성, 연령기준(주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 중심)을 모두 갖추어야 이용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7:22). 또한 일반아동은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돌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군구청장의 승인으로 이용여부가 결정되는데,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7:23).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어린이집, 유치원 등 중복이용이 불가하다(보건복지부, 2017:23).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은 주5일,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하여야 하고, 학기 중 필수 운영시간은 14시~19시이며, 방학 중 필수 운영시간은 12시~17시이다(보건복지부, 2017:37).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안전교육을 아동의 연령에 맞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청장에게 매년 3월 말에 보고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17:33-34). 시설장은 상시근무 가능자여야 하며, 신규기관의 경우 신규시설장은 95시간을, 기존기관 신규시설장은 25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생활복지사는 총 25시간의 종사자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7:48).

기본운영비 예산지원은 지역아동센터의 정원과 법정종사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17:71). 2016년 기준으로 10~19인 이하 규모는 법정종사자 수가 2명 충족되어야 하며, 도시지역은 4,188천원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17:71). 20~29인 이하 규모는 법정종사자 수 2명이 충족되고, 도시지역은 4,409천원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17:71). 읍면지역은 같은 기준에서 도시지역보다 152천원 더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17:71).

〈표 III-1-8〉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예산지원(2017년)

신고정원 아동규모		법정종사자	2016년 지원 기준액
10~19인 이하 규모	도시	2명	4,188천원
	읍면	2명	4,340천원
20~29인 이하 규모	도시	2명	4,409천원
	읍면		4,561천원
30인 이상 규모		3명	5,871천원

주: 1) 기존 10인 미만 시설은 전년 운영비 기준의 물가인상률 3%범위 내(2,552천원) 지자체에서 지원 결정

2) 기준액으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비 지원은 별도 지원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2017). 2017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 p.71.

2) 운영현황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이용현황은 가장 최신자료인 2016년 연말기준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자료¹¹⁾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지역아동센터(구. 공부방)는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의해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 되었으며 당시 총 895개소에서 23,347명의 아동이 지원을 받았다(보건복지부, 2017:4). 이후 꾸준히 시설 수가 양적 증가하고 이용아동도 확대되어 2016년에는 4,107개소에서 106,668명이 지원을 받았다(보건복지부, 2016:5,36).

〈표 III-1-9〉 지역아동센터 연도별 현황(2004~2015년)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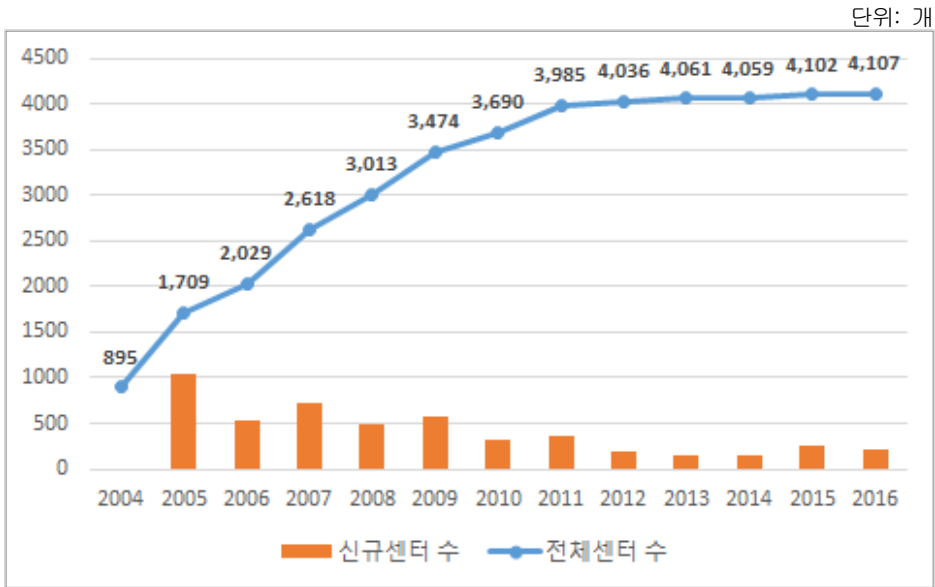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센터수	895	1,709	2,029	2,618	3,013	3,474	3,690	3,985	4,036	4,061	4,059	4,102	4,107
신규	-	1,051	523	729	483	570	323	373	193	148	158	256	207

주: 신규신고센터는 연도별로 신규로 신고 개소한 센터임.

자료: 보건복지부(2016).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p.5.

지역아동센터의 지난 10년간의 현황은 다음 [그림 III-1-12]과 같다. 2004년에만 해도 895개였던 지역아동센터가 2011년까지 매해 500~1000개의 신규센터가 추가되면서 확대되어왔고 4천여개에 도달한 후 4,100여개 선을 유지하고 있다.

11) 보건복지부(2016).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2016년 말 기준)



자료: <표 III-1-9>를 그림으로 나타냄.

[그림 III-1-12] 지역아동센터 연도별 현황

지역아동센터의 시도별 현황은 다음 <표 III-1-10>과 같다. 경기 763개(18.6%), 서울 414개(10.1%)로 수도권 지역에 전체의 4분의 1 이상이 분포해 있으며, 전남 384개(9.3%), 광주 301개(7.3%), 전북 286개(7.0%), 경북 258개(6.3%), 경남 259개(6.3%)로 전라도와 경상도지역에도 다수 분포해 있다.

<표 III-1-10> 지역아동센터 시도별 현황(2016년)

단위: 개소(%)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4,107	414	204	199	183	301	145	55	763
(100.0)	(10.1)	(5.0)	(4.8)	(4.5)	(7.3)	(3.5)	(1.3)	(18.6)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168	184	226	286	384	258	259	66	12
(4.1)	(4.5)	(5.5)	(7.0)	(9.3)	(6.3)	(6.3)	(1.6)	(0.3)

자료: 보건복지부(2016).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p.6.

지역아동센터는 미취학부터 초등, 중·고등학생,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전체 이용 현황 중에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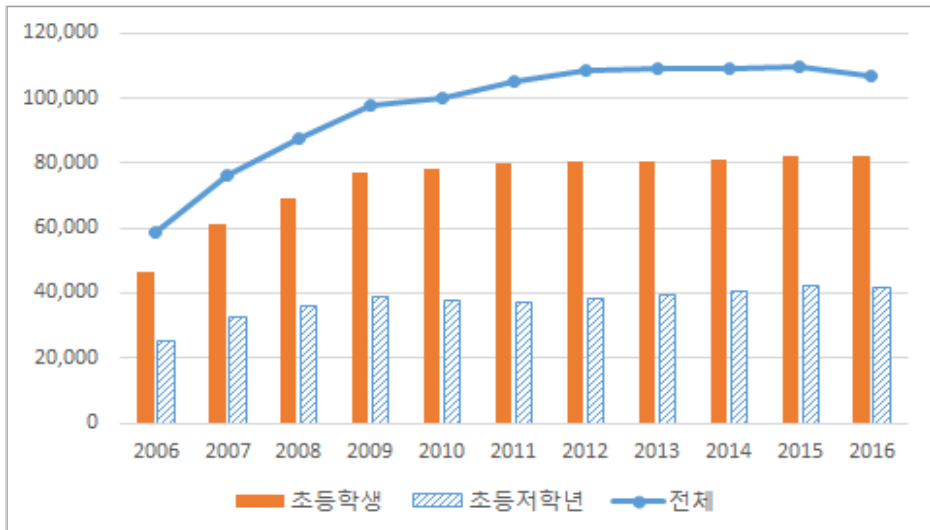
음 <표 III-1-11>과 같다. 지역아동센터 전체 이용아동이 2004년 2만 3천여명에서 2016년 10만 7천여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동안, 매년 전체의 약 73~80%정도를 초등학생이 이용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viii). 2016년을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8만 2천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초등 저학년은 4만 2천여명이 이용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viii). 초등 고학년은 2011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초등 저학년은 2006년 이래로 꾸준히 이용 아동 수가 증가하고 있다.

<표 III-1-11>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이용 현황(2004~2016년)

단위: 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23,347	43,749	58,851	76,229	87,291	97,926	100,233	104,982	108,357	109,066	108,936	109,661	106,668
초등학생	18,348 (78.6)	34,617 (79.1)	46,575 (79.1)	61,044 (80.1)	69,135 (79.2)	77,085 (78.7)	78,098 (77.9)	79,731 (75.9)	80,426 (74.2)	80,318 (73.6)	81,087 (74.4)	82,380 (75.1)	82,140 (77.0)
저학년	-	-	25,149	32,867	35,972	39,053	37,865	37,407	38,030	39,293	40,425	42,267	41,750
1학년	-	-	-	-	-	-	-	11,056	10,614	11,484	12,263	11,877	10,662
2학년	-	-	-	-	-	-	-	12,821	13,040	12,977	13,767	15,019	14,494
3학년	-	-	-	-	-	-	-	13,530	14,376	14,832	14,395	15,371	16,594
고학년	-	-	21,426	28,177	33,163	38,032	40,233	42,324	42,396	41,025	40,662	40,113	40,390

주: 전체는 미취학, 초등, 중·고등, 탈학교, 기타 포함임.
 자료: 보건복지부(2016).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p.viii.



자료: <표 III-1-11>을 그림으로 구성

[그림 III-1-13]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이용 현황

<표 III-1-12>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6년까지 센터 당 평균 이용아동 수는 26~27명으로 비슷한 수가 유지되고 있으며, 전체 이용아동 수는 2010년 10만여 명에서 2016년 10만 6천여명으로 6년 사이 약 6천명 가량 증가했으나, 경제상황별 이용현황은 다소 변화가 있다.

<표 III-1-12> 지역아동센터 경제상황별 이용아동 현황(2010~2016년)

단위: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아동 수	센터당 평균	아동 수	센터당 평균	아동 수	센터당 평균	아동 수	센터당 평균	아동 수	센터당 평균	아동 수	센터당 평균	중위소득 기준 ³⁾	아동 수	센터당 평균
전체	100,233 (100.0)	27.2	104,982 (100.0)	26.3	108,357 (100.0)	26.8	109,066 (100.0)	26.9	108,936 (100.0)	26.8	109,661 (100.0)	26.7	기준 ³⁾	106,668 (100.0)	26.0
수급권	26,657 (26.6)	7.2	26,237 (25.0)	6.6	24,684 (22.8)	6.7	22,058 (20.2)	5.4	20,043 (18.4)	4.9	18,601 (17.0)	4.5	50%이하 (교육급여대상)	27,030 (25.3)	6.6
차상위 ¹⁾	37,801 (37.7)	10.2	40,147 (38.2)	10.1	34,627 (31.9)	9.6	29,824 (27.4)	7.3	25,566 (23.5)	6.3	22,558 (20.6)	5.5	50%이상 ~85%이하	40,741 (38.2)	9.9
기타승인 ²⁾	21,942 (21.9)	6.0	24,004 (22.9)	6.0	35,301 (32.6)	10.7	42,887 (39.3)	10.6	48,327 (44.3)	11.9	52,735 (48.0)	12.9	85%이상 ~100%이하	30,812 (28.9)	7.5
일반아동	13,833 (13.8)	3.8	14,594 (13.9)	3.7	13,745 (12.7)	5.4	14,297 (13.1)	3.5	15,000 (13.8)	3.7	15,767 (14.4)	3.8	100%초과	8,085 (7.6)	2.0

주: 미취학, 초등, 중·고등, 탈학교, 기타 포함된 수치임.

- 1) 차상위아동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가구의 아동을 말함.
 - 2) 기타승인아동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아동과 차상위 인정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 아동 중 기타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으로, 전국 평균소득가구 70% 이하(가구내 건보료 확인) 가구 중 시·군·구청장 승인아동을 말함.
 - 3) 2016년 보고서에는 경제상황별 분석기준이 바뀌어 중위소득 기준으로 분류됨.
- 자료: 1) 보건복지부(2015).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 p.xii.
2) 보건복지부(2016).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p.44.

2015년까지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차상위, 기타승인 아동으로 분류하여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데 과거 2010~2012년에는 과반수가 수급권, 차상위가정 아동이 이용했으나 점차 기타승인아동의 이용이 급격하게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에도 기타승인아동이 48.0%로 가장 많고, 차상위계층 가정 아동이 20.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가정 아동이 17.0%이며, 일반아동도 14.4%가 이용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xii). 이는 수급권이나 차상위계층 등의 소득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돌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아동들이 상당수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돌봄과 보호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016년에는 경제상황별 분석기준이 중위소득으로 바뀌어 중위소득 50%이하인 교육급여대상 아동의 이용

이 전체의 25.3%, 50%이상~85%이하 38.2%, 85%이상~100%이하 28.9%로 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아동이 92.4%로 나타났다. 이전년도와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으나 통상 중위소득 100%이하를 저소득층 정책수혜대상으로 보는 것을 비추어볼 때,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이용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라. 아이돌봄 서비스

1) 정책내용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서비스이다(여성가족부, 2017:11). 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시간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된다(여성가족부, 2017:11). 이중 초등학교 돌봄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가 해당된다.

〈표 III-1-13〉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 종합형) 현황(2017)

단위: 명(%)

구분	시간제				종합형(시간제+가사)				
서비스 대상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지원기준 (4인가구 중위소득)	전국가구 평균소득								
	가형	나형	다형	리형	가형	나형	다형	리형	
	60% 이하 (2,680천원)	85% 이하 (3,797천원)	120% 이하 (5,361천원)	120% 초과	60% 이하 (2,680천원)	85% 이하 (3,797천원)	120% 이하 (5,361천원)	120% 초과	
이용요금	시간당 6,500원				시간당 8,450원				
A형	정부지원	4,875원	2,925원	1,625원	-	4,875원	2,925원	1,625원	-
	본인부담	1,625원	3,575원	4,875원	6,500원	3,575원	5,525원	6,825원	8,450원
B형	정부지원	4,225원	-	-	-	4,225원	-	-	-
	본인부담	2,275원	6,500원	6,500원	6,500원	4,225원	8,450원	8,450원	8,450원
지원시간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연간 480시간 이내								

주: A형은 2010.1.1.이후 출생아동, B형은 2009.12.31.이전 출생 아동이 해당함.

자료: 여성가족부(2017). 2017년도 아이돌봄 지원 사업 안내. pp.11-13.

시간제 돌봄은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시간단위 돌봄을 제공하고 1회 2시간 이상 사용해야 하며, 정부지원시간은 연간 480시간 이내이다(여성가족부, 2017:11). 시간제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한 종합형도 이용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7:11). 이용요금은 출생년도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2017년 기준으로 0~5세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2010.1.1. 이후 출생아동)는 A형으로 정부지원금은 소득기준 (가)~(다)형에 차등 지급된다. 초등학교 2학년이상(2009.12.31. 이전 출생아동)은 B형으로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소득기준 (가)형의 경우에만 일부금액을 지원받고 (나)~(라)형은 본인부담 100%로 이용할 수 있다.

2) 운영현황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아이돌봄서비스 전체 운영 현황은 다음 <표 III-1-14>, [그림 III-1-1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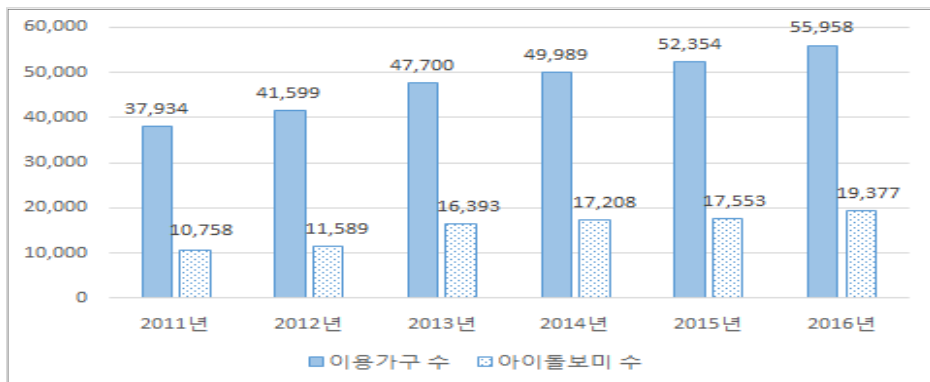
<표 III-1-14>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현황

단위: 개소, 가구, 명

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제공기관 수	215	215	216	213	214	221
이용가구 수	37,934	41,599	47,700	49,989	52,354	55,958
아이돌보미 수	10,758	11,589	16,393	17,208	17,553	19,377

자료: 1) 여성가족부(2016). 내부자료.

2) 아이돌봄서비스 주요통계(검색일: 2017. 5. 23). <https://www.idolbom.go.kr/intro/index2.go>



자료: <표 IV-1-14>를 그림으로 구성함.

[그림 III-1-14]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및 아이돌보미 현황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은 2016년 전국 221개소로 이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76개로 가장 많고, 여성단체가 9개소, 지자체직영 9개소, 사회복지관 5개소, 지역자활센터 5개소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¹²⁾.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이용가구는 매년 증가추세이며, 2016년에는 약 5만 6천 가구가 이용하였다. 아이돌보미 또한 매년 증가하여 2016년에는 약 1만 9천명이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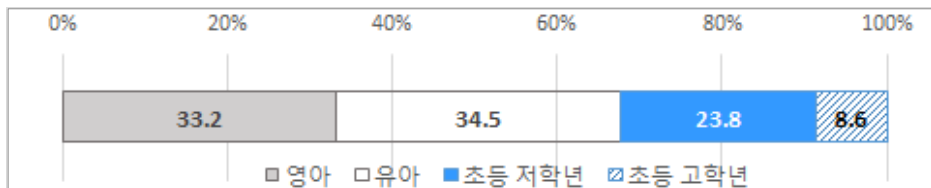
아이돌봄서비스 중에서 시간제 서비스의 이용아동 현황은 2015년 기준으로 약 7만8천명이며, 0~5세 영유아가 53,207명, 만6~8세 아동이 18,676명, 만9~12세 아동이 6,742명이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이용이 주로 많지만 초등학교 저학년도 시간제 서비스의 23.8%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III-1-15〉 시간제 아이돌보서비스 연령별 이용 현황(2015년)

단위: 명(%)

12개월 이하	영유아					소계	초등학생			합계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6-8세	만9-12세	소계	
5,174 (6.6)	10,556 (13.4)	10,342 (13.2)	9,609 (12.2)	8,884 (11.3)	8,642 (11.0)	53,207 (67.7)	18,676 (23.8)	6,742 (8.6)	25,418 (32.3)	78,625 (100.0)

자료: 여성가족부(2016). 내부자료.



자료: <표 III-1-15>를 그림으로 구성

〔그림 III-1-15〕 시간제 아이돌보서비스 이용아동 현황(2015년)

12) 아이돌봄서비스 주요통계(검색일: 2017. 5. 23). <https://www.idolbom.go.kr/intro/index2.go>

마. 지자체 돌봄 정책 사례: 서울 도봉구 마을방과후활동¹³⁾

우리나라 일반자치행정기관이 교육 사업을 하는 것은 다소 제한적인 형태의 보조금 지원 사업 정도가 일반적이다. 그만큼 관례상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은 다소 분리된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상생과 협력의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선언’을 발표하고,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서울지역에서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협력이 단순 협력 이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전정훈 외, 2016). 서울 도봉구에서는 그 일환으로 “도봉구 방과후 마을학교”를 추진하고 있는데, 본 절에서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방과후돌봄 정책 실행의 사례’로서 도봉구의 마을방과후학교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방과후학교 정책은 교육부 소관 하에 단위학교가 운영주체가 되어 비정규 교육과정으로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이루어졌다. ‘도봉형 마을 방과후활동’은 방과후에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중 사적인 영역을 제외한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교육활동, 놀이 여가문화생활, 자기주도적인 동아리 활동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설정하여, 도봉구가 추진하는 방과후학교 사업이다(도봉구청, 2017). 이는 방과후활동을 포괄적 개념으로 설정한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방과후학교 정책이다.

현행 방과후학교 정책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3-7호에 근거하는데, 학교장이 학교 여건과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실제 운영은 단위학교가 자체 운영하는 경우와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로 대별된다(도봉구청, 2017). 교육부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교육부 보도자료, 2016. 5. 3.)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기존 방과후학교 정책은 교원의 방과후학교 업무부담 증가, 수요에 맞는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 부족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단위학교가 자체 운영하는 경우, 학교장과 담당교사가 과도한 부담과 책임을 가지게 되며,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가 어렵고, 강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연수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으며, 교육공간 확보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도봉구청, 2017). 업체가 위탁하는 경우는 영리추구로 인한 정책취지와 목적이 변

13) 본 절은 “도봉구청(2017). 도봉형 마을방과후활동 운영계획(내부자료)”, “전정훈 외(2016). 도봉구 아동·청소년 방과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도봉구청,” “본 연구진의 도봉구청 교육정책특별보좌관 면담(2017. 8. 16)”을 바탕으로 정리함.

질될 소지가 있으며, 강사의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잦은 이직으로 인한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도봉구청, 2017).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분리되어 있어 방과후돌봄이 통합적으로 지원되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으며 개별 가구가 개인적 자원에 의지하여 대응하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도봉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고자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협력모델로서 마을방과후활동을 추진하게 되었다(도봉구청 교육정책특별보좌관 면담, 2017. 8. 16). 또한 도봉구는 방과후학교는 방과후 학생들의 일과를 고려하여 현행 교과위주의 수강 운영에 그치지 않고, 돌봄과 여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역사회 단위로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도봉구청 교육정책특별보좌관 면담, 2017. 8. 16). 더불어 업체의 단순 위탁 형태가 아니라 지자체가 공공성을 갖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정책대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도봉구청 교육정책특별보좌관 면담, 2017. 8. 16).

돌봄과 방과후는 하나의 영역이라 방과후 활동이라는 개념 속에 포함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돌봄은 어떻게 보면 주체가 있고 대상자가 있는 거잖아요.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 거고 돌봄의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런 것이 방과 후 활동의 개념 속에서 방과 후 활동이라고 본다면 돌봄이라고 했을 때는 레저라고 해서 여가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쉽진 않은데, 물론 그 안에서도 소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방과 후 활동이라는 개념이 그 안에 돌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레저 여가도 들어갈 수도 있고, 자기 주도적 활동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그 속에서 하는데 일원화 하면 좋잖아요. 지금처럼 돌봄교실과 방과후를 맡은 사람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통합된 개념 속에서 새롭게 해 보고 싶은 거고,(도봉구청 교육특별보좌관 면담, 2017. 8. 16)

2016년 도봉구 아동·청소년 방과후활동 연구(전정훈 외, 2016)에서 초·중학교 방과후담당 교사 28명(초등 17명)의 설문결과, 마을과 학교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으로 진로직업교육,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를 위한 마을의 준비 선행사항으로는 학생들의 이동 및 안전, 마을교사 전문성 확보가 높게 나타났다. 동일 연구(전정훈 외, 2016)에서 초·중학교 학부모 132명(초등 132명)의 설문에서도 마을과 학교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으로 진로직업교육, 방과후활동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를 위해 마을의 준비 선행사항으로는 자녀들의 이동 및 안전, 안정적 교육공간이 높게 나타났다.

도봉구는 2016년 9월 완료된 도봉구 아동·청소년 방과후활동 연구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도봉형 마을방과후활동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6년 11월 7일에는 서울시 교육청의 '마을과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9개 자치구청과의

MOU를 체결한 후, 2017년에 도봉 마을방과후활동 운영센터를 설립하고, 도봉형 마을방과후활동 운영에 참여할 5개 학교와 업무협약을 하였다(도봉구청, 2017).

도봉구가 지자체로서 방과후학교를 직접 운영을 하게 될 때 제약사항은 소득세법상 교육비 공제 가능여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자유수강권 대상자 파악의 어려움, 강사료 지급권한 없음에 따른 강사계약의 어려움, 해당 사업에 대한 학교와의 공감대 형성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도봉구청, 2017). 아직까지 법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는 위탁 형식을 그대로 준용하여 학교와 도봉구청이 수의계약에 의한 공공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¹⁴⁾.

이상의 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준비 작업을 거쳐 아래와 같이 학교와 구청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업무를 분담할 것인지 업무 추진 체계가 정리되었다(도봉구청, 2017). 주로 학교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수강료 징수 업무와 자유수강권 대상자 파악을 전담하고, 교과 방과후학교 운영 및 교육장소를 제공하는 것까지 담당한다(도봉구청, 2017). 구청은 그 외의 부분을 담당하는데 비교과 방과후학교를 전담하고, 프로그램 개설부터 강사선발, 강사료 지급, 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전담한다(도봉구청, 2017).

〈표 III-1-16〉 도봉형 마을방과후활동 업무 추진 체계

학교 업무	도봉구청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방과후 학교 전담운영 · 수강료 징수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도봉구청에 일괄 강사료 지급 - 수강료 환불 - 재료비, 교재 지급 업무 · 수강 모집 안내서 및 신청서 접수 · 자유수강권 대상자 파악 및 관리 · 교육장소 제공 · 도봉구와 업무협의 · 나이스 방과후학교 시스템 업무(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과 방과후학교 전담 운영 · 프로그램 개설 및 질 관리 · 강사선발 및 관리 · 학생안전관리 · 수강모집 안내서 제작(학교에 제공) · 월별 강사료 지급 · 마을방과후활동 보험 가입 · 학교와 업무 협의 · 학부모 만족도 조사

향후 교육비 공제, 자유수강권(도봉구로 직접 지급) 문제 해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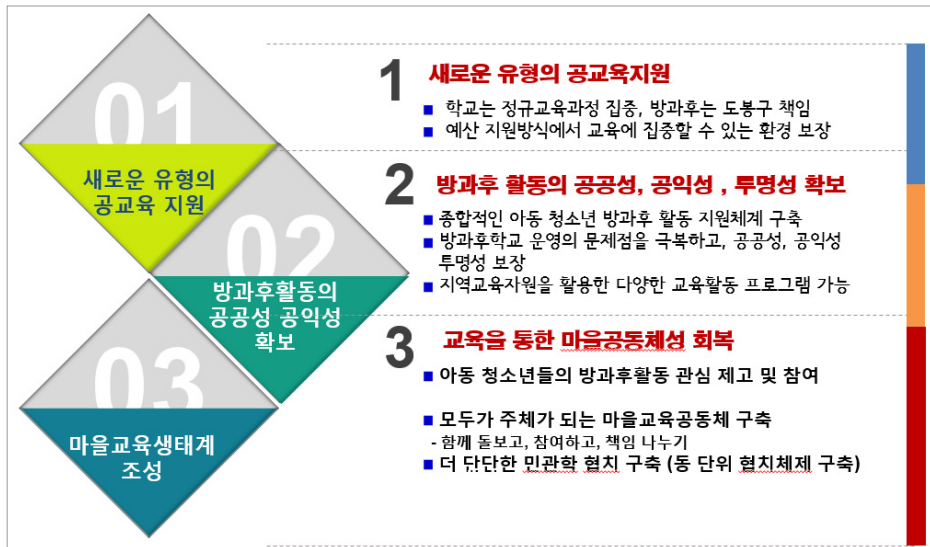
도봉구에서 직접 수납업무 진행

자료: 도봉구청(2017). 도봉형 마을방과후활동 운영계획(내부자료). p.23.

도봉형 마을방과후활동은 현재 5개 학교(이중 초등학교는 4개)가 참여하고 있

14)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호, 서울특별시 공립학교 회계 규칙 제32조의 2(지출원인행위)

다(도봉구청 교육특별보좌관 면담, 2017. 8. 16). 4개 초등학교는 각 학교 프로그램을 상호 게시하여 학생이 원할 경우 타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이 가능하다(도봉구청 교육특별보좌관 면담, 2017. 8. 16). 아직 시행된 지 한 학기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주목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49번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¹⁵⁾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이 추진될 예정이므로 부처 간, 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을 통한 온종일 돌봄 체계 모델로서 전국 확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도봉구청(2017). 도봉형 마을방과후활동 운영계획(내부자료). p.25

[그림 III-1-16] 도봉형 마을방과후활동 기대효과

저희가 한 번 지자체가 책임 있는 모델을 한 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리고 수강 개념도 있고 돌봄 개념도 섞여 있는데 실제 초등학생에게 포커싱이 더 맞춰져 있죠. 북유럽 모델을 따라가고 싶은 생각도 강하게 있어요. 그러려면 건물도 좋은 건물이 필요하고, 환경이 수반되고. 그리고 이것은 지자체가 학교(정책)를 왜 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왜 하나는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것에서 초기단계다 보니까 마을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구청 공간에 생기고 (중략) 만약 이게 정말 잘 발전돼서 대한민국에서 확산 된다고 하면(도봉구청 교육특별보좌관 면담, 2017. 8. 16)

15)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p.82.

유럽에 가보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는 레저타임센터. 뭐냐면 돌봄교실의 형태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돌봄교실은 비교가 안 되죠. 정말 좋은 시설에서 체계를 갖추고 아이들을 방과후에 부모들이 데려 가기 전까지 체계적으로 돌보겠다. 그리고 그 돌봄은 일반적 돌봄이 아니라 학생들 입장에서 여가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돌볼 수 있는 개념에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돌봄교실이 생기긴 했지만 인프라 자체도 약하고 현재 교실 하나에 아이들 20명 정도 수용하다 보니까 시설도 열악하고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한 거죠. (도봉구청 교육특별보좌관 면담, 2017. 8. 16)

덴마크 왕립도서관 바로 옆에 학교가 있더라구요. 야외 공간 속에서 거기도 레저센터 하나의 스포츠 센터로 그냥 바깥 공간인데 울타리 쳐 놓고 농구장이 있고, 놀이기구 있고 뭐 있고 하면서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이 30명이 안 되는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더라구요. 5시 되니까 부모들이 데리러 오더라구요. 우리 방과 후 돌봄 같은데서도 레저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학교에 건물도 있고 바깥에 스포츠 체육시설 같은 게 다 갖춰져 있어요. 교육법에도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특히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체계적으로 돌봄과 육아가 필요하고 집중되는 시기기 때문에 이미 30년 전부터 세팅이 돼서 그게 잘 되고 있어요. 저희는 그걸 보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할 수는 없지만 (중략) (도봉구청 교육특별보좌관 면담, 2017. 8. 16)

향후 대한민국의 방과 후 활동의 새로운 방향과 공공성이 필요한 거죠. 공익성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저기 위에 있는 것처럼 학교가 이거(정규교육과정)에도 집중 못 했어요. 핑계는 많죠. 이것마저도 집중 못했어요. 대한민국에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정규교육과정에 집중해서 수업연구, 생활 교육, 그래서 학교가 학교다워야 하고 학교 건물도 바뀌어야 하고 우리나라는 바뀔 게 정말 많아요. 교육적으로. 그런 면에서 우선 우리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도봉구가 방과후와 돌봄을 앞으로 맡으면서 견인하겠다. 혹은 우리가 역할을 하면서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고 앞으로 종합적인 방과후활동 지원 체계가 필요한 거죠. 단순히 이 프로그램을 맡아서 업무 위탁해서 수의계약해서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종합적으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지역 지자체 정부가 책임 있게 지원하고 해 보겠다 그런 거죠. (도봉구청 교육특별보좌관 면담, 2017. 8. 16)

도봉구는 현재는 방과후학교만을 대상으로 시도하고 있지만, 향후 돌봄교실까지 통합하여 공공성을 가진 지역단위의 통합적 방과후돌봄 및 여가가 가능한 방향으로 확대·발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도봉구청 교육특별보좌관 면담, 2017. 8. 16). 이를 위해 스웨덴 스톡홀름의 레저타임센터 등의 북유럽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교과와 여가 및 돌봄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희망하고 있다(도봉구청 교육특별보좌관 면담, 2017. 8. 16). 금년도에는 도봉구 내 5개 학교만이 참여하고 있지만, 차후에 보다 많은 학교의 참여가 독려되고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공공형 지

역사회 온종일 돌봄체계가 구축되고 본격 시행된다면, 지역사회 차원의 종합적인 방과후돌봄 정책이 실행되는 좋은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 9월 현재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한 국정과제 실행을 위한 기초 작업을 위해 교육부와 지자체¹⁶⁾가 협력하여 ‘지역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부-지자체 합동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2017년 9월 19일 교육부-지자체 사전 기획회의를 시작으로, 제1차 실무자연석회의(9. 22)를 통해 실무진을 구성하고 의제설정을 하였고, 제2차 실무자연석회의(9. 27)에서 지역교육 혁신을 위한 사례를 공유하였다. 지역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부-지자체 합동회의(9. 30)에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 서울지역 4개 지역구 및 경기지역 2개 지자체가 참석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온종일 돌봄(배움·돌봄·안전)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현재까지의 지역별 돌봄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중앙-지방 간 교육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부처 협력 및 일반행정·교육행정 협력, 중앙-지방 간 협력이 요구되므로 다자간 협의 및 합의 도출을 통해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정부는 합동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들의 과거 10여년 가량의 마을 방과후돌봄(교육)에 대한 실행경험을 토대로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 부모교육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학부모와 아동이 겪는 변화는 상당히 크다. 본격적인 공교육기관에 들어감으로써 아동은 보다 교과 학습중심의 교육을 경험하고, 개인의 특성보다는 학교 중심의 일과에 적응해야 한다. 학부모 또한 자녀의 적응을 위해 지원해야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 자신의 역할 변화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초등학교 전이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부모교육 기회 제공

생애주기별 부모교육과 같이 전 생애 관점의 포괄적인 부모교육은 여성가족부

16) 교육부, 서울 성북구, 서울 도봉구, 은평구, 금천구, 경기 오산시, 화성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본 단락은 “금천구청(2017. 9. 30). 지역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부-지자체 합동회의 회의자료(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서술함.

가 2016년 3월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6. 3. 29). 부모교육의 실시주체, 대상, 프로그램 등 운영현황이 매우 다양하고 실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체계적인 정책내용으로 살피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면서 부모에게 초래되는 역할 변화에 대해 부모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부모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부모교육의 필요성, 중요성과 이를 공적인 기반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예비 학부모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책내용 (예비학부모 교육을 중심으로)

예비 학부모 교육은 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지역교육청, 지역 학부모센터 등에서 제공되고 있다. 교육부는 예비 초등학교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모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4년에 “**예비 초등학교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였는데, 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 자녀의 특성 이해, 습관 기르기, 학습 방법과 같이 자녀를 처음 초등학교에 보내는 예비 학부모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2). 또한 “**초등학교(1~3학년) 학부모를 위한 자녀교육**”을 제작·배포하였다(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전국학부모지원센터·경기도교육청, 2014). 부모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의 특성에 맞게 양육하고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방법과 인성지도, 생활지도, 학습지도의 방법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전국학부모지원센터·경기도교육청, 2014).

학부모On누리에서는 다양한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전이를 지원하는 내용으로는 ‘우리아이 초등학교 보내기’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학부모On누리, 2017.5.22. 인출17). 2017년 10차시(10시간)에 걸쳐 300명이 동시 수강할 수 있으며, 1차시에는 ‘궁금해요~초등학교!’, 2차시에는 ‘등·하굣길 엄마, 아빠 안심하세요’와 같이 예비학부모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외에 인성교육, 사회성, 창의력, 자기주도학습 등 초등학교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학부모On누리, 2017.5.22. 인출18).

17) 학부모On누리. <http://www.parents.go.kr/NEL-2010-detail-view.do> (검색일: 2017. 5. 22)

18) 학부모On누리. <http://www.parents.go.kr/NEL-2010-detail-view.do> (검색일: 2017. 5. 22)

학부모 온라인 센터

수강신청 >

질의응답

학습후기

상담신청 MORE >

1899 - 0025
학부모 자녀교육 상담전화

센터소개 MORE >
CENTER INFO

학부모와 자녀 교육관련 최신 정보 및 정책

☰ > 학부모 온라인 센터 > 수강신청

수강신청

● **우리아이 초등학교 보내기(17-5기)**

● I. 과정개요

자료: 학부모On누리. <http://www.parents.go.kr/NEL-2010-detail-view.do> (검색일: 2017. 5. 22)

[그림 III-2-1] 예비 초등학생 학부모 온라인교육(학부모On누리)

2) 운영현황

부모교육은 다양한 제공기관이 있는데, 여성가족부(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복지부(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부(학부모지원센터)와 같이 부처별로 부모교육 실행 기관이 다양하다(관계부처 합동, 2016. 3. 29). 2016년 3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자료에 의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 151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 88개소, 학부모지원센터 93개소를 통해서 부모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전 생애의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는 영유아기 자녀의 부모를, 교육부(교육청)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6. 3. 29). <표 III-2-1>와 같이 여성가족부는 전생애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는 영유아기 부모, 교육부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부처별로 부모교육의 주요대상이 다르다.

〈표 III-2-1〉 부처별 부모교육 현황(2016년 3월 기준)

구 분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교육청)
교육 대상	모든 부모 (예비부모 포함)	영유아기 자녀 부모	학부모
전달 체계	건강가정지원센터 (151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 (88개소)	학부모지원센터 (93개)
교육 내용	자녀의 연령단계별 부모 역할 및 부모와 자녀 간 관계 지원 등	영유아기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방법 등	유아기·학령기 자녀의 학습·진로 지도 및 부모 역할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6. 3. 29).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p.2.

부모교육 이용 현황은 운영주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합산자료는 명확하지 않으나, 관계부처 합동(2016. 3. 29)에 따르면 2015년 건강가정지원센터 부모교육 참여인원은 약 18만명, 학부모지원센터의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은 약 58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관계부처 합동, 2016. 3. 29:2). 이 외에도 민간의 대학, 종교기관, 시민단체 등에서도 부모교육을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6. 3. 29:2).

앞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초등학교 전이 준비를 위한 부모교육'은 주로 학부모지원센터, 지역교육지원청,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각 기관별 프로그램이 상이하며, 상호연계가 부족하며,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대상의 교육이 많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부모들이 도움을 얻기는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나. 학부모지원센터

1) 정책내용

교육부는 학부모를 지원하는 오프라인 플랫폼으로써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국센터, 지역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지정하였고, 2011년 국가 차원의 학부모지원 정책을 수행하는 또 하나의 허브기구로서 '전국학부모지원센터'가 출범하였다(학부모On누리, 2017.5.22. 인출¹⁹⁾). 학부모지원센터는 입시중심이 아닌 학생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정책 정보를 학부모

19) 학부모On누리 <http://www.parents.go.kr/EgovPageLink.do> (2017. 5. 22 인출)

에게 전달하고, 학부모가 학교교육의 핵심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학부모On누리, 2017.5.22. 인출20).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2012년에는 웹진을 창간하고, 2013년에는 학부모온라인교육센터를 열고 학부모상담 대표번호(1899-0025)서비스를 오픈하였다(학부모On누리, 2017.5.22. 인출21). 또한 2014년에는 학부모On누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2015년에는 “학부모On누리(www.parents.go.kr)” 사이트를 통합하여 2016년말 기준으로 온라인 교육센터 강좌를 총26종 운영하고 있다(학부모On누리, 2017.5.22. 인출22). 학부모On누리에서는 자녀의 학령기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맞춰 ‘학교생활, 건강안전, 교육재정지원, 나눔교육, 교육정책, 자녀양육, 평생교육, 학습, 진로, 창의·인성’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 학부모On누리(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http://www.parents.go.kr> (검색일: 2017. 5. 22)

[그림 III-2-2]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온라인교육센터 “학부모On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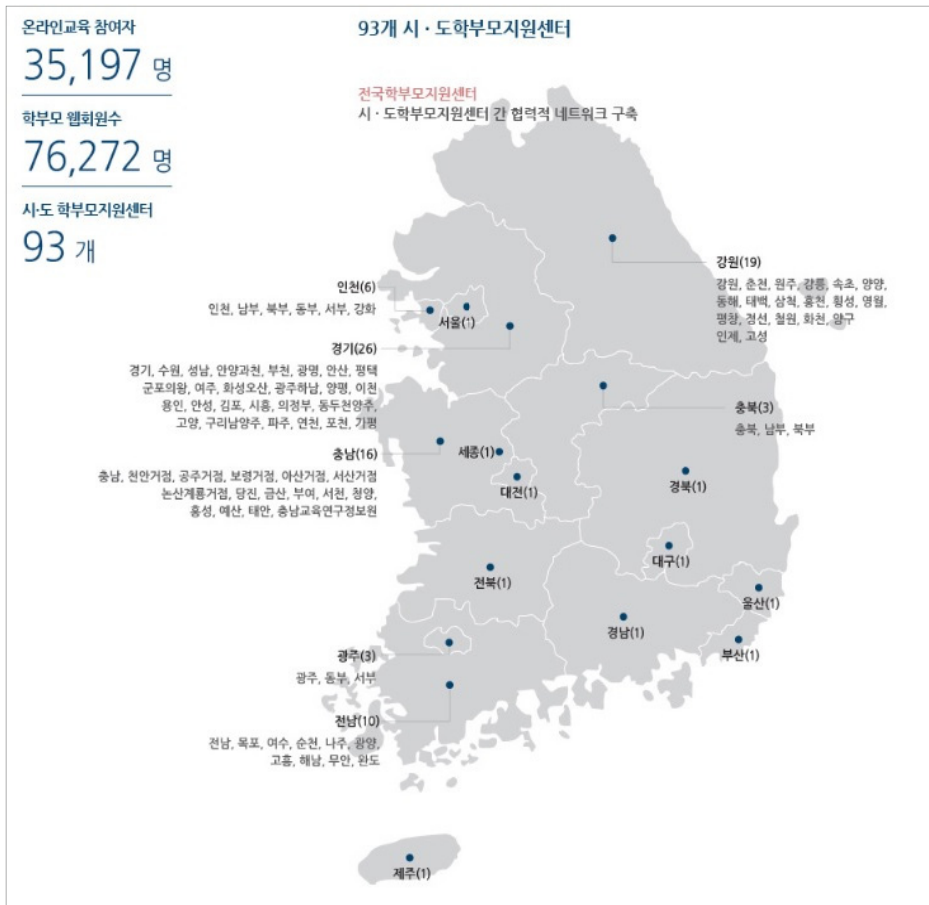
20) 학부모On누리 <http://www.parents.go.kr/EgovPageLink.do> (2017. 5. 22 인출)

21) 학부모On누리 <http://www.parents.go.kr/EgovPageLink.do> (2017. 5. 22 인출)

22) 학부모On누리 <http://www.parents.go.kr/EgovPageLink.do> (2017. 5. 22 인출)

2) 운영현황

시·도학부모지원센터는 전국에 93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학부모On누리를 통한 온라인교육 참여자는 35,197명이고, 학부모 회원 수는 76,272명이다²³⁾.



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 강화 설명 페이지. (검색일: 2017. 5. 22)
<http://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html&bcode=HAFAAAA&mode=view&idx=HAFAAAA>

[그림 III-2-3] 전국 시·도 학부모지원센터 현황(2017년 4월 기준)

2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 강화 설명 페이지(검색일: 2017. 5. 22).
<http://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html&bcode=HAFAAAA&mode=view&idx=HAFAAAA>

2016년 10월 기준 교육통계24)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학생 수는 2,672,487 명으로 전체 학부모 대상에 비하면 약 1.3%로 참여인원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분포된 센터, 혹은 상시 접근 가능한 온라인 교육센터 등 접근이 용이한 통로를 활용한 홍보가 필요하다.

다.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교육부는 기존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www.neis.go.kr)’를 대국민서비스의 하나로 학부모서비스를 추가·확장하여 학교와 학부모간의 온라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학생정보	학생생활	학생건강	학생상담	학생교육	정보제공	이용안내
▲ 시간표 ▲ 출석부 ▲ 학교생활기록부 ▲ 교육비납입현황 ▲ 성적 ▲ 성적표 ▲ 고사별 정·오답표 ▲ 성적분석 ▲ (내)자녀등록 ▲ 자녀정보조회	학교안내 학사일정 식단표 가정통신문 과목 및 담당교사 방과후 학교 초등돌봄교실 학교생활지도 개인별맞춤학습 국가수준학업성취도 봉사활동내역 진로활동내역	▲ 건강기록부 ▲ 건강체크 ▲ 신체활동 ▲ 스포츠클럽 ▲ PAPS ▲ 예방접종내역	▲ 공지사항 ▲ 신청 및 조회	합입지도 인성지도 진학지도 진료지도 특수아지도 에듀넷학습정보 학원교습소안내 PAPS학습모형	▲ 학습자료 ▲ 대입전형자료 홍보자료	소개 이용안내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 사이트맵

구분	제목	날짜
진행	2017년 상반기 학생·학부모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2017.05.16
진행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휴대폰 인증서 사용 안내	2017.03.21
시행	나이스 방과후학교 서비스 개시 안내	2017.03.08
진행	2016년 2차 학생·학부모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2016.12.29

교육부	방과후 학교
교육부는 교육개혁으로 행복한 교육의 실현을 이루어 갑니다.	방과후 학교

에듀넷	학생, 학부모용 인증서 발급안내	학생, 학부모 참여 통합서비스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 시스템 에듀넷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소통의 첫걸음	학생경시 행동특성 온라인검사 교원능력개발평가 만족도 조사 학교폭력 온라인 실태조사

자료: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홈페이지 (검색일: 2017. 5. 29) <http://par.sen.go.kr>

[그림 III-2-4]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홈페이지

24)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 유초중등 학교급별 개황(2016년 10월 조사)(검색일: 2017. 5. 23) http://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8&cd=3535&survSeq=2016&itemCode=01&menuId=m_010802&cuppCd1=010802&cuppCd2=010802&flag=A

‘나이스 학부모서비스(par.sen.go.kr)’는 열람서비스로서 학교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학교정보 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적, 출결, 학교생활기록부 등 자녀의 학교 생활을 인터넷으로 한 눈에 열람할 수 있고, 교사와의 상담, 가정통신 등 학교와 학부모간 상호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²⁵⁾. 본 서비스는 현재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학부모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이용가능하다²⁶⁾.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자녀의 시간표, 출석부, 생활기록부, 교육비납입현황, 성적, 고사별 정·오답표 등 자녀와 관련된 정보, 학교안내, 학사일정, 식단표, 가정통신문, 과목 및 담당교사 정보, 방과후 학교 신청, 초등돌봄교실 신청, 학교생활통지표, 개인별맞춤학습 등 자녀의 학교 생활과 관련된 정보, 자녀의 건강기록부, 신체활동, 스포츠클럽, 예방접종내역 등 건강정보, 자녀상담 신청, 학습자료 등 자녀의 학교 생활과 관련한 방대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있다²⁷⁾.

3. 시간 지원정책

초등학교 전이기의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간지원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일하는 부모에게 초등학교 전이기에 큰 난관이 되는 부분은 자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싶어도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데서 기인한다. 통계청의 ‘2016 일·가정양립지표’에서 기혼여성의 경력 단절사유는 결혼(34.6%), 육아(30.1%), 임신·출산(26.3%), 가족 돌봄(4.8%), 자녀교육(4.1%)로(통계청 보도자료, 2016. 12. 13) 육아와 자녀교육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육아 및 자녀교육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한 경우는 30대 22.6%, 40대 20.6%, 50대 14.3%로 나타났다(통계청 보도자료, 2016. 12. 13:16). 이는 여전히 많은 어머니가 육아와 자녀교육을 이유로 일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하는 부모에게 일·가정 양립이 여전히 큰 숙제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일하는 부모에게도 자녀양육을 위한 일정시간이 공적으로 지원되고 이에 대한 직장 내 일·가정 양립을 장려하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가 확산된다면 초등학교 전이기 부모역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유의할 것이다. 이에 초

25)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서비스 안내 (검색일 2017. 5. 29) http://par.sen.go.kr/edusys.jsp?page=spr_m31210

26)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서비스 안내 (검색일 2017. 5. 29) http://par.sen.go.kr/edusys.jsp?page=spr_m31210

27)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서비스 안내 (검색일 2017. 5. 29) http://par.sen.go.kr/edusys.jsp?page=spr_m31210

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이용 가능한 정부 시간정책과 기업의 사내 시간지원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육아휴직

1) 정책내용

육아휴직은 대표적인 출산·육아지원을 위한 시간정책이다. 최초 시행된 1988년 이래 오랜 기간 영아자녀를 둔 경우만 해당되었다가 2000년대 들어 유아까지 확대되고 2014년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상연령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되면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표 III-3-1 참조). 육아휴직 제도가 출산 초기만 보장하지 않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대상연령이 확대되어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

〈표 III-3-1〉 육아휴직 제도의 자녀연령 확대과정

제·개정 연도	시행 연도	자녀 연령	휴가 기간	비고
1987	1988	생후 1년 미만의 영아	1년	산전·산후 유급휴가기간 포함
1995	1995	생후 1년 미만의 영아	1년	산전·산후 유급휴가기간 비포함
2005	2006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	1년	“
2010	2010	만 6세 이하 영유아	1년	“
2014	2014	만 8세 이하 영유아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1년	“

자료: 김은지·홍승아·민현주·성경(2016). 육아휴직 소득보장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22. <표II-4>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정책이다(고용노동부, 201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총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용노동부, 20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의 1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해당연령 자녀를 둔 근로자가 본 제도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표 III-3-2〉 육아휴직급여 지급기준 변화(2017. 9. 1.)

구분	변경 전 (~2017. 8. 31)	변경 후 (2017. 9. 1~)	
지급기간		최대 1년	
지급금액	월 통상임금의 40% (상한 100만, 하한 50만)	첫 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하한 70만)
		나머지 기간 (최대 9개월)	월 통상임금의 40% (상한 100만, 하한 50만)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7. 8. 21). 9.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 p4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0조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제도로, 2001년 육아 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2011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으로 상향된 후 2017년 8월까지 그 지급수준을 유지하였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7. 8. 21). 최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9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상향 지급된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7. 8. 21).

이번 육아휴직급여 지급기준이 높아진 것은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을 독려하기 위한 이유가 큰 것으로 보인다. 많이 알려지진 않았으나 2014년 11월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7. 8. 21).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지급액이 큰 편이며, 둘째 아이의 경우 200만원 상한이므로(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7. 8. 21),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고려할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볼 수 있다.

2) 운영현황

육아휴직자는 2001년에는 25명에 불과하였다가 2003년 6,816명에서 2016년 89,794명으로 최근 13년간 13배가량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육아휴직자의 많은 수가 여성이지만, 남성의 육아휴직도 증가하고 있는데, 2003년 104명에 불과하였지만 2016년 7,616명으로 73배가량 늘어나 현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비중에서도 남성은 과거 전체 육아휴직자의 1~2%에 불과하였다가 2016년 8.5%를 차지하여 남성육아휴직이 약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3〉 육아휴직 및 지원금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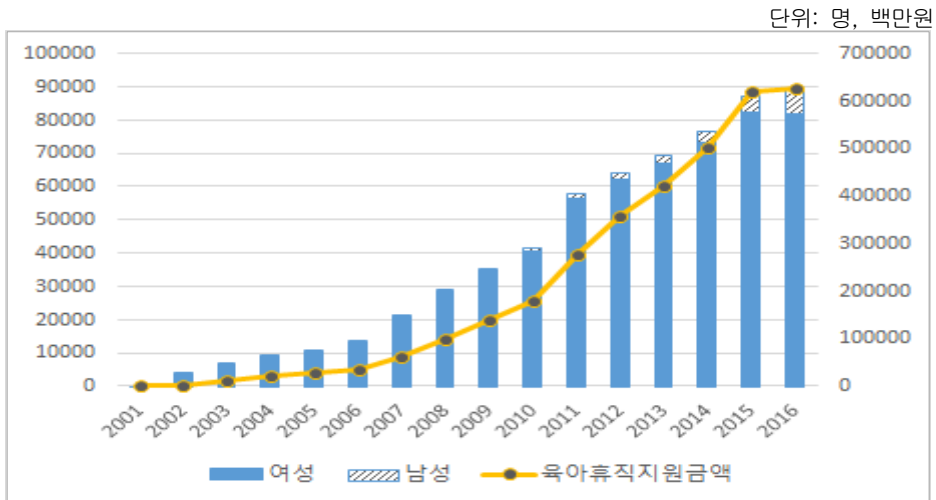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01	2003	2005	2009	2011	2013	2015	2016
육아휴직 수	25	6,816	10,701	35,400	58,130	69,616	87,326	89,794
여성	23	6,712	10,493	34,898	56,728	67,323	82,454	82,178
남성	2	104	208	502	1,402	2,293	4,872	7,616
	(8.0)	(1.5)	(1.9)	(1.4)	(2.4)	(3.3)	(5.6)	(8.5)
지원금액	5	10,576	28,242	139,724	276,261	420,248	619,663	625,243

자료: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7. 8. 21). 9.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 p.3

2) 통계청 e나라지표(www.index.go.kr).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인출일: 2017. 8. 31)

육아휴직 지원금액도 육아휴직자의 증가에 따라 2003년 약 106억원에서 2009년 1000억원을 돌파,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다가 2016년에는 약 6,252억에 이르렀다.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www.index.go.kr).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인출일: 2017. 8. 31)

[그림 III-3-1] 육아휴직 및 지원금액 현황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2015년 1,345명, 2016년 2,703명, 2017년 7월 2,404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버지 육아휴직자 중 이 제도를 활용한 경우는 2015년 24.0%, 2016년 31.5%로 활용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상한도 일반 육아휴직보다 높기 때문에 소득보존효과가 기존제도보다 있으므로 아버지 육아휴직을 촉진하는데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III-3-4〉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현황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7월
전체	1,345	2,703	2,404
남성 (남성 비율)	1,171 (87.1)	2,396 (88.6)	2,124 (8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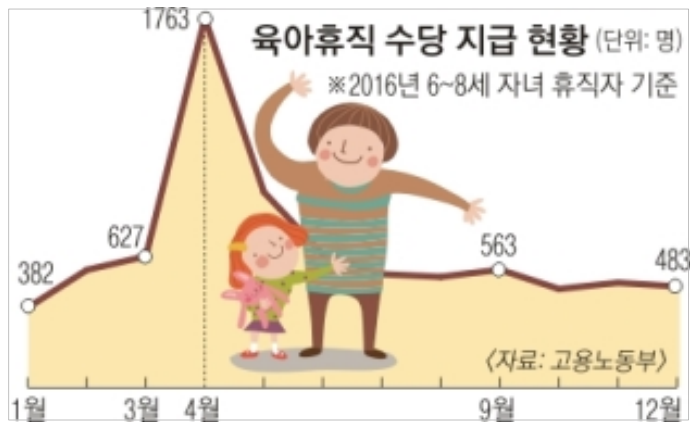
주: 2014년 11월부터 시행됨.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7. 8. 21). 9.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 p.5

대상 연령 확대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진 2014년부터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3-5>와 같다.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한 부모는 2014년 5,643명이었고, 2016년에는 7,993명으로 매해 증가추세이다.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비중에서도 약 7~8%정도로 적지 않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I-3-5〉 초등학생 자녀(6~8세) 육아휴직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초등자녀 육아휴직자 수	5,643	7,697	7,993
전체 육아휴직자 중 비중	(7.3)	(8.8)	(8.9)

자료: 서울신문(2017. 2. 14). 초등생 엄마는 2월부터 육아휴직 '눈치 전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2798012> 그림을 표로 구성(인출일: 2017. 8. 22)



자료: 서울신문(2017. 2. 14). 초등생 엄마는 2월부터 육아휴직 '눈치 전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2798012> (인출일: 2017. 8. 22)

〔그림 III-3-2〕 초등학생 자녀 육아휴직급여 월별 지급현황(2016)

[그림 III-3-2]에서 2016년 초등학교 자녀 육아휴직급여의 월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3월 627명(7.8%), 4월 1,763명(22.1%), 5월 933명(11.7%)으로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신청 1개월 후 지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초등학교 부모들의 육아휴직이 입학전후인 2~4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서울신문, 2017. 2. 14). 이는 초등학교 부모들에게 입학전후 기간에 시간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정책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 즉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으로 최대 1년간²⁸⁾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7. 8. 2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²⁹⁾는 통상임금의 60%(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에서 사업주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국가는 단축근무자의 급여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7. 8. 21).

2) 운영현황

통계청의 분석에 따르면(통계청 보도자료, 2016. 12. 1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사람은 2011년 39명에서 2014년 1,116명, 2015년 2,061명으로 4년만에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전년 대비 945명이 증가하였고, 남성 사용자도 매해 증가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사용자 규모 자체는 아직 매우 적고 초등자녀를 둔 부모들의 사용현황은 파악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혹은 육아휴직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나 단축근무로도 가정의 육아공백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경우에 유용한 제도이다. 통계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이 계류 중이므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용자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보도자료, 2016. 12. 1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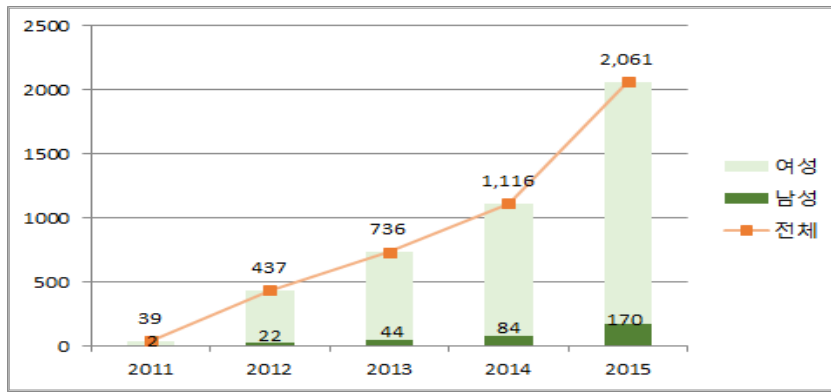
28) 육아휴직과 합하여 1년 이내

29) 급여 = 통상임금 60% × $\frac{(\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text{단축 후 소정근로시간})}{\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표 III-3-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A)	2015(B)	단위: 명(%)
						증감(B-A)
전체	39	437	736	1,116	2,061	945
남성	2	22	44	84	170	86
여성	37	415	692	1,032	1,891	859

주: 자녀연령은 8세 이하 전 연령임(초등자녀 대상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음)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6. 12. 13). 2016 일·가정양립 지표, p.32



자료: <표 III-3-6>을 그림으로 구성

[그림 III-3-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현황

다. 기업의 사내 시간지원 정책 사례

정부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맞춤형 시간정책은 뚜렷이 없지만, 몇 개 기업에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새로이 시행하는 제도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1) CJ그룹: 자녀 입학 돌봄 휴가, 긴급 자녀 돌봄 근로시간 단축제

2017년 CJ그룹은 ‘기업문화혁신방안’을 수립하고, 초등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자녀 입학 돌봄 휴가’, ‘긴급 자녀 돌봄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동아일보, 2017. 5. 24일자³⁰⁾).

30) 동아일보(2017. 5. 24일자). (검색일: 2017. 5. 2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3067009>

〈표 III-3-7〉 CJ그룹 초등학생 자녀 돌봄 시간지원 사내정책

제도명	시행내용	비고
자녀 입학 돌봄 휴가	초등학교 입학 전후 최대 한 달간 사용 가능	유급 2주 + 무급 2주
긴급 자녀 돌봄 근로시간 단축제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할 경우, 하루 2시간 단축근무	

자료: 동아일보(2017. 5. 24); 스포츠월드(2017. 5. 24)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한 달간 ‘자녀 입학 돌봄 휴가’를 낼 수 있으며, 남녀 관계없이 2주일은 유급으로 지원하고, 희망자는 무급으로 2주를 추가해 최대 1개월 간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다(스포츠월드, 2017. 5. 24일자³¹⁾). 또한 ‘긴급 자녀 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면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스포츠월드, 2017. 5. 24일자).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행사 및 상담 등 부모 참여 일정이 많이 있는데, 부모가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중요한 시기에 부모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사내정책이다(동아일보, 2017. 5. 24일자).

2) SK텔레콤: 입학 자녀 돌봄 휴직 제도

SK텔레콤에서도 CJ그룹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입학 자녀 돌봄 휴직 제도’는 최장 90일간 무급 휴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과는 별개로 사용 가능하고, 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인정한다(에너지경제신문, 2017. 6. 1.³²⁾). SK텔레콤은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 부모 자녀 관계 형성에서 중요한 시기로 육아 스트레스 및 여성 경력단절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에너지경제신문, 2017. 6. 1.).

〈표 III-3-8〉 SK텔레콤 초등학생 자녀 돌봄 시간지원 사내정책

제도명	시행내용	비고
입학 자녀 돌봄 휴직 제도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시 최장 90일간 무급 휴직	·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 가능, ·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으로 인정

자료: 에너지경제신문(2017. 6. 1.)

- 31) 스포츠월드 기사(2017. 5. 24일자). CJ그룹의 기업문화혁신방안 ‘화제’...5년마다 한 달 휴가 및 자녀입학 돌봄 휴가 등 도입(검색일: 2017. 5. 2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396&aid=000443326>
- 32) 에너지경제신문(2017. 6. 1일자). SKT초등생 자녀 입학 시 최장 90일간 무급휴직 준다. (검색일 2017. 8. 22)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90955>

4. 소결

가. 돌봄 정책

초등학생 아동 대상 돌봄 정책으로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III-4-1>과 같다.

대부분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는 맞벌이 가정에게도 입소우선순위가 있으며, 수익자 부담비용이 크지 않다. 지원예산은 초등돌봄교실이 가장 많으나 많은 부모들이 방과후돌봄 문제를 육아의 어려움 및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으로 꼽는 것(관계부처 합동, 2015. 5. 12:13; 통계청 보도자료, 2016. 12. 13)을 고려하면 여전히 공급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초등 방과후돌봄 정책의 수요자 중심의 충분한 공급은 지속 견지되어야 하나, 양적 확충에만 그치지 않고 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지속적인 교육/연수,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 등으로 질 높은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방과후 양육공백에 대한 실수요자인 맞벌이 가정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수익자 부담비용이 높아지더라도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공적 돌봄 서비스가 제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표 III-4-1> 초등학생 아동 돌봄 정책 비교

구분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소관 부처	교육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운영 목적	여성 사회진출, 맞벌이가정 증가로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위한 학교 내 돌봄 기능 강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 제공,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완화, 돌봄서비스 제공	아동의 안전한 보호, 건전한 성장을 위한 학습·정서·급식 등 종합적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부모 양육부담 경감
운영 근거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아동복지법 제52조 및 제59조	아이돌봄 지원법
지원 대상	초등학생	초등학생	만 18세 미만	3개월~만12세 이하
운영 주체	단위학교	단위학교	법인, 개인 등 민간, 지자체	시·도/시·군·구 지정기관 ³⁾

(표 III-4-1 계속)

구분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방식	시·도교육청 계획·지도에 의해 단위학교에서 운영	단위학교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 운영	시·군·구에 등록된 법인, 개인	여성가족부/시·도 관리·감독 하에 지정기관이 운영
지원 내용	보호, 교육 및 일부 급식지원	진로개발, 교과 심화·보충, 도시 저소득층/농어촌 학생 수강지원	보호, 학습지도, 급식, 상담, 지역사회 연계	시간단위 돌봄, 아동돌봄관련 가사지원(선택)
시설 수	11,698교실('16년)	6,201학교('16년)	4,107개소('16년)	221제공기관('16년)
이용자 수	244,000명('16년)	1,761,000명('16년)	82,140명('16년)	25,418명 ¹⁾ ('15년)
이용 비용	·프로그램: 무상프로 그램 외 추가프로 그램은 수익자부담 ⁴⁾ ·급간식: 수익자부담	·수강료: 수익자부담 (저소득학생 자유 수강권 지원)	무료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⁵⁾)	·시간제 6,500원/시간 ·종합형(가사추가형): 8,450원/시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예산	5,886억원 ('17년 예산)	3,252억원 ('17년 예산)	1,479억원 ('17년 예산)	546억원 ('17년 예산)
중점 추진 과제	수요자중심 돌봄교실 운영, 질 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강화,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프로그램 질 제고, 강사 활동여건 조성, 취약계층 지원 강화	-	-

주: 1)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의 초등학생 이용자 수(만6~12세)는 2016년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2015년으로 수록

2) -는 부처 차원에서 공표된 추진과제가 없음.

3)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아이돌봄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4) 기본프로그램은 무상으로 제공되며, 교육비 지원대상 아동은 급간식과 추가프로그램 모두 무상으로 제공

5) 진입/심화평가를 통과한 경우 '17년 기준으로 기본운영비는 아동정원/법정종사자 수에 따라 4,188~5,871천원/월 차등 지원

자료: 1)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행정자치부·한국교육개발원(2015). 2015 방과후 돌봄 서비스 연계체제 구축·운영 매뉴얼. pp.4-9.

2)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방과후학교란. (검색일: 2017. 5. 15)
<https://www.afterschool.go.kr/info/information.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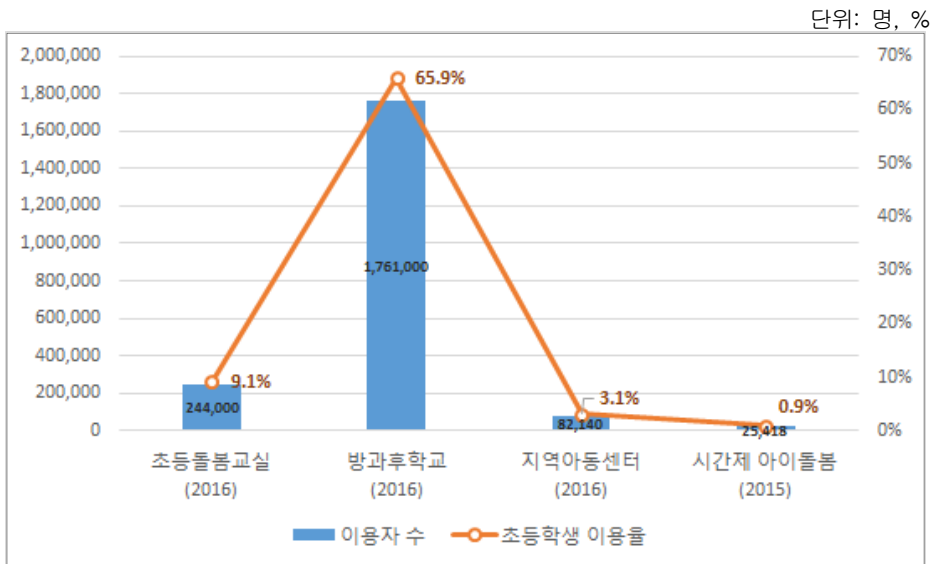
3) 여성가족부(2017). 2017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11.

4)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p.8.

5)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6). (17개 시·도교육청 공동개발) 2017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pp.17-19.

6) 국회예산정책처(2017). 대한민국 재정 2017.

이들 돌봄정책의 초등학생 이용률은 초등돌봄교실 9.1%, 방과후학교 65.9%, 지역아동센터 3.1%,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0.9%로 방과후학교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이용률이 낮은 편이다(그림 III-4-1 참조). 주요 정책대상을 고려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저소득, 요보호아동 중심이므로 일반가정의 아동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초등돌봄교실과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이고, 학습/여가와 돌봄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방과후학교이다. 각각의 돌봄정책의 주요목적이나 정책대상이 다소 상이하므로 이용률만으로 공급과 수요의 충족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방과후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들의 초등학생 돌봄 실수요가 지역 내에서 충분히 수용되고 있는지, 제도 이용의 어려움은 없는지, 질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등 면밀한 실태 분석을 통한 지원방안의 개선이 필요하다.



자료: <표 III-1-2> 전체 초등학생 수, <표 III-4-1> 이용자 수를 바탕으로 그림 구성

[그림 III-4-1] 돌봄정책 초등학생 이용률

나아가 정부는 초등학교 아동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과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다부처로 흩어져 있는 사업들의 중첩 및 사각지대 파악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방과후돌봄이 아동의 삶에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하여 각 사업

의 고유의 목적과 장점은 살리되, 보다 효율적인 정책실행을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개별사업이나 단위학교 수준이 아니라 지역사회 단위의 통합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부모 및 아동의 수요와 욕구를 파악하고 아동 성장발달에 적합한 돌봄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민·관·학 협력을 통한 통합적인 돌봄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봉구의 마을 방과후학교 사례를 통해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단위의 통합적인 돌봄정책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직까지는 법적근거 마련, 비용수납 및 회계처리 문제, 학생들의 이동안전이나 교사의 질 관리 등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들이 있으나, 방과후돌봄 문제를 단위학교가 아닌 지역사회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단순수강에 그치지 않고, 돌봄과 여가까지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49번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서도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바, 부처 간,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돌봄정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 부모교육

초등학교 전이기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적 기반의 신뢰성 있는 정보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등학교 전이 준비를 위한 부모교육'은 주로 학부모지원센터, 지역교육지원청,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해 학부모지원센터, 나이스 학부모서비스처럼 오프라인/온라인 채널이 구축되어 있으나 이용자가 적고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각 제공기관별 프로그램이 상이하고 상호연계와 체계적 관리가 부족하며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대상의 교육이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부모들이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고 자료를 활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부모교육 기회가 있더라도 전문화된, 수요자 욕구에 충실한 맞춤형 교육이나 초등학교 전이에 초점을 둔 경우보다는 다소 일반적인 내용에 그치는 교육이 많았다. 부모들이 대부분 초등학교 전이기의 정보를 지인이나 인터넷정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정보를 공적인 수단을 통해 편리하게 제공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전생애 발달, 아동중심의 관점으로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전이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콘텐츠 개발, 집 가까운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 제고, 자

녀 연령이나 학년 및 지역만 입력하면 해당지역의 교육을 한 번에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제공,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따라 부모도 변화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 시간 지원정책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시간정책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등학생 자녀 부모의 육아휴직은 2014년 시행된 이래 매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4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몇 개 기업의 사례와 같이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지원하는 시간정책을 기업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맞춤형 시간정책을 주도하기 어렵다면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사내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및 가족친화문화 조성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 내 시간지원정책이 1~2개월의 단기간, 하루 1~2시간의 단시간만을 보장하더라도 입학 시기를 전후로 사용가능하고, 육아휴직과 별도로 사용가능하면서 재직기간으로 인정된다면 이용자의 욕구를 해소하고, 사용상의 불이익은 감소되며, 궁극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돕는데 유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하는 부모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역할 변화가 큰 초등학교 전이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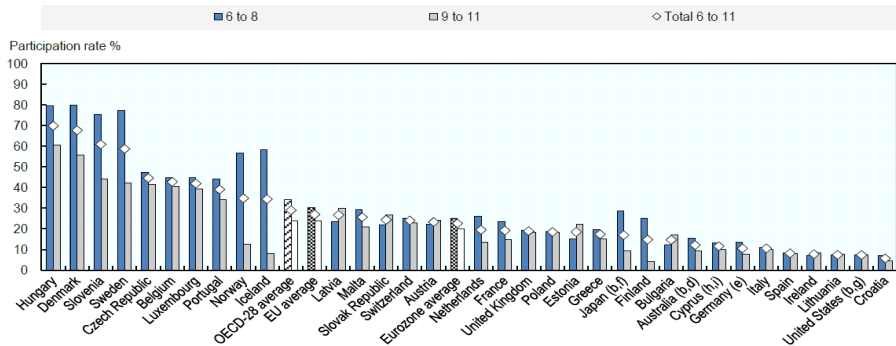
IV. 초등자녀 양육지원 정책 해외 사례

1. 방과후 돌봄 정책

가. OECD 국가의 방과후돌봄 서비스 현황³³⁾

OECD에서 조사한 기관 기반(center-based) 방과후돌봄 서비스(Out-of-school-hours care services)는 국가마다 방과후돌봄 서비스 운영과 이용자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돌봄(care)에 요소가 포함된 서비스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OECD 국가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방과후돌봄 참여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헝가리, 덴마크, 슬로베니아, 스웨덴 순으로 6-11세 기준으로 70% 넘는 아동이 방과후돌봄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세-8세 기준으로는 약 80%의 아동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11세 기준 OECD 평균은 약 30% 수준이고, 6세-8세는 약 35%, 9세-11세는 약 2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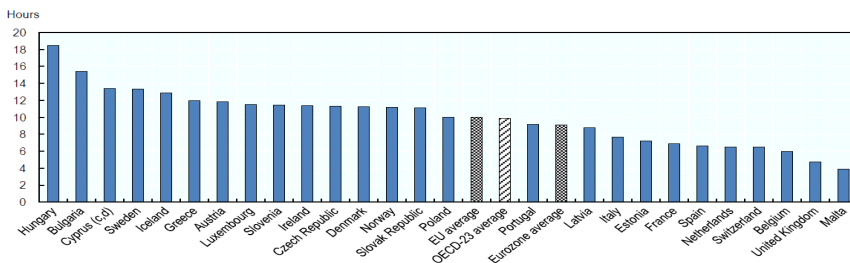
- 주: 1) 미국은 2011년도, 헝가리와 노르웨이는 2013년도 자료임
 2) 호주는 6-12세 자료이고 6-8세, 9-12세로 구분됨. 일본은 7세-11세 자료이고 7-8세, 9세-11세로 구분됨. 미국은 5-11세 자료이고 5-8세, 9-11세로 구분됨.
 3) 자료는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기관-기반 돌봄서비스를 사용한 아동의 비율을 나타냄. 자료는 수업전/후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고, 학교에 다니는 아동이 휴일이나 학교가 문 닫았을 때 돌봄서비스 이용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음. 정확한 정의는 국가마다 다름.

33) 'OECD(2016). Out of school hours care service' 자료를 중심으로 요약하였음

- 4) 호주의 자료는 아동이 수업 전/후 돌봄(before and after school care)에 참석하는 것을 나타냄(돌봄은 학교에 다니는 아동을 대상으로 수업 전, 수업 후, 공휴일, 학생 쉬는 날 대상으로 공급됨).
- 5) 독일은 규정되어 있는 기관-기반 서비스(주로 Horte, 혼합 연령 세팅)에 등록되어 있는 아동의 자료임. 종일학교(Ganztagsgrundschulen)에 등록되어 있는 아동은 포함되지 않음. 2013/14년에 24.2%의 아동이 종일학교에 등록되어 있음.
- 6) 일본 자료는 지자체가 조직하고 후생노동성이 감독하는 기관-기반 돌봄서비스만 해당함. 문부과학성이 조직하거나 후생노동성이 감독하지 않은 기관은 포함되지 않았음. 후생노동성이 감독하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부모가 모두 취업이나 교육 중인 아동(또는 편부모 가정의 자녀, 독신 부모가 취업 또는 교육을 받는 경우)이거나 다른 예외적인 상황에 처한 아동(예를 들면 아프거나 부모님이 없는 아동)임. 자료는 참여 수가 아닌 등록 수를 나타냄.
- 7) 미국의 자료의 경우 수업전/후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아동 대상 자료임. 여기서 '정기적'이라는 정의는 지난달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참가한 것을 나타냄. 자료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함
- 8) 키프로스 자료에 대한 터키 입장: 여기에 제시된 키프로스 정보는 키프로스의 남부 지방에 해당하는 자료임. 키프로스에 살고 있는 터키계 사람과 그리스계 사람들을 대표하는 단일한 권한은 없음. 터키는 터키 키프로스 공화국(Turkish Republic of Northern Cyprus(TRNC))을 인정함. UN의 맥락에서 지속적이고 공평한 해결책이 발견될 때까지 터키는 키프로스 이슈에 관한 입장을 유지함.
- 9) EU와 EC 회원국의 키프로스 자료의 입장: 키프로스 공화국은 터키를 제외한 UN의 모든 국가에서 인정받았음. 이 정보는 키프로스 공화국과 정부의 통제 하에 출판된 정보임
 자료: OECD(2016) Out of school hours care service, p.2

[그림 IV-1-1] OECD 국가 아동의 기관 기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참여율(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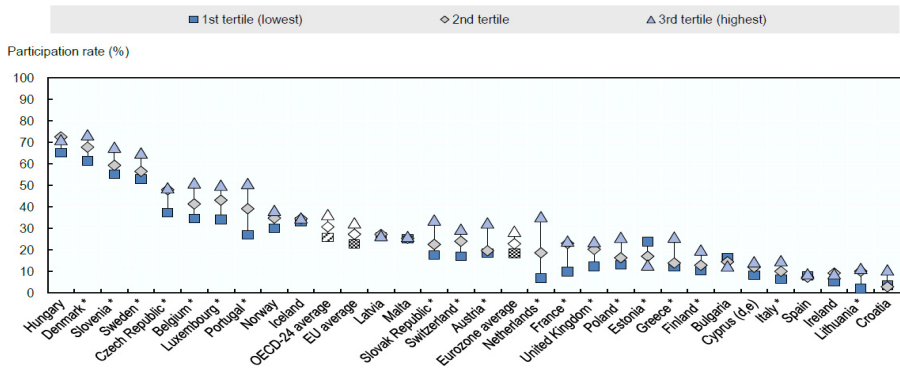
OECD 국가에서 기관-기반 방과후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이 가장 국가는 헝가리였으며 약 18시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불가리아, 키프로스, 스웨덴이 주당 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이 약 13시간 이상이었다. OECD 평균 주당 이용시간은 약 10시간이었다.



주: 모든 조건은 그림 IV-1-1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함.
 자료: OECD(2016) Out of school hours care service, p.3

[그림 IV-1-2] OECD 국가 아동의 기관 기반 방과후돌봄 서비스 주당 이용시간(2014)

OECD 국가의 소득에 따른 방과후돌봄 서비스의 이용률을 가구소득 기준으로 상위, 중위, 하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이 많은 가구가 참여율이 높았다. 네덜란드, 포르투갈 같은 국가는 상위 소득 가구가 하위 소득가구보다 약 20% 이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률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몰타는 소득과 이용률이 상관없는 국가로 나타났고, 에스토니아 불가리아만이 하위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방과후돌봄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인 헝가리의 경우 중위소득과 상위소득이 방과후돌봄 서비스 이용률이 비슷하고 하위소득이 이보다 약5%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 1) 모든 조건은 그림 IV-1-1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함.
 2) 1st tertile(가처분 가구 소득 하위 33%), 2nd tertile(가처분 가구 소득 중위 33%), 3rd tertile(가처분 가구 소득 상위 33%)
 3) 표준화된 가처분 소득 분위를 계산하기 위해 아동이 사는 가구의 가처분 소득(소득세를 낸 이후)을 이용함. 가구 기본생활에 따른 가족 크기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과세 이전 규모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제곱근 척도를 이용하여 표준화하였음.

자료: OECD(2016) Out of school hours care service, p.4

[그림 IV-1-3] OECD 국가 소득에 따른 돌봄서비스 이용률(2014)

나. 국가별 방과후돌봄 정책 사례

1) 프랑스³⁴⁾

프랑스의 돌봄 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저녁 6시 및 6시 30분 정도까지 운영되며, 학교 운영 방과후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 운영 방과후 프로그램, 여가 센터(Centre de Loisirs) 운영 돌봄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한국교육개발원, 2016:308).

프랑스 교육법 L551-1에 의하면, 방과후 프로그램이 공교육의 일환으로 조직될 수 있으나, 정규 교육과정을 대체할 수는 없다(김양화·김남순, 2013:352).

첫 번째 돌봄 전달 체계는 학교가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이다. 기본적으로 각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며, 신청 학생의 학부모들은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6:308).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교 부속의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제공하는데 지방정부가 시설, 비품 및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있다(이욱, 1997:86). 학교 운영 방과후 프로그램은 돌봄 기능 뿐 아니라 문화 및 체육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 목적도 있기 때문에 아동에게 개별적 학습시간을 제공하기도 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6:308). 교육부의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와 사회·교유활동을 담당하는 기관들 사이에 계약 및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김양화·김남순, 2013:352).

두 번째 돌봄 전달 체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이다. 주로 지역 사회의 관련 단체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데 학교 운영 방과후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돌봄 기능 뿐 아니라 문화 및 체육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진다(한국교육개발원, 2016:309).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의 교사는 지자체에서 고용하는데, 운영 비용이 무료인 경우가 많고 교내·외에서 이뤄진다(한국교육개발원, 2016:309).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에는 A.E.P.S.(les Animations Educatives Periscolaires: 방과후의 교육적 활성화 작업)가 있는데, A.E.P.S.는 아동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학교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동화 쓰기, 연극, 놀이 등이 제공되며, 사회문화센터와 사회문화협회 등에 의해 운영된다(정미리, 1996:15). A.E.P.S.의 교육 담당자는 자격증을 갖춘 정규직 및 계약직 교육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고용된다(김양화·김남순, 2013:352).

34) 한국교육개발원(2016). 2013년 해외교육동향.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CRM 2013-168-9. pp.308-311
 “프랑스의 초·중 고등학생 돌봄 프로그램 현황”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위주로 정리하였음.

마지막 전달체계는 여가센터(Centre de Loisirs)이다. 이 센터는 가족과 사회 복지에 관한 법(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정부 시책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6:310). 여가센터에는 C.L.S.H.(les Centres de Loisirs Sans Hebergement: 숙박하지 않는 여가센터)가 있는데, C.L.S.H.는 4-14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체육 및 예술활동, 미니캠프, 놀이 및 전시, 연극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정미리, 1996:14). 공공서비스와 교육활동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여가센터 운영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가센터는 3-17세의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16:310). 여가센터는 대부분의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위치해 있는데 참여하는 학생의 학부모는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한국교육개발원, 2016:310). 여가센터는 수요일과, 토요일, 방학 등 정규수업이 장시간 비어있는 시간에서 운영된다(한국교육개발원, 2016:310).

프랑스의 돌봄 프로그램 및 운영의 기본 모델은 [그림 IV-2-1]과 같다. 기본적으로 오후 수요일을 제외한 오후 4:30분~오후 6시까지 학교 운영 방과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수업이 일찍 끝나는 화요일이나 금요일의 경우에는 지자체 운영 방과후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6:309). 또한 수업이 일찍 끝나는 수요일의 경우에는 점심이후에 오후 6시까지 여가센터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8:30-11:30	수업	수업	수업	수업	수업
11:30-13:30	점심	점심	점심	점심	점심
13:30-15:00	수업	수업	여가 센터 프로그램	수업	수업
15:00-16:30		지자체 운영 방과후 프로그램			지자체 운영 방과후 프로그램
16:30-18:00	학교 운영 방과후 프로그램	학교 운영 방과후 프로그램		학교 운영 방과후 프로그램	학교 운영 방과후 프로그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6). 2013년 해외교육동향, p.309.

[그림 IV-2-1] 프랑스의 학교 정규수업 시간 및 돌봄 프로그램 개입 현황

2) 독일³⁵⁾

독일의 학령기 아동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6:302). 독일에서도 2000년대 들어 여성인력에 대한 사회적 필요의 증가로 인해 자녀의 종일제 교육과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방과후 교육 및 돌봄을 수행하는 종일제 학교(Gantztagschule)가 양적, 질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6:302). 독일의 종일제 학교는 1)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의무형 종일제 학교(Gebundene Gantztagschule) 2) 저소득층 학생 등 일부만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부분 의무형 종일제 학교(Teilweise Gebundene Gantztagschule) 3)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개방형 종일제 학교(Offene Gantztagschule)의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한국교육개발원, 2016:302). 프로그램은 개방형 종일제 학교가 다른 유형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위학교가 종일제 학교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6:303). 종일제 학교 프로그램의 비용은 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60% 가량의 학교에서 유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점심식사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급식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6:303). 종일제 학교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50% 이상의 초등학교가 학교 외부 기관(문화, 교육, 스포츠, 아동 및 청소년 지원기관)과 협력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6:304).

학령기 아동을 위한 학교 외 돌봄 프로그램은 주로 지방자치단체 관리 하에 있는 호르트(Hort)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호르트는 초등학생부터 14세까지의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학교 외부의 시설이며 돌봄과 교육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6:304). 호르트는 취학 아동을 위한 주간 보호 기관(Tageseinrichtung)으로 기능하며 맞벌이 부부 자녀, 편부모 가정의 아동 및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김재인·이향란, 2004:93). 호르트는 기본적으로 방과후 4시간 이상을 운영하여야 하며 학교 시작 전 및 방학 기간에도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6:304). 호르트의 일과는 점심식사, 자유시간, 학습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유시간은 주로 체육활동과

35) 한국교육개발원(2016). 2013년 해외교육동향.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CRM 2013-168-9. pp.302-307 “독일의 초·중·고등학생 돌봄 프로그램 현황”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위주로 정리하였음.

문화체험활동으로 구성되며, 학습시간은 주로 학교숙제를 도와주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재인·이향란, 2004:103). 호르트의 교육은 문화활동과 체육, 놀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교과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학교숙제지도 정도에 한정된다(김재인·이향란, 2004:116).

호르트 참여 및 급식 비용은 부모의 부담이나 저소득층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6:305). 독일에서 대부분의 아동보육기관은 2004년 기준으로 운영비의 약 12% 정도만 학부모에게 받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공립보육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김재인·이향란, 2004:101). 이외에도 가정의 소득 정도에 따라 보육비를 차등지급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교사와 원장 역시 아동의 부모가 얼마를 내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김재인·이향란, 2004:101).

현재 독일의 학령기 아동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은 종일제 학교를 중심으로 통합되는 추세에 있어 호르트의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종일제 학교는 호르트를 비롯한 학교 외부 기관과 협력을 증대하고 있으며, 종일제 학교 상호간에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6:305).

3) 미국³⁶⁾

미국에서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전체의 15% 정도로 낮은 비율에 머무르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6:292). 미국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교 이외에도 대학, 연구소, 지역사회, 종교기관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는데 학교 내 방과후 프로그램보다 학교 외 방과후 프로그램이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 외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YMCA와 YWCA 등을 들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2016:293). 이러한 방과후 프로그램은 돌봄과 교육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방과후 학교 재정 지원프로그램으로는 CCDF(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 아동보육발달기금),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빈곤가족 한시 지원), 21st CCLC(21st Century Community Learning Centers, 21세기 지역사회 학습센터), ESEA Title I (Elementary and Secondary

36) 한국교육개발원(2016). 2013년 해외교육동향.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CRM 2013-168-9. pp.292-296 “미국의 초·중·고등학생 돌봄 프로그램 현황”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위주로 정리하였음.

Education Act Title I, 초중등교육법 제1장 초중등학교 교육기회 균등화 프로그램) 등이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2016:294).이중 CCDF와 TANF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주정부에서 관리하는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고(변종임 외, 2009:58), 21st CCLC와 ESEA Title I 은 연방정부에서 관리하는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이다. 21st CCLC는 학교의 수업진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김재인·이향란, 2004, p.142). 21st CCLC는 대체로 공립 초등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다(김재인·이향란, 2004, p.143). 21st CCLC는 문화 및 예체능 활동 뿐 아니라 일대일지도(tutoring) 및 숙제지도 등을 통하여 학업성취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변종임 외, 2009:59).

4) 일본³⁷⁾

일본의 초등학교 학생 대상 돌봄 프로그램은 ‘방과후 아동 플랜 추진사업’으로 불린다(한국교육개발원, 2016:325). ‘방과후 아동 플랜 추진사업’은 문부과학성의 ‘방과후 아동 교실 추진사업(초등학교 전 학년 대상)’과 후생노동성의 ‘방과후 아동 건전육성사업(방과후 아동 클럽,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구분된다(한국교육개발원, 2016:325). 방과후 아동 교실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방과후나 주말에 초등학교의 빈 교실을 활용하여 취학 아동을 위한 방과후 활동의 거점을 만드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변종임 외, 2009:86). 방과후 아동클럽 역시 방과후나 주말의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하여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다(변종임 외, 2009:88). 그러나 방과후 아동교실과 방과후 아동클럽은 이미 학교 외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우나 학교에 빈 교실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 외에서 실시할 수 있다(변종임 외, 2009:88).

문부과학성의 방과후 아동 교실과 후생노동성의 방과후 아동 클럽은 별개로 시작한 사업이었으나 2006년부터 방과후 아동 플랜 추진사업으로 연대하여 추진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16:325). 이러한 연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도부현에서는 방과후 사업의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문부과학성이 담당하고

37) 한국교육개발원(2016). 2013년 해외교육동향.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CRM 2013-168-9. p.325-331 “일본의 초·중·고등학생 돌봄 프로그램 현황”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위주로 정리하였음.

있고, 지도자 연수는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이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6:325). 시정촌 단위에서는 문부과학성 담당 하에 방과후 사업의 운영위원회가 설치되고, 초등학교에는 방과후 코디네이터가 배치되어 학교와 관계기관과의 연락 및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6:325). 방과후 아동 교실과 방과후 아동 클럽은 연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같은 학교의 교실에서 공통적인 학습 및 돌봄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변중임 외, 2009:90).

문부과학성의 방과후 아동 교실은 연간 평균 118일 정도 운영되며, 70% 이상이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나, 아동관이나 공민관 등 지역시설을 이용하기도 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6:326). 방과후 아동 교실의 프로그램은 각종 체험활동, 스포츠 프로그램, 교과학습, 놀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한국교육개발원, 2016:326). 후생노동성의 방과후 아동클럽은 맞벌이 부모를 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한국교육개발원, 2016:327). 연간 280-299일 정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76.5%에 달하며, 평일에는 정규수업이 마치는 시간부터 오후 6-7시 정도에 마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방학 기간에는 대체로 오전 8-9시에 시작하여 오후 6-7시에 마치게 된다(한국교육개발원, 2016:327). 방과후 아동클럽은 초등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중심으로, 아동관 및 공민관 등의 지역시설을 이용하기도 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6:328).

방과후 아동 사업 플랜의 공적인 재정지원은 문부과학성 및 후생노동성이 1/3, 도도부현이 1/3, 시정촌이 1/3을 부담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6:328).

2. 초등학교 적응 및 전이 지원 정책

가. 프랑스³⁸⁾

프랑스에서는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만2세부터 5세까지의 모든 아동이 유아학교(ecole maternelle)에 다닐 수 있다(김은영 외, 2008:44). 프랑스의 유치원 교육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공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김은영 외, 2008:45).

38) 장명림 외(2015)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과 지원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5-06, p.55-58, 김은영 외(2008). 유아교육·보육과정과 초등교육과정 연계 방안 연구. 서울: 유아정책개발센터. 연구보고 2008-07. p.44-49. 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프랑스는 유-초연계를 위해 주기적 교육과정(cycle)을 개발함으로써 유치원의 마지막 학년과 초등 저학년(1,2학년)을 기초학습과정(foundation learning cycle)으로 통합하였고, 이를 통해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교육과정에 대한 개발 및 실행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장명림 외, 2015:56).

프랑스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동시에 개발되고 개발 담당 전문가 집단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교육과정이 학교급으로 구분되기 보다는 연령과 학년에 따른 주기적 교육과정(cycle)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김은영 외, 2008:46).

프랑스 학제는 8개의 주기(cycle)로 세분화되는데, 일반적으로 주기는 3년을 단위로 구분되어진다(이화도, 2010:258). 그중에서도 1989년 교육법에 의해 유치원 3년 과정과 초등학교 5년 과정을 통합하여 3단계로 편성한 주기(cycle) 체제를 갖추고 있다(이화도, 2007:26).

이러한 프랑스의 주기적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유치원 3년까지를 초기 학습과정(early learning cycle), 유치원 마지막 연도와 초등 1,2학년을 기본 학습과정(foundation learning cycle), 초등 3학년부터 5학년(최종 학년)까지를 심화 학습과정(developmental cycle)으로 분류한다(이화도, 2007; 정미라 외, 2007; 장명림 외, 2015, p.56에서 재인용). 유-초연계를 위해 유치원의 마지막 학년인 5세 반과 초등 저학년(1,2학년)을 같은 주기의 교육과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를 중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이화도, 2010:259).

이를 위해 유치원 마지막 학년인 5세반에서는 유아교육과정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놀이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보다는 읽기 및 쓰기와 같은 초등학교 적응을 위한 교육과정이 적용되며 초등 1,2학년과 원활한 연계를 위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이화도, 2010:260).

유-초연계를 위해 공립 초등학교의 경우 병설유치원에 등원하는 유아들이 초등학교의 교실 및 도서관에서 초등 1학년 아동들과 같이 수업을 받은 경험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장명림 외, 2015:56).

그 외에도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및 교육 행정가들이 유-초연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정기적인 모임을 갖도록 하고 있고, 교사양성에 있어서도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가 같은 양성과정을 밟도록 하고 임용시험에 있어서도 통합된 시험을 치도록 함으로서 유-초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장명림 외, 2015:56).

프랑스에서는 2006년에 교사교육기준과 및 국가교사양성기관(IUFM)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정의하는 법을 공포할 때 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10가지 전문기술을 명시하여 제시하였다. 그 전문기술들은 다음과 같다(김은영 외, 2008:48).

- 주의 피고용인으로서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
- 교수와 의사소통을 위한 프랑스어 숙달
- 모든 과목을 가르치기 충분한 숙련 및 풍부한 상식
- 과목 계획 및 교수
- 교실작업을 위한 조직
- 학생 다양성에 대한 존중
- 학생 평가
- 정보 및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충분한 지식
- 부모, 학교 파트너와의 팀워크 및 협동
- 지속적인 훈련 및 쇄신 (김은영 외, 2008:48)

이러한 10가지 전문기술 가운데 부모와 교사 간의 협력을 포함시켜 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및 부모와 교사와의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부모와의 협력은 유-초연계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치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유-초연계를 위한 정보제공 및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장명림 외, 2015:57).

이러한 정보제공은 초등학교 진학 준비를 위한 정보가 주를 이루고 있다.

프랑스는 유아교육이 기본교육 학제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특성이 같은 기본교육 학제인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를 원활히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나. 영국³⁹⁾

영국에서는 만 5세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초등학교 입학 1년 전인 만 4세를 위해서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위한 예비학급(reception class)이 유치원에서 운영

39) 장명림 외(2015)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과 지원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5-06, p.52-55, 김은영 외(2008). 유아교육·보육과정과 초등교육과정 연계 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보고 2008-07. p.36-39. 문무경(2007). 영국의 육아정책.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p.80-85. 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되고 있다(장명림 외, 2015:53).

영국의 기본 교육 단계는 5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 단계인 기초단계(foundation stage)는 3-5세에 해당되며, 5-16세는 각 단계를 핵심단계(key stage)로 구분하였는데, 핵심 1단계(5-7세), 핵심 2단계(7-11세), 핵심 3단계(11-14세), 핵심 4단계(14-16세)로 구성된다(권영임, 2010:128).

영국은 2010년까지 모든 지역에서 저소득층 아동 지원기관인 Sure Start 아동 센터(Sure Start Children's Centre)을 설립하여 3-4세 모든 유아들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중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연중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무료교육시간을 주당 15시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초등학교에 다니는 5-11세 아동들도 모든 학교와 유치원에서 방과 후 보육을 연중무휴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지성애·백선희·채영란, 2007:150).

영국은 1999년 생애초기 학습목표(early learning goals)를 제정하여 유아교육 과정과 초등교육과정의 연계를 시작하였다(김은영 외, 2008:37). 유-초연계를 위해 2002년의 영국 교육법(Education Act)은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기초단계를 국가 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에 포함시킴으로써 3-5세 유아들도 생애초기 학습목표에 따라 교육받게 되었다(김은영 외, 2008:37). 이러한 노력은 유치원으로부터 초등학교로의 원활한 전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에서는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을 연계하기 위해 만 4세의 경우에 초등학교 적응을 위한 학급인 예비학급(reception class)이 운영되고 있다(김은영 외, 2008; 장명림 외, 2015, p.53에서 재인용). 다시 말해서 유아교육에서 준비학급을 거쳐 초등학교로 진학하는 구조인 것이다. 관련 연구들은 준비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 교과 교육 중심의 교육으로 이루어지며 교사 중심의 설명을 위주한 교육으로 아동이 유치원에서 경험하는 놀이중심의 교육과정과는 다른 초등학교의 교육과 유사한 교육과정이라고 보여 주고 있다(McInnes, 2002; Sharp, 2002; 장명림 외, 2015, p.53에서 재인용).

영국은 2008년에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하나의 체제인 0-5세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생애초기 유아교육과정(Early Years Foundation Stage: EYFS)을 제정 및 공포하였다. 0-5세가 다니는 모든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는 의무적으로 EYFS를 준수해야 한다. EYFS의 목적은 모든 아동이 안전(staying safe), 건강(being healthy), 즐거움과 성취(Enjoying and Achieving), 긍정적인 기여(making a positive contribution), 경제적인 안정(achieving economic

well-being)을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문무경, 2007:81). 이러한 EYFS 유아교육과정은 (1) communication and language (2) physical development (3) personal,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4) literacy (5) mathematics (6) understanding the world (7) expressive arts and design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United Kingdom public sector information website, 2017. 6. 5. 인출⁴⁰⁾).

영국의 유-초연계를 위한 가정지원에서 가정 학습 환경(Home-Learning Environment: HLF)은 아동의 발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영향 중 하나라는 점에서 매우 중시되고 있다(Taguma, Litjens, & Makowiecki, 2012:31).

가정 교육과정(Home curriculum)은 부모가 가정의 일상생활에서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아동의 발달 및 이후의 학업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aguma, Litjens, & Makowiecki, 2012:31).

가정 방문(home visits)은 유아교육 및 보육 전문가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의 발달 및 학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주며,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전이를 위한 정보를 부모들에게 제공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정방문 프로그램은 많은 경우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나, 단체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가족에 대해 이루어지기도 한다(문무경, 2007:95).

유아교육·보육(ECEC) 관련 교직원, 보건 관련 지역사회 관계자, 학부모 간의 정기적인 의사소통이 효과적인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마련 및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 하에 부모, 지역사회 관계자, 유아교육 및 보육 기관 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다. 미국⁴¹⁾

미국은 아동, 가족, 지역사회, 유아교육기관, 초등학교가 포함된 전이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전이 프로그램을 유치원과 초등학교 입학 초기 수개월간 운영된다.

미국은 초등학교에 유치원(Kindergarten)을 K학년으로 포함하고 의무교육이

40) United Kingdom public sector information website, (검색일: 2017. 6. 5.)
<https://www.gov.uk/early-years-foundation-stage>

41) 장명림 외(2015)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과 지원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5-06, p.40-48 및 Pianta & Kraft-Sayre(2003)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아닌 공교육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의 시작이 유치원부터라고 보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유아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 전이를 돕기 위한 정책은 유치원 이전의 preschool에서 K학년이 포함된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 아동이 효과적으로 적응하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게 된다(장명림 외, 2015:41).

미국의 유아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로의 전이를 용이하게 하는 프로그램 개발은 4가지의 전이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Pianta & Kraft-Sayre, 2003, p.4-9; McCubbins, 2004, p.14-15; 장명림 외, 2015, p.41에서 재인용).

“첫째, 기술중심모델(Skills Only Model)은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력 위주의 전이 모델로써 초등학교 적응에 미치는 아동의 능력과 기술에 초점을 두는 모델이다.

둘째, 환경입력모델(Environmental Input Model)에서는 교사, 가족, 동료, 지역사회가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둔다.

셋째, 환경연계모델(Linked Environments Model)은 교사, 가족, 동료, 지역사회가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핵심 인물(key people)들이 서로에 대해 미치는 영향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모델이다.

넷째, 발달적 모델(Developmental Model)은 교사, 가족, 동료, 사회의 맥락과 관계를 고려하고 이러한 관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며 아동의 학교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중점을 두는 모델이다.“ (장명림 외, 2015, p.41에서 재인용)

발달적 모델을 반영한 전이 정책에서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이를 위한 협력팀(Collaborative Teams)을 구성하여 전이교육을 운영하고,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 차원에서는 학교전이팀(School Transition Team)이 구성되어 전이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관리한다(Pianta & Kraft-Sayre, 2003, p.16; 장명림 외, 2015, p.42에서 재인용).

지역사회의 전이를 위한 협력팀(Collaborative Teams)의 전이 프로그램을 9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Pianta & Kraft-Sayre, 2003, p.17-35; 장명림 외, 2015, p.42-43에서 재인용).

“1단계(Step 1: Establish Collaborative Teams): 지역사회의 전이를 위한 협력팀(Collaborative Teams)을 구성한다. 유아교육기관 및 초등학교 교사 및 기관장, 가족복지사(family worker), 학부모, 지역사회 대표가 참여하여 팀을 구성하고 유아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로의 전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시행한다.

2단계(Step 2: Identify a Transition Coordinator): 전이코디네이터(transition coordinator)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로의 전이를 돕기 위한 교육을 각 기

관에서 시행하도록 중재하고 전이에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이코디네이터는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의 자원, 아동들의 발달 관련 요구 및 가정과 학교의 요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전이코디네이터는 지역사회에서 전이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3단계(Step 3: Facilitate Regular Meetings and Conduct a Needs Assessment): 협력팀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전이 프로그램 진행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전이코디네이터, 지역사회 대표, 유아교육기관 및 초등학교 대표, 학부모 및 가족복지사가 참여하여 유아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로의 전이를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4단계(Step 4: Generate Ideas for Transition Activities) : 전이 활동(Transition Activities) 및 프로그램의 목록을 작성하여 진행상황을 파악한다.

5단계(Step 5: Create Ideas for Transition Activities): 전이 일정(Transition Timeline)을 작성한다. 요구되는 전이활동을 우선순위를 매겨 나열하고 전이일정에 구체적인 날짜를 표시한다.

6단계(Anticipate Barriers): 전이교육의 방해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예측해 본다. 효과적인 전이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분석해 본다. 여기에는 인력과 재정과 같은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한계정도 포함된다.

7단계(Revise Ideas and Timeline): 효과적인 전이교육에 대한 활동과 일정을 재검토한다. 전이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요인들이 파악되면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기존의 활동과 일정을 수정하게 된다.

8단계(Implement Transition Practices): 이러한 과정에 따라 구성된 전이 지침을 통한 전이교육을 시행한다.

9단계(Assess, Evaluate, and Revise): 시행된 전이교육의 평가 및 재검토를 통해 기존 전이교육을 개선한다.“ (장명림 외, 2015, p.42-43에서 재인용)

라. 스웨덴⁴²⁾

스웨덴은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grundskola*) 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아학급(*forskoleklass*)을 의무교육체제로 도입하고 있다(장명림 외, 2015, p.58).

스웨덴은 1996년 만 1-6세 아동의 유아교육 및 보육업무를 보건사회부에서 교육과학부로 이관하였으며, 이후 교육과학부가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한 중앙정

42) 장명림 외(2015)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과 지원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5-06, p.58-60, 김은영 외(2008). 유아교육·보육과정과 초등교육과정 연계 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보고 2008-07. p.40-44, 문무경(2006). 스웨덴의 육아정책: 유아교육과 보육, 학교교육의 통합을 중심으로.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p.50-97. 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부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김은영 외, 2008:40). 1998년 학교법(School Act)에 근거하여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합함으로써 만 1-5세 영유아를 위한 유아학교(foreskola)와 유아학급(foreskoleklass)으로 운영하고 학령기 교육은 만 7세부터 시작된다(문무경, 2006; 김은영 외, 2008, p.40에서 재인용).

만 6세 유아학급(foreskoleklass)은 초등교육과의 연계를 위하여 초등학교(grundskola) 내에 있으며 하루 3시간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장명림 외, 2015, p.58). 유아학급의 역할은 초등교육을 시작하기 위한 전이과정으로서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며, 의무교육과 같은 형태의 교육과정이 제공되지만 획일적인 계획안이나 시간표에 구속되지는 않는다(장명림 외, 2015:58). 만 6세 유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주 5일 수업을 하며 첫 2년간은 하루에 6시간을 초과하는 수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김은영 외, 2008:41).

특히,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의 협력을 강조한 교육정책은 유아학급(forskoleklass)과 초등학교 간의 원활한 전이에 중점을 두고 있다(장명림 외, 2015:58). 이러한 유-초연계를 위한 노력이 초기에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점차적으로 의무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970-1980년대부터는 지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유-초연계를 위한 협력 프로젝트가 구성되어 실행되었다(김은영 외, 2008:43). 1998년부터는 만 6세 유아의 초등전이를 도와주기 위한 유아학급(forskoleklass)이 의무교육 체계로 도입됨으로써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초연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장명림 외, 2015:58).

현재 스웨덴의 대부분 지역에서 유아학급에 다니는 유아들이 입학할 예정인 초등학교에 1주일에 1회 방문하도록 하여 초등학교의 환경, 생활 및 규칙을 익히도록 하고 초등학교 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초등학교 입학 시 낯설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김은영 외, 2008:43). 유아교육 및 보육(ECEC) 센터들과 유아학급, 초등학교의 협력을 통해 유아교육으로부터 초등교육으로의 전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스웨덴은 원활한 유-초연계를 위해 유아학교, 유아학급, 여가활동센터, 초등학교 간 연계성을 높임과 동시에 교원양성체제를 통합하였다(박창현 외, 2010:86). 구체적으로 2001년에 유아학교 교사, 여가활동 교사, 초등교사, 아동보육사의 양성체제를 통합하고, 3.5년 간의 양성기간 중, 첫 1년은 공통과정 운영을 통해 유아교육 및 보육의 공통된 목표, 가치 및 철학을 공유하도록 하였다(박창현 외, 2010:86).

3. 소결

본 장에서는 초등 아동의 양육지원과 관련된 국외 방과후돌봄 정책과 전이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후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OECD에 포함된 많은 국가들이 방과후돌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방과후돌봄 참여율, 학부모들의 가구소득 운영 시간 등이 체계적으로 조사되고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유형의 돌봄서비스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돌봄정책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아동의 놀이와 휴식시간 채워질 수 있는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국외 사례는 단순 돌봄이 아니라 방과후돌봄에서 운영되는 서비스는 체험 등 여가활동 운영 위주로 아동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었다. 즉, 아동이 재충전 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방과후돌봄 서비스 주당 이용시간은 평균 약 10시간으로 길지 않아 돌봄 시간이 긴 우리나라 방과후돌봄과는 차이가 있었다.

셋째, 맞벌이 가구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참여율이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 개별 국가 사례에서 살펴보면 취약아동에 대한 방과후돌봄 서비스도 이뤄지지만, 전체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이 많은 가구에서 방과후돌봄 서비스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외에서는 맞벌이 부부 위주로 방과후돌봄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방과후돌봄 서비스공급의 초점은 실제 수요가 높은 맞벌이 가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넷째, 방과후돌봄의 지자체 및 사회적 기업의 참여 등 운영을 다각화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방과후돌봄을 학교에서 운영하는 시간도 있긴 하지만, 지자체 및 기타 단체 등이 학교 건물을 대여 후 참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가 정규교육과정에 충실하고 다양한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초등학교 적응 및 전이 지원 정책은 학교 혹은 부모에 집중되어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학교, 지역과의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은 아동, 가족, 지역사회, 유아교육기관, 초등학교가 포함된 전이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즉, 초등학교 입학은 단순히, 교육기관의 이동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문화의 적응이라는 관점이 반영된 정책이다. 따라서 아동의 전이과정에서 아동을 중심으로 부모, 학교, 지역사회 역할과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V. 가정생활 변화와 아동의 학교 적응

본 장에서는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에 따른 아동 및 가족구성원의 생활 변화와 아동의 취학 후 확인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 7차(2014년), 8차(2015년)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일과 변화를 비롯하여 방과 후 활동, 어머니의 우울, 부부 갈등, 취업률, 양육활동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본 장에서는 아동의 취학에 따른 어머니의 취업률 변화, 근로조건 변화와 이에 따른 아동의 학교적응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1. 가정생활 변화

가. 아동의 일과 변화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후⁴³⁾ 하루 일과에서 큰 변화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전(6세)에는 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7.08시간이었지만 초등학교에 입학 후(7세)에는 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5.54시간으로 약 1.5시간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기타 학원 및 돌봄 시간이 초등학교 입학 전(6세)에 0.85시간이던 것이 초등학교 입학 후(7세) 약 1.7시간 증가한 2.51시간이었다. 실내외 활동도 초등학교 입학 전(6세)에는 2.99시간에서 3.35시간으로 증가하였다.

〈표 V-1-1〉 아동의 일일 활동별 소요 시간¹

단위: 시간, (명)

구분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기타 학원 및 돌봄		실내/외 활동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입학 전 ⁴⁴⁾	7.08	1.30	0.85	0.74	2.99	1.24	(1,367)
입학 후	5.54	1.13	2.51	1.26	3.35	1.28	(1,367)

자료: 김은설·배운진·조숙인·이예진·송신영·임준범·박은영·김신경·김은정(2016). 한국아동 성장발달 중단연구 2016(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254에서 6,7세만 발췌함.

43) 한국아동패널 8차에 참여 한 아동 중 6명은 2014년도에 입학하였으며, 3명은 입학하지 않았으나 용어의 편의 상 초등학교 입학 전과 후로 구분하여 표현하였음.

44) 입학 전은 6세(7차 자료), 입학 후는 7세(8차 자료)임.

아동의 수면시간은 초등학교 입학 후(7세) 입학 전(6세)보다 약 0.18시간 줄어든 9.64시간이었다. 미디어 이용 시간과 기본생활은 각각 1.40시간, 1.31시간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과 후가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표 V-1-2〉 아동의 일일 활동별 소요 시간2

단위: 시간, (명)

구분	수면		미디어 이용		기본 생활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입학 전	9.82	0.70	1.41	0.79	1.37	0.57	(1,367)
입학 후	9.64	0.64	1.40	0.97	1.31	0.50	(1,367)

자료: 김은설·배윤진·조숙인·이예진·송신영·임준범·박은영·김신경·김은정(2016).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6(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255에서 6,7세만 발췌함.

초등학교 입학 후(7세) 아동의 수면 습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침시각은 평균 오후 9시 49분으로 입학 전(6세)과 유사하며, 기상시간은 오전 7시 28분으로 입학 전(6세)보다 기상시간이 약 10분정도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입학 후(7세) 아동이 자다가 깨지 않는 비율은 93.2%로 입학 전(6세) 88.9%보다 숙면을 취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3〉 아동의 수면 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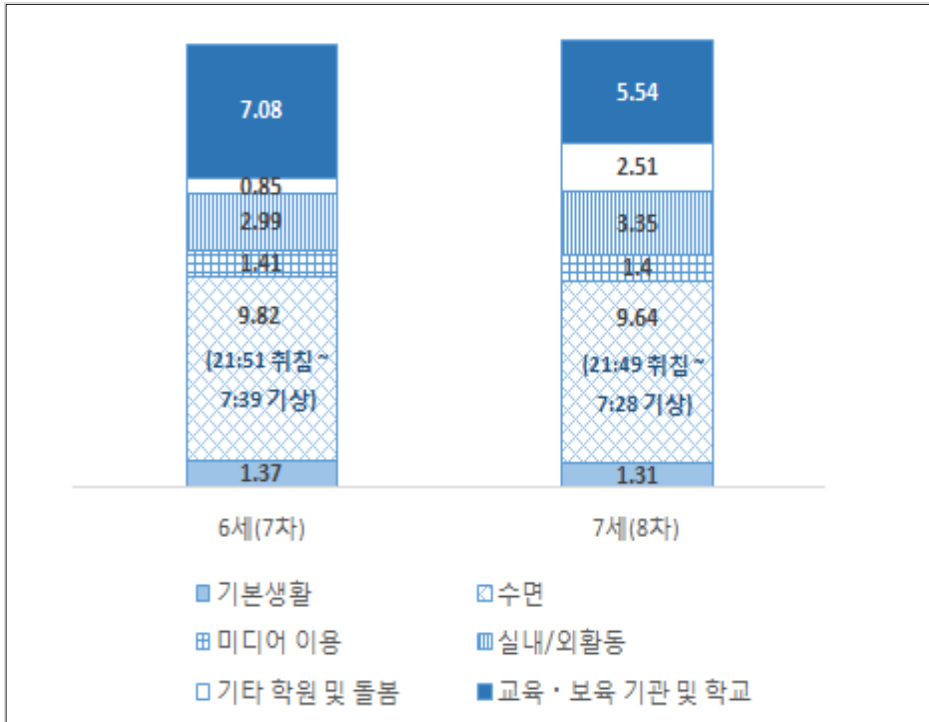
단위: 시: 분, %(명)

구분	취침 시간		기상 시간		(수)	숙면 여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깨지 않음	자다가 깨	계
입학 전	21:51	0:58	7:39	0:34	(1,367)	88.9	11.1	100.0(1,346)
입학 후	21:49	0:42	7:28	0:26	(1,367)	93.2	6.8	100.0(1,346)

자료: 김은설·배윤진·조숙인·이예진·송신영·임준범·박은영·김신경·김은정(2016). 한국아동성장발달 종단연구 2016(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255에서 6,7세만 발췌함.

[그림 V-1-1]에 아동의 하루 일과 변화를 요약한 그림을 제시하였다. 요약하면 초등학교 입학으로 인해 아동의 기관(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고, 기타 학원 및 돌봄 시간이 증가하였다.

단위: 시간



자료: 김은설·배윤진·조숙인·이예진·송신영·임준범·박은영·김신경·김은정(2016).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6(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255 그림에서 6,7세만 발췌하여 재구성함.

[그림 V-1-1]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 및 수면 시각

나. 초등학교 입학 후 방과 후 돌봄서비스 및 학원 이용 현황

초등학교 입학 후(7세) 학기 및 방학 중 아동의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조부모 및 기타 친인척에게 부탁하는 비율이 학기 중에는 17.4%, 방학 중에는 17.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초등돌봄교실을 이용이 학기 중에는 12.5%, 방학 중에는 9.2%였다. 지역 아동센터는 학기 중에는 1.3%, 방학 중에는 1.5%였으며 비혈연 대리양육자, 아이돌보미 등은 이용하는 비율이 1% 이하였다.

〈표 V-1-4〉 학기 및 방학 중 돌봄

단위: %(명)

구분	학기중	방학중
조부모 및 기타 친인척	17.4(281)	17.1(277)
비혈연 대리양육자(양육도우미 등)	1.0(18)	0.9(16)
아이돌보미(건강지원센터)	0.5(7)	0.6(8)
초등돌봄교실	12.5(202)	9.2(147)
지역아동센터	1.3(23)	1.5(25)
기타	0.8(11)	0.8(13)
이용하지 않음	69.7(1,111)	72.9(1,163)

자료: 김은설·배운진·조숙인·이예진·송신영·임준범·박은영·김신경·김은정(2016). 한국아동 성장발달 중단연구 2016(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215.

돌봄 및 양육서비스 이용 시간과 빈도를 살펴보면 이용률이 높았던 조부모 및 기타 친인척의 도움의 경우에는 학기 중 기준 주당 4.23일, 하루 평균 5.22시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학 중에 조부모 및 기타 친인척에게 도움 받는 시간이 6.52시간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돌봄교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학기 중 기준 평균 4.83일, 2.96시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학 중에는 4.72일로 주당 이용일 수는 유사하나 하루 이용시간이 평균 4.59시간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아동센터는 학기 중 기준 5.1일, 하루 평균 3.41시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학 중에는 하루 이용 시간이 4.73 시간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5〉 돌봄 및 양육서비스 이용 시간 및 빈도

단위: 일, 시간(명)

구분	주간 이용 일						하루 이용 시간					
	학기 중			방학 중			학기 중			방학중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조부모/기타 친인척	4.23	2.24	(281)	4.24	2.18	(277)	5.22	5.41	(281)	6.52	5.86	(277)
비혈연 대리양육자	4.6	1.43	(18)	3.99	1.84	(16)	5.90	6.37	(18)	6.23	4.87	(16)
아이돌보미	4.81	0.53	(7)	3.75	1.53	(8)	2.56	0.50	(7)	2.49	1.06	(8)
초등돌봄교실	4.83	0.69	(202)	4.72	0.95	(147)	2.96	1.34	(202)	4.59	1.97	(147)
지역아동센터	5.1	0.70	(23)	5	0.86	(25)	3.41	1.75	(23)	4.73	1.75	(25)
기타	4.28	1.31	(11)	4.5	1.15	(13)	3.67	1.27	(11)	4.05	1.92	(13)

자료: 김은설·배운진·조숙인·이예진·송신영·임준범·박은영·김신경·김은정(2016). 한국아동 성장발달 중단연구 2016(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215.

돌봄 및 양육서비스 이용 비용을 살펴보면 비혈연 대리 양육자가 학기 중

61.20만원으로 가장 금액이 높았으며 방학 중에는 67.03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 및 기타 친인척의 경우에는 학기 중에는 26.95만원, 방학 중에는 27.55만원이었으며 초등돌봄교실은 학기 중에는 2.43만원 방학 중에는 2.91만원이었다. 지역아동센터는 학기 중 1.05만원, 방학 중에는 1.20만원으로 가장 이용 비용이 낮았다.

〈표 V-1-6〉 돌봄 및 양육서비스 이용 비용

단위: 만원, (명)

구분	월평균 이용 비용					
	학기 중			방학 중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조부모 및 기타 친인척	26.95	36.77	(281)	27.55	37.65	(277)
비혈연 대리양육자	61.20	49.12	(18)	67.03	54.61	(16)
아이돌보미	12.54	15.15	(7)	8.64	10.19	(8)
초등돌봄교실	2.43	2.73	(202)	2.91	3.41	(147)
지역아동센터	1.05	2.26	(23)	1.20	2.22	(25)
기타	18.99	17.84	(11)	19.85	18.21	(13)

자료: 김은설·배운진·조숙인·이예진·송신영·임준범·박은영·김신경·김은정(2016). 한국아동 성장발달 중단연구 2016(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216.

아동이 초등학교 1학년(7세) 취학 후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은 비율은 4.1%였다. 이용하는 교과목 중 체육이 59.6%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음악 48.6%, 수학 45.9%, 한글(국어) 40.1%, 미술(그림, 공작, 서예 등) 순이었다.

〈표 V-1-7〉 이용 중인 사교육 교과목

단위: %(명)

구분	이용 안함	이용 종류(중복응답)											(수)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 국어	컴퓨터	한자	영어	기타 외국어	창의성		기타
비율	4.1	39.9	48.6	59.6	12.9	45.9	40.1	9.6	15.1	39.2	1.3	9.4	8.1	(1,598)
(수)	(63)	(628)	(768)	(947)	(216)	(736)	(654)	(155)	(237)	(619)	(24)	(156)	(129)	

자료: 김은설·배운진·조숙인·이예진·송신영·임준범·박은영·김신경·김은정(2016). 한국아동 성장발달 중단연구 2016(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217.

각 사교육의 주당 이용 시간을 살펴보면 학원이 평균 6.98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사설기관 교육 3.83시간, 인터넷, 교내 방과 후 교실 3.60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표 V-1-8〉 사교육 주당 총 이용 시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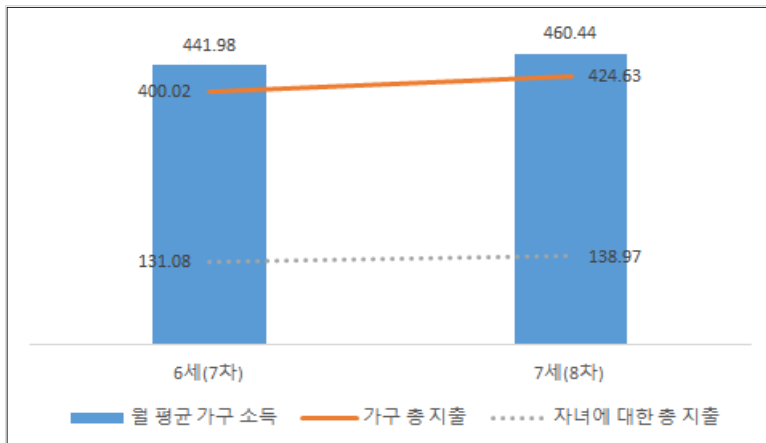
구분	일주일 총 이용시간		
	평균	표준편차	(수)
학원	6.98	3.88	(1,236)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	3.03	2.46	(245)
학습지	1.38	0.96	(630)
인터넷, 화상강의	2.86	1.51	(18)
교내 방과 후 교실	3.60	2.73	(761)
사설기관에서 하는 교육	3.83	4.22	(110)
공공기관에서 하는 교육	2.99	2.63	(70)

자료: 김은설·배운진·조숙인·이예진·송신영·임준범·박은영·김신경·김은정(2016). 한국아동 성장발달 중단연구 2016(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217.

다. 부모의 생활 변화

초등학교 입학 후(7세) 자녀로 인한 지출 총 비용이 평균 138.97만원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6세) 131.08만원보다 약 7만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아동패널에 참가한 가구의 소득과 지출이 비슷한 비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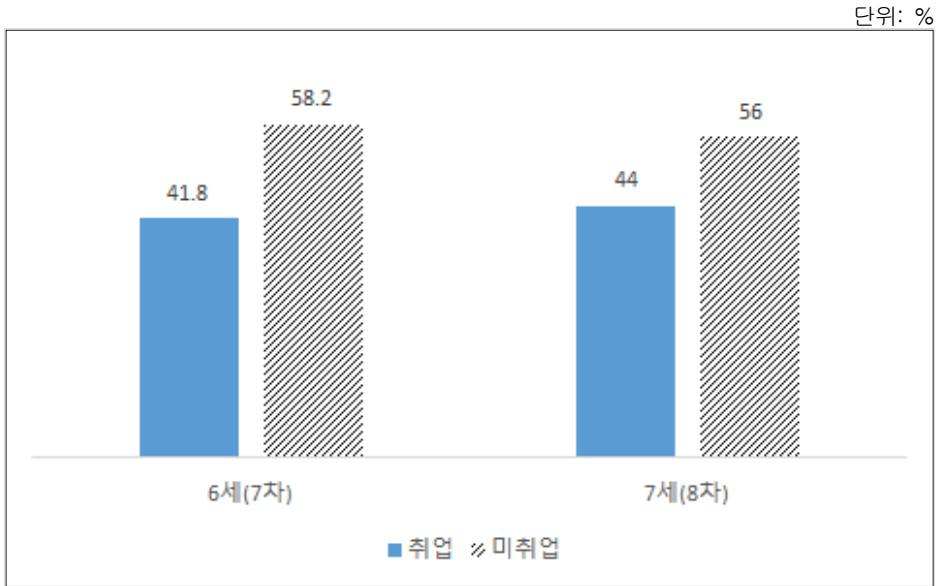
단위: 만원



자료: 김은설·배운진·조숙인·이예진·송신영·임준범·박은영·김신경·김은정(2016). 한국아동 성장발달 중단연구 2016(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271 그림에서 6,7세만 발췌

[그림 V-1-2] 월 평균 가구 소득 및 지출

아동의 초등학교 진학 후(7세) 어머니의 취업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전(6세) 41.8%였다가 초등학교 입학 후 44.0%로 취업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김은설·배윤진·조숙인·이예진·송신영·임준범·박은영·김신경·김은정(2016). 한국아동 성장발달 중단연구 2016(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263 그림에서 6,7세만 발췌

[그림 V-1-3] 어머니의 취업 여부

아동의 초등학교 진학 전(6세), 후(7세) 일자리 만족도를 살펴보면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전(6세) 3.81이었으나 초등학교 입학 후(7세) 일자리 만족도가 3.63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9> 일자리에 대한 어머니의 전반적 만족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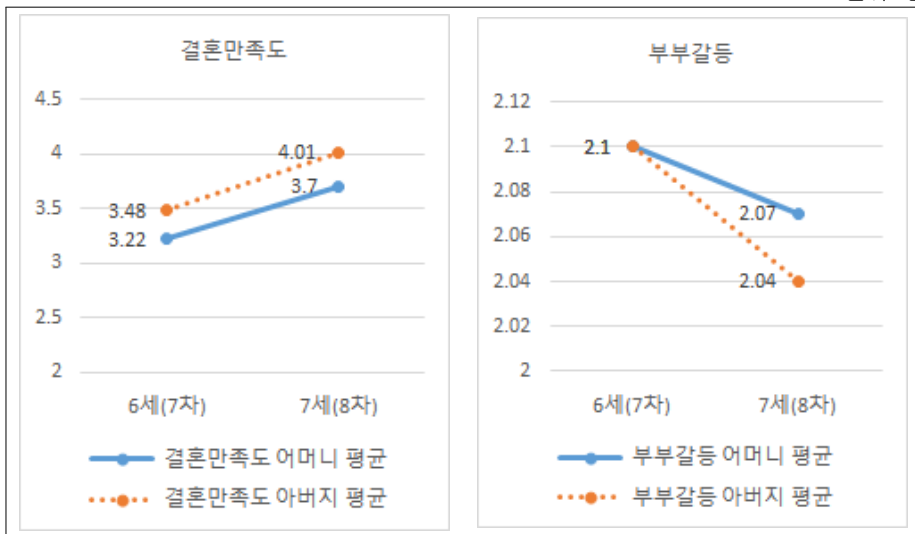
구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계(수)	평균	표준편차
6세(7차)	1.0	2.2	25.7	57.2	13.9	100.0(588)	3.81	0.73
7세(8차)	3.1	6.1	26.0	54.1	10.8	100.0(588)	3.63	0.87

자료: 김은설·배윤진·조숙인·이예진·송신영·임준범·박은영·김신경·김은정(2016). 한국아동 성장발달 중단연구 2016(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264에서 6,7세만 발췌함.

초등학교 입학 전(6세)과 후(7세)의 부모의 결혼만족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입학 전(6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3.22,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3.48이었으며,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후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3.70,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4.01로 각각 증가하였다.

초등학교 입학 전(6세)과 후(7세)의 부모의 부부 갈등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입학 전(6세) 어머니, 아버지의 부부갈등 수준은 모두 2.1이었으며 입학 후(7세)의 부부갈등 수준은 어머니 2.07, 아버지 2.04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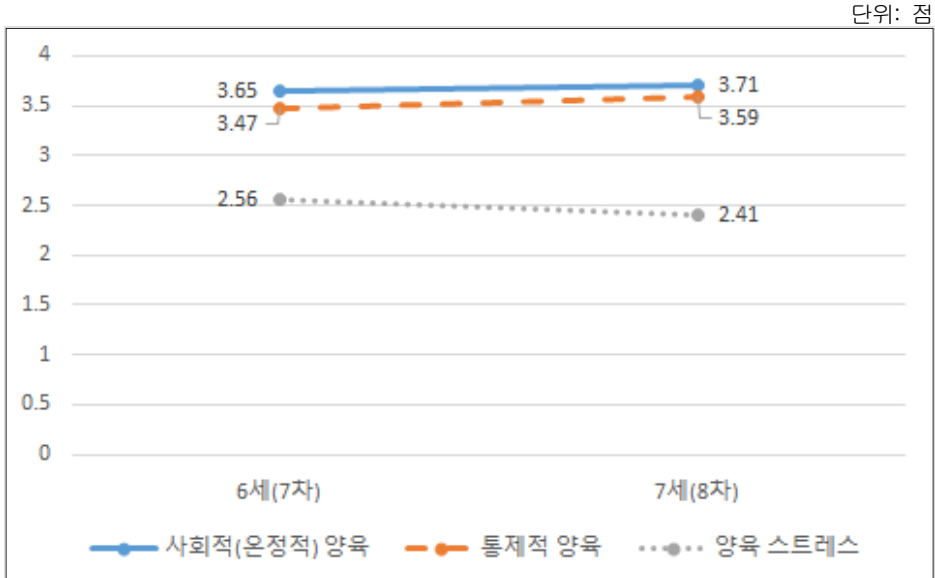


주: 1) 결혼만족도는 ①매우불만족~⑤매우만족(5점척도)으로 응답문항이 구성되어 있음.
 2) 부부갈등은 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5점척도)로 응답문항이 구성되어 있음.
 자료: 김은설·배운진·조숙인·이예진·송신영·임준범·박은영·김신경·김은정(2016).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6(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267 그림에서 6,7세만 발췌하여 구성

[그림 V-1-4] 부모의 결혼만족도 및 부부갈등

아동의 취학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 변화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6세)에 온정적 양육 3.65, 통제적 양육 3.59였다가 입학 후(7세) 온정적 양육과 통제적 양육이 각각 상승하여 3.71, 3.59로 상승하였다. 아버지 역시 입학 전(6세)에는 온정적 양육이 3.54, 통제적 양육이 3.30이었다가 입학 후(7세)

은정적, 통제적 양육 각각 3.62, 3.41로 증가하였다. 양육 스트레스 변화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 2.56이었다가 입학 2.41로 감소하였다.



자료: 김은설·배운진·조숙인·이예진·송신영·임준범·박은영·김신경·김은정(2016). 한국아동 성장발달 중단연구 2016(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269 그림에서 6,7세만 발췌하여 재구성함.

[그림 V-1-5] 어머니의 양육 행동 및 양육 스트레스

2.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이 취업모의 근로 조건에 미치는 효과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학교 정규수업이 마치는 시간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돌봐주는 시간보다 짧아지게 된다. 또한 학교에서 요구하는 교육지원활동 등이 많아지게 되어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은 취업모의 경력단절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윤자영, 2016; 중앙일보 2016년 3월 21일자⁴⁵⁾). 하지만 앞 절에 제시된 한국아동패널의 아동의 6세, 7세 시기의 어머니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45) 중앙일보(2016. 3. 21일자). 초등생 돌보려... 직장 떠난 엄마 3만 명 (검색일: 2017. 3. 3.)
<http://news.joins.com/article/19753959>

지만 한국아동패널에 참가하고 있는 가구의 어머니들의 취업상태 변화는 매년 이뤄지고 있고, 취업하고 있다고 응답한 많은 어머니들이 시간제 일자리에서 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전체 응답자에서 몇 명이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아동의 초등학교 진학이 어머니의 취업을 증가시킨다고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단순히 취업상태 뿐만 아니라,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은 초등학교 하교 시간이 유치원보다 이르다는 점, 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방과후 학교의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요구하는 교육지원활동이 유치원보다 늘어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취업모의 근로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취업모의 근로조건을 임금수준, 노동시간, 상용직 취업 가능성으로 나누어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이 취업모의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 분석 자료 및 변수

1)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에서 수집하는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 4·8차년도(2011-2015)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4차년도 이후의 데이터를 사용한 이유는 임금수준 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가 4차년도 이후부터 존재하기 때문이다. 8차년도는 아동패널조사의 대상이 되는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이다.

4·8차년도 데이터 중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응답에 참여한 케이스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아동패널 데이터의 샘플은 1차년도에 총 2150명이었으나 4·8차년도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응답에 참여한 샘플로 한정된 결과 1개년도 기준 813명의 샘플이 선정되었다(5개년도 4065 케이스).

2) 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는 아동패널의 조사대상이 되는 아동의 어머니의 근로조건이다. 근로조건 중에서도 어머니의 임금수준(로그변환), 주당 노동시간, 상용직(1년 이상 근로계약) 취업 확률을 종속변수로 하였다. 독립변수는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에 사용하였는데, 이 변수는 더미(dummy) 변수로서, 4·7차년도는

0(초등학교 입학 전), 8차년도는 1(초등학교 입학 후)로 코딩하였다. 독립변수인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배정변수(running variable)로는 아동의 나이와 나이의 제곱을 사용하였다. 이는 후술할 회귀불연속설계(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에서 처치(treatment)에 영향을 미치는 선형 및 비선형 추세(linear and non-linear trends)를 통제하기 위함이다. 그 외의 통제변수로는 어머니의 연령 및 연령의 제곱, 17개 시·도 더미(dummy), 어머니의 교육연수 및 교육연수의 제곱을 사용하였다(김현숙·성명재, 2007; 최성은, 2011; 최효미, 2013).

본 연구에서는 분석모형에서 후술할 사용한 Heckman 선택모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제제약(exclusion restriction)을 충족하는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가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선택방정식(selection equation)인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결과방정식(outcome equation)인 어머니의 임금수준 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가 요구된다. 이러한 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소득수준(로그변환)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취업모의 노동시장 참가는 배우자의 소득수준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배우자의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가계소득 감소를 메꾸기 위해 취업모가 노동시장에 참가하게 되는 것이다(Borjas, 2015:58; 김현숙·성명재, 2007:94). 노동경제학에서는 배우자의 소득수준 변화 또는 취업상태 변화가 취업모의 노동시장 참가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배우자의 미취업상태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가하게 되는 부가노동효과(added worker effect)와 반대로 배우자의 미취업상태가 여성으로 하여금 노동시장 참가가 어렵다고 인식하게 만들어 노동시장에서 퇴장하게 만드는 실망노동효과(discouraged worker effect)로 구분할 수 있다(박진희, 2009:44).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고소득 국가의 경우 실망노동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국가의 경우 부가노동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진희, 2009, pp.44).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동패널 데이터에서는 남편의 소득수준 변화와 취업모의 노동시장 참가는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데이터에서 배우자의 소득수준이 취업모의 노동시장 참가에 미치는 영향은 부가노동효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취업모의 임금수준을 결정할 때 배우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의 소득수준은 취업모의 취업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임금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배우자의 소득수준은 취업모의 임금방정식에 대한 도구 변수로 사용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배우자의 소득수준은 가계소득에서 어머니의 소득을 차감한 후 자연로그로 변환하여 구성하였다.

3) 균형패널과 불균형패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동패널데이터에서 응답한 취업모 중에서 5개년도 전체 4065 케이스 중 결측치를 제외하고 노동시장에 참가한다고 응답한 케이스는 2419 케이스이고,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케이스는 1593 케이스이다. 이런 점에서 전체 응답 케이스의 과반수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전업주부로 활동한다고 응답하였다. 노동시장에 참가한다고 응답한 취업모의 경우에도 5개년도 모두 참가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소수이고 대다수는 5개년도 중에서 일부 연도에만 노동시장에 참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데이터는 불균형패널(unbalanced panel)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5개년도 모두 노동시장에 참가한 취업모를 선별하여 균형패널(balanced panel)을 구성하여 분석에 추가하였다. 균형 패널을 구성하여 분석에 추가한 이유는 본 연구의 주제가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이 취업모의 경력단절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은 어머니의 노동시장 참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초등학교 하교 이후 아동의 사교육 비용을 벌기 위해서 전업주부로 활동하는 어머니가 시간제 일자리에 참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전업주부로 활동하는 취업모보다 여러 연도에 걸쳐서 계속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취업모의 경력단절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취지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균형패널을 구성하여 분석에 추가하였다. 그러나 균형패널은 5개년도 모두 노동시장에 참가한 특정한 취업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이므로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불균형패널 데이터를 대상으로 Heckman 선택모형을 사용하여 표본선택편의를 통제하고 분석한 결과도 제시하여 균형패널 데이터 분석결과와 비교하였다.

불균형패널 데이터에 포함된 케이스는 5개년도 4065 케이스이고, 균형패널 데이터에 포함된 케이스는 5개년도 350 케이스이다. 분석을 할 때는 아동패널 데이터가 종단 데이터라는 점을 고려하여 데이터에 포함된 종단가중치(longitudinal weight)를 부여하였다.

균형패널 데이터를 분석할 때에는 회귀불연속설계와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였고, 불균형패널 데이터를 분석할 때에는 회귀불연속설계에 Heckman 선택모형을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다. 분석모형

1) 회귀불연속설계(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RDD)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모형은 균형패널과 불균형패널 모두 회귀불연속설계(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에 기반을 두고 있다. 회귀불연속설계는 배정변수(running)의 변화에 따라 처치(treatment)가 이루어지는 단절점(cutoff)을 기준으로 직전과 직후를 비교함으로써 처치효과(treatment effect)를 분석하는 방법이다(Angrist & Pischke, 2009; Angrist & Pischke, 2014; Oreopoulos, 2006; 강창희 외, 2013; 윤윤규 외, 2012). 회귀불연속설계는 처치가 이루어지는 배정변수의 단절점에서의 불연속(discontinuity)적인 변화를 식별(identification)의 원천으로 본다. 단절점 주변에서는 무작위 배정(random assignment)이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내생성(endogeneity)이 통제된다고 가정한다.

회귀불연속설계는 모수적 방법(parametric method)과 비모수적 방법(non-parametric method)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중에서 모수적 방법은 OLS 모형에서 처치(treatment)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와 처치를 결정하는 배정변수(running variable)를 식에 포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처치변수(treatment variable)는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이 되고, 배정변수는 아동의 연령이 될 것이다. 배정변수는 성과변수에 미치는 선형 및 비선형의 추세적 변동을 통제하기 위해 다항식(polynomials)으로 구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성하였다.

$$Y_{it} = B_0 + B_1D_{it} + B_2A_{it} + B_2A_{it}^2 + X_{it} + U_{it} \quad (1)$$

D_{it}: 아동 초등학교 입학(4·7차년도=0, 8차년도=1로 코딩)

A_{it}: 아동의 연령

X_{it}: 통제변수

U_{it}: 오차항

회귀불연속설계 중에서 비모수적 방법은 처치가 일어나는 단절점 주변의 일

정 구간(boundary) 안의 샘플을 대상으로 국지적 선형회귀분석(local linear regression)을 함으로써 처치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단절점 주변에서 일정한 대역폭(bandwidth)을 설정하여 그 구간 안의 샘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방법인데, 그 구간 안의 샘플은 처치 이외의 다른 특성(characteristics)은 유사하다고 가정하는 것이다(Angrist & Pischke, 2009; Angrist & Pischke, 2014; Carpenter & Dobkin, 2011; Carpenter & Dobkin, 2009; 강창희 외, 2013; 윤윤규 외, 2012).

회귀불연속설계에서 모수적 방법과 비모수적 방법을 비교하자면, 모수적 방법은 구간을 설정하지 않고 모든 샘플을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정보(information)를 많이 사용할 수 있어 분산(variance)을 줄일 수 있는 반면, 비모수적 방법은 단절점(cutoff) 주변의 일정 구간의 샘플만을 사용하므로 내생성(endogeneity) 통제에 더 유리하지만 줄어든 샘플로 인해 데이터의 정보(information)를 덜 사용하게 되므로 분산(variance)이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Angrist & Pischke, 2009; Angrist & Pischke, 2014; Jacob & Zhu, 2012).

본 연구에서는 회귀불연속설계에서 모수적 방법과 비모수적 방법을 모두 사용하였으며, 모수적 방법에서는 배정변수인 아동의 연령은 2차 다항식(quadratic polynomials)을 사용하였고, 비모수적 방법은 STATA program의 rd command를 사용하였다.

모수적 방법에서 다항식의 차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Lee & Lemieux(2010)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의 값이 가장 작은 다항식을 선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는데(Lee & Lemieux, 2010:326; Clark & Martorell, 2014:293) 본 연구에서도 AIC의 값이 가장 작은 다항식을 선택하여 2차 다항식을 사용하였다. 다만, 균형패널의 경우, 종속변수 중에서 취업모의 노동시간은 1차 다항식이 가장 AIC의 값이 작아서 이 경우에만 1차 다항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균형패널의 분석에서 회귀불연속설계 분석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검증하기 위해 위 식(1)에서 변수의 평균값(mean)을 차감하는 패널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였다. 패널 고정효과모형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체의 특성(time-invariant characteristics)을 모형에서 제거함으로써 시간불변변수가 성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는 방법이다.

2) Heckman 선택모형(Heckman Selection Model)

본 연구에서는 불균형패널을 분석하기 위해서 회귀불연속설계에 추가하여 Heckman(1979) 및 Heckman(1976) 등에서 제시된 Heckman 선택모형을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Heckman 선택모형은 독립변수와 오차항이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는 내생성(endogeneity)을 야기하는 요인을 방정식에서 통제함으로써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를 통제하는 통제함수접근법(control function approach)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한치록, 2016:353; 우석진, 2016:147). 이 모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노동공급함수를 아래와 같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Y = X\beta + U$$

$$E(U | X) = 0$$

여기서 β 를 편의(bias) 없이 추정하기 위해서는 모분포로부터 임의적으로 추출된 표본을 관측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공급함수에 있어서는 자기선택(self-selection)에 의해서 특별한 특성을 가진 여성들을 노동시장에서 관측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우석진, 2016:145).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결정은 다음과 같은 모형에 의해 정해진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S = 1\{Z\gamma + V > 0\}$$

다시 말해서, $Z\gamma + V$ 가 0보다 큰 경우 여성이 노동 시장에서 관측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노동시장에서 관측되지 않는, 전업주부로서 전일제 가사노동에 참가하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Heckman 선택모형은 이와 같은 표본선택편의(sample-selection bias)를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된다(우석진, 2016:146).

Heckman 선택모형에서는 Z 는 외생성(exogeneity) 특히 배제제약(exclusion restriction)을 만족시킨다고 가정한다. 다시 말해 Z 는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라고 할 수 있다.

$$E(U | X, Z)=0$$

이 모형에서는 선택방정식(selection equation)의 비관측요소 V와 결과방정식의 비관측요소 U가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2변량 정규분포(bivariate normal distribution)를 갖는다고 가정한다(한치록, 2017:299).

U와 V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경우, V가 큰 경제주체가 자기선택(self-selection)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U도 커지기 때문에 Y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성과변수 Y가 높은 것은 처치변수의 계수 β 에 의해서가 아니라, 결과방정식의 오차항 U가 큰 값을 가지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표본선택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추정하게 될 경우 β 가 과대추정(overestimate)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우석진, 2016:146).

Heckman 선택모형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추정식이 $Y_i = X_i\beta + U_i$ 이고 $Z_i = (X_i, z_i)$ 라 가정해 본다. 표본선택 방정식이 $S_i = I(Z_i\gamma + V_i > 0)$ 일 때, $E(Y_i | Z_i, S_i=1) = X_i\beta + E(U_i | Z_i, S_i=1)$ 인데, Z_i 가 (U_i, V_i) 와 독립이라는 가정과 (U_i, V_i) 가 2변량 정규분포를 갖는다는 가정을 하면 $E(U_i | Z_i, S_i=1) = E(U_i | V_i > -Z_i\gamma) = \rho\sigma\lambda(Z_i\gamma)$ 임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ρ 는 U_i 와 V_i 의 상관계수이고, σ 는 U_i 의 표준편차이다(한치록, 2016:406). $\lambda(\cdot)$ 는 역밀수비율(inverse Mills ratio, IMR)이 된다. $\phi(Z)$ 와 $\Phi(Z)$ 를 각각 표준정규분포의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 및 누적확률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라 할 때 $\lambda(Z) = \phi(Z)/\Phi(Z)$ 이 된다. 그러므로 선택방정식(selection equation)에서 γ 를 프로빗(probit)으로 추정하여 $\hat{\gamma}$ 를 구하고 난 후 각 관측치별로 $\lambda(Z_i\hat{\gamma})$ 을 계산하여 변수 $\hat{\gamma}$ 에 대하여 OLS를 추정할 수 있다. 이는 편의(bias)을 야기하는 항을 선택방정식으로부터 추정하여 역밀스비율(inverse Mills ratio, IMR)를 구하고, IMR항을 우변에 추가하여 통제함으로써 편의(bias)를 교정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한치록, 2017:299-300).

여기서 Z는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라고 할 수 있는데, 도구변수가 되기 위해서는 적절성(relevance), 외생성(exogeneity), 배제제약(exclusion restriction)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Gujarati, 2011:376-377). 다시 말해서, 도구변수는 오차항과 상관관계가 없으며, 처치변수(treatment variable)와 유의미한 상관관이 있어야 한다. 배제제약(exclusion restriction)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결과방정식(outcome equation)에서 배제되어 있는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s)가 도

구변수로서 선택방정식(selection equation)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결과 방정식에서 배제되어 있는 이 도구변수는 선택의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결과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선택의 확률에는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를 찾아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연구자는 배제제약이 성립함을 입증하는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Cameron & Trivedi, 2010:743).

그러나 배제제약을 충족하는 도구변수를 데이터에서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Heckman 선택모형에서 계수의 식별(identification)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방정식과 결과방정식의 변수가 동일한 경우에도 식별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모형의 식별(identification)이 선택방정식에서 나타나는 함수 형태의 비선형성(non-linearity)에만 의존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선택방정식이 비선형(non-linear)이고 결과방정식이 선형(linear)이기 때문에 선형 결과방정식에는 선택방정식에 포함되어 있는 비선형의 변수들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택방정식의 비선형성은 자동적으로 배제 제약(exclusion restriction)을 형성한다. 그러나 선택방정식을 추정하는 프로빗(probit) 모형이 함축하고 있는 비선형성이 무시할만한 정도인 경우 식별은 취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실증분석에서는 배제제약을 충족하는 도구변수를 찾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Cameron & Trivedi, 2010: 739-740).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소득수준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배우자의 소득수준은 취업모의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도구변수의 배제제약(exclusion restriction)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 종속변수인 취업모의 노동시간이나 상용직 취업 확률에 대해서는 배제제약을 충족한다는 이론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임금수준을 제외한 다른 종속변수인 노동시간 및 상용직 취업 확률에 대해서는 선택방정식의 비선형성에 의존하여 식별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노동시간 및 상용직 취업 확률을 종속변수로 사용할 시에는 Heckman 선택모형의 식별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3)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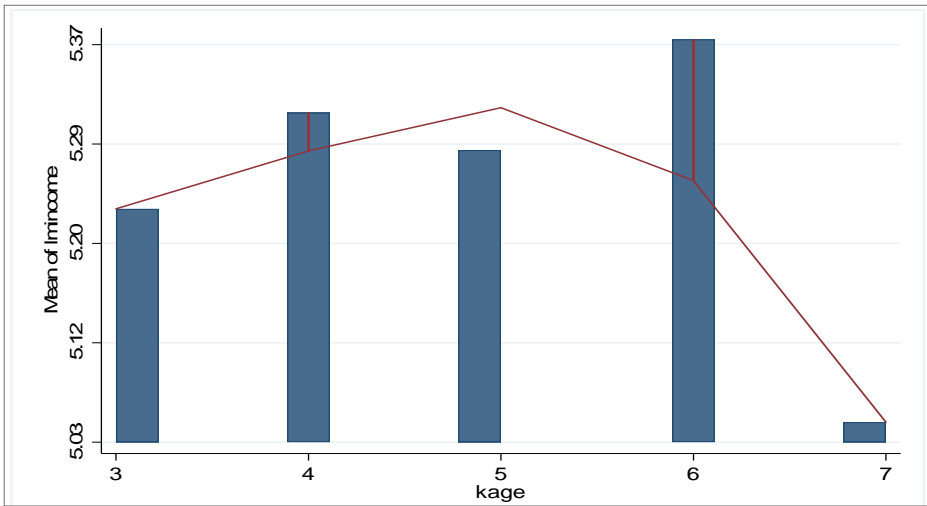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결과변수 중 취업모의 상용직 취업 여부는 더미(dummy) 변수이다. 종속변수가 더미변수인 경우 로짓(logit)이나 프로빗(probit) 모형을 사

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본 연구에서는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을 사용하였다. 그 이유로는 본 연구의 관심사가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이 취업모의 상용직 취업 여부에 미치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s)에 있기 때문이다. 설명변수의 한계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평균값에서 추정된 logit 또는 probit 모형의 한계효과와 선형확률모형의 한계효과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송헌재·신우리, 2017:50). 만일 다른 요인들을 통제할 때 설명변수를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종속변수가 1이 될 확률이 평균적으로 변화하는 정도(한계효과)를 대략적으로 알고자 한다면 선형확률모형을 사용하여 OLS로 그 계수를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선형확률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가 로짓이나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와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한치록, 2016:367; Wooldridge, 2013:251). 본 연구에서도 사전분석에서 로짓과 프로빗 모형으로 분석하고 한계효과로 변환한 결과와 선형확률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를 비교해 보았으나 결과들이 유사하게 나와서 선형확률모형의 결과만 제시하였다. 선형확률모형의 경우 회귀불연속설계 및 Heckman 선택모형과 같이 사용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선형확률모형을 사용하였다.

라.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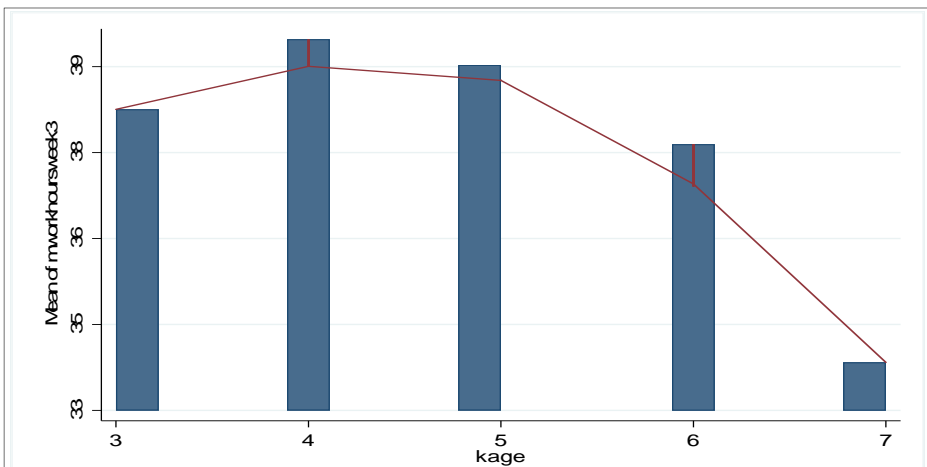
1) 연도에 따른 취업모의 근로 조건 변화

2011-2015년의 5개 연도에 걸쳐 계속 취업하고 있는 취업모의 근로조건 변화를 그림으로 살펴보았다. 다시 말해서 균형패널(balanced panel)에서 취업모의 근로조건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세로축은 종속변수인 취업모의 임금수준, 노동시간, 상용직 취업확률을 의미하고, 가로축은 아동의 연령을 의미한다. 그림 1,2,3을 보면 임금수준, 노동시간, 상용직 취업확률에 있어서 모두 아동이 초등학교가 입학하는 연령인 7세(8차 데이터, 2015년)에서 급감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은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이 취업모의 근로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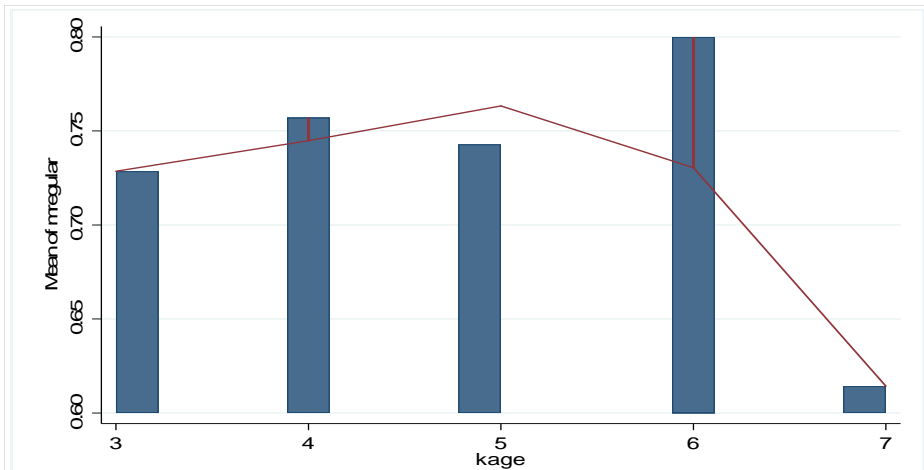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의 결과임.

[그림 V-2-1] 아동의 연령에 따른 취업모의 임금수준 변화



자료: 본 연구의 결과임.

[그림 V-2-2] 아동의 연령에 따른 취업모의 근로시간 변화



자료: 본 연구의 결과임.

[그림 V-2-3] 아동의 연령에 따른 취업모의 상용직 취업확률 변화

2)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이 취업모의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균형패널)

균형패널에서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은 취업모의 임금수준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수 RDD, 비모수 RDD, 패널고정효과 모형에서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V-2-1>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이 취업모의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균형패널)

	아동 초등학교 입학	R^2
모수 RDD	-.534** (.14)	.273
비모수 RDD	-.467** (.13)	
패널고정효과 모형	-.569** (.124)	

주: ()안은 표준오차

** $p < .01$

균형패널에서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은 취업모의 노동시간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수 RDD, 비모수 RDD, 패널고정효과모형에서 모두 주당 평균노동시간을 약 7시간 정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V-2-2〉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이 취업모의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균형패널)

	아동 초등학교 입학	R^2
모수 RDD	-6.881 ^{**} (2.209)	.206
비모수 RDD	-6.171 [*] (2.497)	
패널고정효과 모형	-7.239 ^{**} (2.047)	.176

주. ()안은 표준오차

* $p < .05$, ** $p < .01$

균형패널에서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은 취업모의 상용직 취업확률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수 RDD, 비모수 RDD, 패널고정효과모형에서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은 취업모의 상용직 취업확률을 약 20% 정도를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V-2-3〉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이 취업모의 상용직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균형패널)

	아동 초등학교 입학	R^2
모수 RDD	-.208 [†] (.107)	.303
비모수 RDD	-.247 [*] (.108)	
패널고정효과 모형	-.237 [*] (.114)	.153

주: ()안은 표준오차

[†] $p < .1$, * $p < .05$

3)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이 취업모의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불균형패널)

불균형패널에서 Heckman 선택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은 취업모의 임금수준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 그러나 감소 수준은 균형패널보다 훨씬 적은 수준인데, 그 이유는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를 통제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5개년도 모두 노동시장에 참가한 어머니의 경우에 부분적으로 참가하는 어머니보다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이 임금수준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결과방정식의 오차항 U와 선택방정식의 오차항 V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Rho와 역밀스비율(inverse Mills ratio)을 나타내는 lambda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Heckman 선택모형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4〉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이 취업모의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불균형패널)

	Heckman 선택모형
아동 초등학교 입학(2단계: 임금수준)	-.29 [*] (.134)
아동 초등학교 입학(1단계: 취업여부)	.231 [†] (.129)
배우자 소득(1단계: 취업여부)	-.233 ^{**} (.059)
Rho	-.948 ^{**} (.018)
Mill's lambda	-.97 ^{**} (.085)

주: ()안은 표준오차

[†] $p < .1$, ^{*} $p < .05$, ^{**} $p < .01$

그러나 불균형패널에서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이 취업모의 주당 노동시간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약 1.9시간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균형패널 분석 결과인 약 7시간 감소보다 훨씬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본선택편의를 통제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노동시간 응답에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결과방정식의 오차항 U와 선택방정식의 오차항 V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Rho와 역밀스비율(inverse Mills ratio)을 나타내는 lambda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Heckman 선택모형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가 취업모의 주당 노동시간일 때 Heckman 선택모형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종속변수가 취업모의 임금수준일 때 배우자의 소득 수준이라는 도구변수를 사용한 것에 비해 종속변수가 취업모의 주당 노동시간일 때는 적절한 도구변수를 사용하지 못하고 선택방정식의 비선형에 의존하여 식별을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불균형패널에서 종속변수가 취업모의 주당 노동시간일 때 Heckman 선택모형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균형패널과 마찬가지로 모수 RDD, 비모수 RDD, 패널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를 추가하였다. 모수 RDD와 비모수 RDD 모두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패널고정효과모형에서는 결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7차년도와 8차년도 사이에 취업모의 시간불변특성들에 차이가 존재하고 노동시간이 이러한 시간불변특성들의 차이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패널고정효과모형의 결과도 균형패널의 분석결과와 비교하면 아동 초등학교 입학으로 줄어드는 취업모의 노동시간은 작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불균형패널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전업주부였다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후 사교육 비용 마련 등의 이유

로 시간제 일자리 등에 취업하는 사례들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V-2-5〉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이 취업모의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불균형패널)

	Heckman 선택모형
아동 초등학교 입학(2단계: 노동시간)	-1.896 [†] (1.144)
아동 초등학교 입학(1단계: 취업여부)	.008(.089)
Rho	-.017(.039)
Mill's lambda	-.173(.398)
	모수 RDD
아동 초등학교 입학	-1.894(1.155)
	비모수 RDD
아동 초등학교 입학	-1.386(1.209)
	패널고정효과모형
아동 초등학교 입학	-2.83 [†] (1.606)

주. ()안은 표준오차

[†] $p < .1$

불균형패널에서 Heckman 선택모형의 결과는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이 취업모의 상용직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과방정식의 오차항 U와 선택방정식의 오차항 V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Rho와 역밀스비율(inverse Mills ratio)을 나타내는 lambda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 분석에서 Heckman 선택모형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가 취업모의 상용직 취업확률일 때 Heckman 선택모형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종속변수가 취업모의 임금수준일 때 배우자의 소득수준이라는 도구변수를 사용한 것에 비해 종속변수가 취업모의 상용직 취업확률일 때는 적절한 도구변수를 사용하지 못하고 선택방정식의 비선형에 의존하여 식별을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불균형 패널에서 종속변수가 취업모의 상용직 취업확률일 때 Heckman 선택모형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균형패널과 마찬가지로 모수 RDD, 비모수 RDD, 패널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를 추가하였다. 모수 RDD, 비모수 RDD, 패널고정효과모형 모두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 취업모의 상용직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균형패널과 불균형패널 간에 차이가 크게 나타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V-2-6〉 아동 초등학교 입학이 취업모의 상용직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불균형패널)

Heckman 선택모형	
아동 초등학교 입학(2단계: 상용직 취업확률)	-.091(.072)
아동 초등학교 입학(1단계: 취업여부)	.213* (.126)
Rho	.044(.041)
Mill's lambda	.02(.019)
모수 RDD	
아동 초등학교 입학	-.002(.049)
비모수 RDD	
아동 초등학교 입학	-.012(.054)
패널고정효과모형	
아동 초등학교 입학	-.073(.077)

주. ()안은 표준오차

* $p < .1$

추가적으로 프로빗 분석을 통해 불균형패널에서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이 어머니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은 어머니의 취업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으로 인해 늘어난 사교육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시간제 일 자리에 진입하는 전업주부들을 반영하는 결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표 V-2-7〉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이 기혼여성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불균형패널)

Probit 모형	
아동 초등학교 입학	.171(.13)
pseudo R^2	.068

주: 1) ()안은 표준오차

2) 제시된 값은 한계효과(marginal effects)로 변환한 값

3. 어머니의 취업과 일-양육 갈등이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효과

본 절에서는 어머니의 취업과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후 학교 적응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단순히 교육과정의 변화뿐만 아니라 아동의 가정 및 학교 생활 변화까지 수반된다. 이리

한 과정에서 부모의 학교준비도와 학습준비도는 아동에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창복·이신영, 2013).

하지만 어머니의 취업은 이러한 아동의 지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을 부족하게 만든다. 이러한 절대적인 시간 부족으로 인해 학교 적응에 지원활동과 관심이 적어지게 되고 이것이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앞 절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어머니들은 아동의 초등학교 진학으로 인한 교육지원 및 돌봄으로 인해 노동시간을 줄이기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초등학교에 대한 적응과 돌봄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우려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어머니가 실제 취업한 상태에서 직장에 다니는 것, 취업한 상태에서 일-양육갈등을 느끼는 수준이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가. 분석 방법 및 변수

분석은 초등학교 입학 후 한국아동패널 8차 자료를 활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분석은 어머니의 직장재직여부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였다. 한국아동패널 전체 응답 중 무응답 표본을 제외한 1,031 가구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어머니의 직장 재직 여부였으며, '0', '1'로 더미 코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정도(1문항, 교사 응답), 부모의 학업관심도(1문항, 교사 응답), 모-자녀 상호작용(11문항, 어머니 응답)⁴⁶⁾을 어머니의 직장 재직여부와 아동의 학교 적응과의 관계에서 매개할 가능성이 있는 변수로 선정하여 매개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 변수인 아동의 학교 적응은 지성애·정대현(2006)이 개발한 척도로 35개 문항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크게 학교생활적응(11문항), 학업수행적응(11문항), 또래적응(8문항), 교사적응(5문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하위 종속변수 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분석은 무응답 표본을 제외한 맞벌이 가구($n=381$)를 대상으로 분석

46)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Kindergarten Cohort(ECLS-K)의 Home Environment, Activities, And Cognitive Stimulation(HEQ)중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질문하는 일부 문항을 번역하여 재구성한 문항임

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분석 주제는 일-양육갈등이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효과였다. 독립변수는 Marshall과 Barnett(1993)이 개발한 일-가정양립시 이점과 갈등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응답한 일-양육갈등(6문항)만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두 번째의 분석 역시, 부모의 학교 생활 관심정도, 부모의 학업관심도, 모-자녀상호작용을 매개변수도 투입하여 분석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아버지의 일-양육 갈등이 독립변수에 추가되어 부-자녀 상호작용(11문항)을 매개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 역시 지성애·정대현(2006)이 개발한 학교 적응이었다.

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 제안한 방식을 활용하였다. 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 관계의 유의성,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관계의 유의성,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와의 관계의 유의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매개변수를 통제한 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가 유의하면 부분매개,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석에는 아동 성별, 가구소득, 형제자매 수는 통제 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나. 어머니의 직장 재직 여부가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효과

어머니의 직장 재직여부가 학교 생활 관심, 학업관심도, 모-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직장 재직이 학교 생활 관심($\beta = -.148, p < .001$)과 모-자녀 상호작용($\beta = -.056, p < .05$)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1〉 어머니의 직장 재직 여부가 학교 생활 관심, 학업관심도, 모-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학교 생활 관심		학업관심도		모-자녀 상호작용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1단계						
아동성별	0.035	0.031	.055	.056	-0.000	-0.000
가구소득	0.021	0.052	.039	.036	0.036	0.049
형제자매 수	-0.171***	-0.176***	-.039	-.038	-0.116***	-0.118
2단계						
모 재직 여부		-0.148***		.012		-0.056*

* $p < .05$, ** $p < .01$, *** $p < .001$

아동의 성별, 가구소득, 형제자매 수를 통제 한 후 학교 생활 적응을 예측하는 회귀모델에서 모 재직여부를 투입한 결과, 어머니가 직장에 재직 중일 경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79, p < .05$). 또한, 학교생활관심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48, p < .001$). 또한 매개변수인 학교생활관심, 학업관심도, 모-자녀 상호작용을 투입하였을 때 모 재직여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beta = -.043, p > .05$) 모의 재직여부는 학교생활관심에 매개하여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모형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2〉 모 재직 여부 및 학교생활관심, 학업관심도, 모자녀 상호작용이 아동의 학교 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학교생활적응		
	모형1	모형2	모형3
1단계			
아동성별	.245 ^{***}	.242 ^{***}	.237 ^{***}
가구소득	.024	.040	.029
형제자매 수	.044	.041	.080
2단계			
모 재직 여부		-.079 [*]	-.043
3단계			
학교생활관심			.248 ^{***}
학업관심도			-.025
모 자녀 상호작용			-.019

* $p < .05$, ** $p < .01$, *** $p < .001$

아동의 성별, 가구소득, 형제자매 수를 통제 한 후 아동의 학업수행 적응을 예측하는 회귀모델에서 모 재직여부를 투입한 결과, 어머니가 직장에 재직 중일 경우 학업수행적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093, p < .01$). 또한, 학교생활관심이 높을수록 학업수행 적응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327, p < .001$). 또한 매개변수인 학교생활관심, 학업관심도, 모-자녀 상호작용을 투입하였을 때 모 재직여부가 학업수행 적응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beta = -.041, p > .05$) 모의 재직여부는 학교생활관심에 매개하여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모형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3〉 모 재직 여부 및 학교생활관심, 학업관심도, 모-자녀 상호작용이 아동의 학업수행 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학업수행 적응		
	모형1	모형2	모형3
1단계			
아동성별	.157 ^{***}	.154 ^{***}	.143 ^{***}
가구소득	.048	.067 [*]	.050
형제자매 수	-.084	-.087 ^{**}	-.027
2단계			
모 재직 여부		-.093 ^{**}	-.041
3단계			
학교생활관심			.327 ^{***}
학업관심도			.009
모 자녀 상호작용			.032

* $p < .05$, ** $p < .01$, *** $p < .001$

아동의 성별, 가구소득, 형제자매 수를 통제 한 후 아동의 학업수행 적응을 예측하는 회귀모델에서 모 재직여부를 투입한 결과, 어머니가 직장에 재직 중일 경우 또래관계 적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063$, $p < .05$). 또한, 학교생활관심이 높을수록 또래관계 적응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91$, $p < .001$). 또한 매개변수인 학교생활관심, 학업관심도, 모-자녀 상호작용을 투입하였을 때 모 재직여부가 학업수행 적응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beta = -.016$, $p > .05$) 모의 재직여부는 학교생활관심에 매개하여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모형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4〉 모 재직 여부 및 학교생활관심, 학업관심도, 모-자녀 상호작용이 아동의 또래 관계 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또래관계 적응		
	모형1	모형2	모형3
1단계			
아동성별	.222 ^{***}	.220 ^{***}	.211 ^{***}
가구소득	.037	.050	.034
형제자매 수	-.026	-.028	.026
2단계			
모 재직 여부		-.063 [*]	-.016
3단계			
학교생활관심			.291 ^{***}
학업관심도			-.005
모 자녀 상호작용			.035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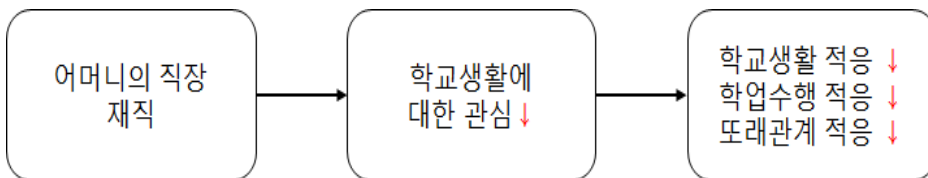
아동의 성별, 가구소득, 형제자매 수를 통제 한 후 아동의 학업수행 적응을 예측하는 회귀모델에서 모 재직여부를 투입한 결과, 어머니의 재직여부는 교사에 대한 적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01, p > .05$). 하지만 학교생활관심이 높을수록 교사에 대한 적응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54, p < .001$).

〈표 V-3-5〉 모 재직 여부 및 학교생활관심, 학업관심도, 모-자녀 상호작용이 아동의 교사 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교사 적응		
	모형1	모형2	모형3
1단계			
아동성별	.022	.022	.018
가구소득	.072*	.072*	.063*
형제자매 수	-.030	-.030	.003
2단계			
모 재직 여부		.001	.028
3단계			
학교생활관심			.154**
학업관심도			-.012
모 자녀 상호작용			.054

* $p < .05$, ** $p < .01$, *** $p < .001$

분석결과에 대한 요약을 [그림 V-3-1]에 제시하였다. 제시된 것과 같이 어머니의 직장 재직은 자녀에 대한 학교 생활에 대한 관심저하로 이어지고 이것이 학교 생활 적응, 학업수행 적응, 또래 관계 적응 등 아동의 학교 적응의 전반적인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연구진이 도식화함.

[그림 V-3-1] 어머니의 직장 재직이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효과 경로

다. 일-양육갈등이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효과 분석 결과

부모의 일-양육 갈등이 학교 생활 관심, 학업관심도,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일-양육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 생활관심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47, p < .01$). 이러한 결과는 부의 일-양육갈등이 학교 생활 관심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beta = -.071, p > .05$)과 대비된다. 하지만 어머니의 일-양육갈등은 모-자녀 상호작용($\beta = -.140, p < .01$)에, 아버지의 일-양육갈등은 부-자녀상호작용($\beta = -.124, p < .05$)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6〉 부모의 일-양육 갈등이 학교 생활 관심, 학업관심도, 모-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학교 생활 관심		학업관심도		모-자녀 상호작용		부-자녀 상호작용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1단계								
아동성별	.114*	.119*	.048	.047	.060	.065	.044	.050
가구소득	-.001	-.013	.048	.049	.000	-.012	.036	.025
형제자매 수	-.154**	-.161***	-.086	-.089	-.150**	-.157**	-.009	-.013
2단계								
모 일양육갈등		-.147**		-.082		-.140**		-.062
부 일양육갈등		-.071		.063		-.084		-.124*

* $p < .05$, ** $p < .01$, *** $p < .001$

아동의 성별, 가구소득, 형제자매 수를 통제 한 후 아동의 학교 생활 적응을 예측하는 회귀모델에서 부모의 일-양육갈등을 투입한 결과, 어머니의 일-양육갈등만 학교생활적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02, p < .05$). 또한, 학교생활관심이 높을수록 학교 생활 적응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52, p < .001$). 또한 매개변수인 학교생활관심, 학업관심도,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투입하였을 때 모 재직여부가 학업수행 적응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beta = -.060, p > .05$) 어머니의 일-양육갈등은 학교 생활 관심을 매개하여 학교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모형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7〉 부모의 일-양육 갈등 및 학교생활관심, 학업관심도, 모(부)-자녀 상호작용이 아동의 학교 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학교 생활 적응		
	모형1	모형2	모형3
1단계			
아동성별	.315 ^{***}	.314 ^{***}	.283 ^{***}
가구소득	-.039	-.040	-.035
형제자매 수	.014	.010	.060
2단계			
모 일-양육갈등		-.102 [*]	-.060
부 일-양육갈등		.060	.069
3단계			
학교생활관심			.252 ^{***}
학업관심도			.028
모-자녀 상호작용			.053
부-자녀 상호작용			-.085

* $p < .05$, ** $p < .01$, *** $p < .001$

아동의 성별, 가구소득, 형제자매 수를 통제 한 후 아동의 학교 생활 적응을 예측하는 회귀모델에서 부모의 일-양육갈등을 투입한 결과, 어머니의 일-양육갈등($\beta = -0.056$, $p > .05$)과 아버지의 일-양육갈등($\beta = -0.057$, $p > .05$) 모두 학업수행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 생활 관심이 높을수록 학업수행 적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61$, $p < .001$).

〈표 V-3-8〉 일-양육 갈등 및 학교생활관심, 학업관심도, 모(부)-자녀 상호작용이 아동의 학업수행 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학업수행 적응		
	모형1	모형2	모형3
1단계			
아동성별	.213 ^{***}	.216 ^{***}	.172 ^{***}
가구소득	.053	.046	.050
형제자매 수	-.077	-.080	-.012
2단계			
모 일-양육갈등		-.056	.002
부 일-양육갈등		-.057	-.043
3단계			
학교생활관심			.361 ^{***}
학업관심도			.065
모-자녀 상호작용			.035
부-자녀 상호작용			-.090

*** $p < .001$

아동의 성별, 가구소득, 형제자매 수를 통제 한 후 아동의 학교 생활 적응을 예측하는 회귀모델에서 부모의 일-양육갈등을 투입한 결과, 어머니의 일-양육갈등만 또래관계 적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096, p < .06$). 또한, 학교생활관심이 높을수록 학교 생활 적응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16, p < .001$). 매개변수인 학교생활관심, 학업관심도,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투입하였을 때 어머니의 일-양육갈등이 학업수행 적응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beta = -.042, p > .05$) 어머니의 일-양육갈등은 학교 생활관심을 매개하여 학교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모형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9〉 일-양육 갈등 및 학교생활관심, 학업관심도, 모(부)-자녀 상호작용이 아동의 또래관계 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또래관계 적응		
	모형1	모형2	모형3
1단계			
아동성별	.296***	.297***	.256***
가구소득	.033	.029	.031
형제자매 수	-.057	-.061	.001
2단계			
모 일-양육갈등		-.096 [†]	-.042
부 일-양육갈등		.012	.025
3단계			
학교생활관심			.316***
학업관심도			.074
모-자녀 상호작용			.036
부-자녀 상호작용			-.059

† $p < .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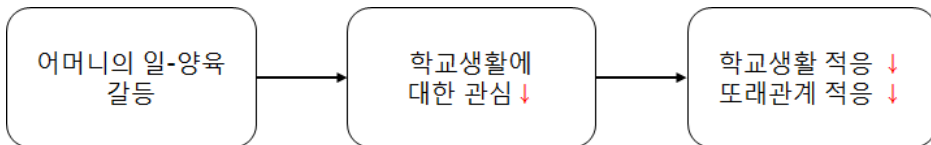
일-양육 갈등이 교사 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모형 결과, 오히려 아버지의 일-양육 갈등이 증가할수록 교사에 대한 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04, p < .05$). 또한 부-자녀 상호작용이 낮을수록 교사에 대한 적응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35, p < .01$). 다른 모형과 마찬가지로 학교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교사에 대한 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45, p < .001$).

〈표 V-3-10〉 일-양육 갈등 및 학교생활관심, 학업관심도, 모(부)-자녀 상호작용이 아동의 교사 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교사 적응		
	모형1	모형2	모형3
1단계			
아동성별	.080	.075	.047
가구소득	.048	.058	.064
형제자매 수	-.061	-.057	-.007
2단계			
모 일-양육갈등		.071	.109*
부 일-양육갈등		.104*	.108*
3단계			
학교생활관심			.245***
학업관심도			.034
모-자녀 상호작용			.057
부-자녀 상호작용			-.135**

* $p < .05$, ** $p < .01$, *** $p < .001$

분석결과에 대한 요약을 [그림 V-3-2]에 제시하였다. 제시된 것과 같이 어머니의 일-양육 갈등은 학교 생활에 대한 관심 저하로 이어지고 이것이 학교 생활 적응, 또래 관계 적응을 포함한 아동의 학교 적응의 전반적인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연구진이 도식화함

[그림 V-3-2] 어머니의 일-양육갈등이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효과 경로

4. 소결

본 장에서는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에 따른 아동의 일과생활 변화, 부모의 특성 및 생활 변화, 어머니의 직장생활과 아동의 학교적응과의 관계성을 한국아동

패널 자료의 기초통계 자료와 심층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한국아동패널의 기초분석 자료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후 가장 달라지는 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다니던 시절과는 다르게, 학교의 학교 시간이 빨라지고 기타 학원 및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아동패널의 전체 응답가구의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96% 이상이 적어도 1개 이상에 학원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서비스는 조부모 및 기타 친인척을 활용하는 비율이 학기 중 기준으로 아동의 약 1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약 12%의 아동이 초등돌봄교실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 및 친척을 이용할 때 학기 중 돌봄 시간은 5.2 시간, 초등돌봄교실은 2.9시간이었고 방학 중에 시간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혈연 대리양육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비율도 약 1%정도였으며, 비혈연 대리양육자를 활용하는 비용은 학기 중에 61만원, 방학 중에 67만원이었다. 조부모 및 기타 친인척에게 부탁하는 경우도 학기 중과 방학 중에 약 27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아동패널 자료의 어머니의 취업률 변화에 대한 기초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 취업률을 떨어뜨리지는 않았으나 취업모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아동패널 48차년도 데이터를 대상으로 5개년도 모두 노동시장에 참가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구성된 균형패널과 그렇지 않은 표본을 포함한 불균형패널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은 취업모의 임금수준, 노동시간, 상용직 취업확률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 기혼여성의 경력단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이유로는 앞서 언급한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후에 학교 시간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보다 이르다는 점,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학교의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요구하는 교육지원활동이 유치원보다 늘어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취업모의 근로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가 직장에 재직 중일 경우 재직하지 않을 때보다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직장에 재직할 경우 아동의 학교 적응에 필요한 교육지원 등을 포함한 학교생활 관심을 저하시키고 관심저하가 학교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경우, 어머니의 일-양육 갈등이 높을 때도 아동의 학교 생활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어 아동의 학교 적응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버지의 일-양육 갈등은 아동에 학교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요약하면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으로 아동과 부모의 가정 생활의 변화가 따르고,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위해서는 적절한 부모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어머니의 일-양육갈등이 높아졌을 때 아동의 학교 적응 지원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다.

VI.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부모와 아동의 인식과 요구 사항

본 장에서는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부모와 아동의 인식과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아동의 가정생활상의 변화, 초등학교 입학지원 준비, 가정에서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지원, 방과후돌봄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서 면담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부모의 인식

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 지원

1) 초등학교 입학준비에 대한 정보 원천

초등학교 입학할 준비하기 위해 부모들은 또래 부모를 비롯한 주변 지인과 인터넷 카페 블로그에서 입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변 지인으로부터 가장 많은 정보를 얻지만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자녀가 가게 될 학교의 특성과 자녀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제시되어 불안심리가 높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였다.

“하지만 지인의 정보가 나한테는 (지역이나 여러 이유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대도시, 휴직 후 전업주부)

“성향이 우리아이는 그랬는데 너희 아이에게 맞을지 모르겠어. 말그대로 내가 판단을 해야되는 것 같아요. 그 집 아이는 효과를 볼지 몰라도 우리아이는 아닐지 모르니까 엄마가 공부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중소도시, 전업주부)

자녀가 진학할 초등학교에 대한 정보와 입학과 관련된 준비사항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부모들이 습득하기 위해서는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는 대부분의 입학식에서 교사들의 소개와 입학 준비 관련 책자를

나눠주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제공되는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학교 생활을 비롯한 구체적인 정보를 보충하기 위해 또래 학부모, 같은 반 아동의 학부모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활동(밴드)과 오프라인 모임 활동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사항이)학교든 읍사무소든 어디든 신청해서든 한번 쯤 (오티를 해서) 아이 들한테 학교가기 전에 지도해주는 그런 부모교육이 없는거는 좀 아쉽더라고요. 가고 난 다음에 학교생활 때 이런거 도와주세요 하는거 보다 가기 전에 일급 살 엄마들한테 미리 좀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나”(읍면, 시간제 아르바이트)

2)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아동의 취학 지원

가정에서는 자녀의 초등학교 생활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적인 생활 습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혼자 용변을 처리하기, 낮잠 자지 않기, 젓가락질 연습, 매운 음식 먹는 등의 연습 등이 초등학교 생활 적응에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엄청 피곤해 해요. 오히려 유치원에서는 산에도 가고 맨날 바깥놀이 하고 이런 애보다, 지금 학교에 앉아서 40분씩 집중하고 오는게 더 힘든거야. 더 피로해하고 진짜 체력이 우선인데.”(대도시, 휴직 중인 전업주부)

교우관계와 선생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 전달에 대한 노하우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상대적으로 아동의 학교 생활 대한 교사의 관여가 적어지기 때문에 아동이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의사 전달 능력과 요구사항을 표현하는 역량을 훈련시키는 준비도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교우관계도 부모들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래 학부모들과의 모임활동을 통해 교우관계를 넓힐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고자 노력하는 학부모도 있었다.

“내 의견을 전달할 줄 알아야돼. 선생님한테...뒤에서 나고 하고 싶은데...이게 아니라 저도 할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의사표현..선생님이든 친구한테든 표현할 수 있게 해줘야해. 못하고 집에와서 궁시렁 대니까”(읍면, 시간제 아르바이트)

학습 준비와 관련해서는 자녀의 한글 습득에 신경을 가장 많이 쓴다고 응답한 학부모가 대다수였다.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취학 전 한글을 배웠다고 가정

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가 한글을 완전히 익히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학부모들은 최근 초등학교 수학문제가 서술형의 긴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한글의 사전 학습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부터 한글을 어느정도 알고 들어가야지 가서 처음부터 할 생각하면 애가 뒤떨어져서 쫓아가지도 못하고..한글은 학교에서 다 가르쳐주겠지하고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앞뒤가 너무 달라요. 선생님도 기본 어느정도는 하고 왔겠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어시간에는 가나다라하고 있는데 수학기간에는 서술형 쓰라고...이해를 못해요.”(읍면, 전업주부)

학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는 기관마다 준비시키는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아동들의 초등학교 기초적인 한글, 수학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초등학교 교실 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적응시키는 훈련,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활동(알림장, 일기쓰기)에 대한 훈련, 초등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습관 개선방향에 대해서 학부모에게 공지하기, 초등학교 견학 등을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후 적응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아이는 유치원에서 아예 교실자체를 띄어서 남녀 짝..이렇게..유치원은 두루 두루 앉아서 같이 생활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책상이 작아지고 좁은 공간에서 그림도 그려야 되고 뭘 해야될 때 알림장 같은 것도 써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중소도시, 전업주부)

나. 자녀의 초등학교 생활 적응에 대한 인식

1)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의 수업 분위기 및 교사의 차이

면담결과 학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에 비해 초등학교의 수업방식이 획일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유아교육기관에 다닐 때에 비해 자녀가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주한다고 언급하였다.

“선생님은 전혀 개별적인 것을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애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유치원 때까지는 정말 아이의 특성, 선생님이 어 꼴찌여도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개성을 싹 다 자르는거 같아요. 왜 유치원은 나의 이런 얘기를 다 들어줬는데 학교 선생님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대도시, 휴직 후 전업주부)

학부모들은 7세 8세는 발달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기를 인정하지 않고 갑자기 학교에서 엄격한 규율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어 자녀들이 힘들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돌봄의 비중이 높았던 유치원·어린이집과는 다르게 초등학교에서는 돌봄의 비중이 낮아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시에는 선생님들이 아동이 교과 내용을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가르친다고 소개한 것과는 다르게 실제 수업을 진행할 때는 아동들이 사교육을 통해 선행학습을 해왔다고 전제하여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고 학부모들은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은 교육도 하지만 보육도 섞여 있잖아요. 근데 학교는 보육은 못느끼는 것 같아요. 1,2학년 정도는 아직 보육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은 너무 선생님으로만 애들을 대하시는..”(중소도시, 전업주부)

“공교육을 강화시킨다는 정책이 물론 학부모님도 달라져야겠지만, 선생님들 마인드도 이미 굳어져 있어요. 애네들은 사교육을 해. 그래서 애네들은 이미 다 알아하고 교육을 하세요”(중소도시, 맞벌이)

2) 학교에서 부모에게 요구하는 역할

면담결과 학부모들이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하면 지원해야하는 것은 등하교 지도, 연 2회 학기마다 있는 상담, 참여수업, 독서도우미, 어머니 폴리스 등이었다. 학교마다 의무인 경우도 있고 의무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학교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부담을 가지는 학부모들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도우미를 고용하여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학교 행사에 참여하지 못할 때 자녀가 섭섭함을 느낄까봐 우려하는 학부모들도 있었다.

연 2회 학기마다 있는 자녀 상담은 학기 초보다 중순이나 이후에 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있었다. 학부모들은 학기 초에는 교사가 아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학기 초에 자녀의 문제점을 이야기 할 경우 교사가 아이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될까봐 걱정을 하는 학부모들도 있었다.

“봉사...어린이집 같은 경우나 유치원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봉사할 게 그렇게 크게 많지 않은데 학교 같은 경우는 엄마마음부터가 불안한거야. 내 아이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음면, 시간제 아르바이트)

“날짜 선택도 안되고 장소도 안되고 사전조사를 해서 총당을 한다거나 해야 할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더라고요. 유모차에 애기 태우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중소도시, 시간제 아르바이트)

3) 학교 적응의 어려움과 대처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습능력 부분에서, 선행학습을 하지 않고 입학할 경우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 힘든 구조임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줄넘기와 같은 예체능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친구들과 능력을 비교하고 경쟁함으로써 위축될 수 있다고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는 학교에서 충분히 연습과 훈련을 하기 보다는 대회를 하거나 경쟁을 해서 보상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과도한 보상과 경쟁으로 아이들이 과제에 흥미를 잃거나 지나치게 긴장하게 되는 경우의 예시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였다. 또한 엄마의 정보력이 아이의 학교 적응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임에 소외되지 않고자 노력한다고 응답한 학부모들이 많았다.

학부모들은 학업만큼이나 교우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유치원·어린이집과는 다르게 아이들이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친구들의 반응에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이해하기 힘든 정서를 이해시키고 아이의 마음 또한 엄마가 공감해 주기 위해 노력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학부모들은 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해 친구들과 두루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거나 직접 친구들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고 응답하였다.

생활면에서, 학부모들은 자녀가 갑자기 엄격해진 학교의 규칙과 선생님이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것을 자주 관찰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쉬는 시간으로 주어진 10분이 너무 짧아 다음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고 피로감을 쉽게 느끼며, 급식 시간도 빠르게 편식 없이 음식을 다 먹어야 하는 것에서 스트레스를 보고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 했던 대로 교사가 너무 엄격하게 아동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경우에 적응을 힘들어했다. 학부모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집중력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한다거나, 선생님의 입장을 자녀가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에서는 선행학습 하지 말고 들어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거 같더라고요. 애들이 오히려 더 엄마 재는 몰라 그렇게 말하니까 애들 자존감도 떨어지잖아요.”
(중소도시, 전업주부)

“줄넘기 같은 것도 아이들 체력단련을 위해서 하는건 좋은데 급수 매기는거.. 그럼 애들은 질리는 거지. 애들이 축구를 가서 좋아하고 즐거워 하고...거기서는 등수가 없어. 그냥 뛰고 오면 되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축구가 학교에서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골 다섯 개 차는 애, 네 개 차는 애....”(대도시, 전업주부)

“인간관계가 훨씬 다양해져요. 그 감정들을 설명해 주는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저도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집합되어 있기 때문에(대도시, 휴직 후 전업주부) ”

다. 아동의 가정생활 변화 및 방과후돌봄에 대한 인식

1) 자녀의 학교 진학 후 가족의 생활상의 변화

학부모들은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 후 등하교 시간과 결석 등의 유연성이 없어졌다고 언급한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자녀가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닐 때보다 아침 시간이 매우 분주해 졌으며 학부모도 새로운 자녀의 스케줄에 적응하기 위해 많이 시간 소요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하교가 유치원·어린이집에 보낼 때보다 빨라졌기 때문에 시간 공백을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녀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학원을 보내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언급하였다.

“유치원같은 경우는 등하교 시간이 자유롭잖아요. 정해놨어도 유도리가 있고. 근데 학교는 딱 그 시간, 딱 그게 정해진 것부터 모든 규칙 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이들한테는 좀 힘든 부분이지 않을까....”(중소도시, 시간제 아르바이트)

“유치원이면 두시에 수업이 끝나도 다섯시까지지는 돌봄 오후에는 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고 치지만 학교는 그게 거의 없고 딱 정확한 시간에 끝나서 아이가 학교를 나오기 때문에 그 때 내가 그 시간에 가서 아이를 픽업해 오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방치가 되는 거거든요”(대도시, 휴직 중인 전업주부)

자녀가 취학 후 남편이 가사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한 어머니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 육아와 가사는 여자들의 전담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특히 전업주부는 자녀가 초등학교 진학한 이후 변경된 스케줄에 맞춰 본인 생활도 변경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빠른 등교, 숙제, 학원, 이른 취침 등으로 자녀와 대화 시간이 많이 줄었다고 응답한 학부모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자녀를 방과후를 보내지 않는 전업 주부인 일부 어머니는 드물게 아이와 대화 시간이 오히려 늘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엄마가 제일 바쁘죠. 가족들의 생활이 많이 미치는거보다..조금의 영향은 있지만 유치원에서는 아침에 가면 한군데서 그냥 쪽 있으니깐 엄마가 시간이 여유가 있지만, 학교 끝나고 집에 왔다가 학원을 가든 뭐 왔다갔다하니깐 계속 애를 중간에 짧은 시간에 아침 시간만 잠깐 엄마들 생활이...”(읍면, 시간제아르바이트)

“대화시간이 많이 줄고 학교 끝나면 방과후 끝나고 학원을 가요. 집에 와서 씻고 먹고 자기 바쁜거예요.대화가 단절이 돼서 우리 애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나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유치원 다닐 때보다”(중소도시, 전업주부)

학부모들은 가능하면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혼자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과후나 학원에 주로 보낸다고 응답하였다. 방학 때 돌봄교실에 도시락을 직접 싸서 가야하는 경우가 많아 챙겨주기 힘들다고 이야기 하는 학부모들도 많았으며 방과후 간식이 주로 과자나 빵 등 양질의 간식이 제공되지 않아 불만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아이들끼리 있거나... 최소한 혼자있는 시간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애들을 혼자 두지 않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읍면, 전업주부)

“안타까운게 돌봄에서 간식이 나오는데 좀 부실해요. 사과한쪽.. 근데 우리 애가 과일을 잘 안먹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간식을 가져오면 다름이 일어나고 하니깐 일절 못 가지고 오게 하는거 같아요. 그러니까 6시가 넘어서도 아무것도 못 먹고 하니깐..”(대도시, 맞벌이)

2) 초등학교 취학 후 자녀의 변화 인식

학부모들이 인식하는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 후 변화된 긍정적인 측면은 인지적 발달로 인해 논리적 사고와 언어적 능력이 증가했고 예전보다 스스로 알아서 하려는 활동 등이 많아진 점이였다. 또한, 사회·정서적으로도 공감능력이 발달하고 엄마를 비롯해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주로 학교에서 모둠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협동심을 배우기도 하고,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기도 하며, 친구가 하는 좋은 행동을 따라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한 사례도 있었다.

학부모들이 인식한 자녀의 부정적인 변화로는 긴장도와 피로도가 증가했다는 점과 욕설을 하거나 은어 사용 등 잘못된 언어 사용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또한 학부모들은 자녀가 모둠활동의 부정적인 부분에도 영향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모둠활동을 통해 과도한 경쟁심 혹은 또래와

비교를 경험하고 수행을 잘 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볼지 평판에 대해 민감해져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우려하였다.

“혼자 학교 등원하고 학교 끝나고 집에 오거나 학원가고 이렇게 시간관념도 좀 생기고... 자제심도 좀 생기고 조금 놀려고만 하지 않고, 뭘 하고 놀아야된다 이 런게 생겼어요”(중소도시, 전업주부)

“대화 주제가 지금은 친구주제가 많고 얘기를 하다보면 어떤 친구 한명이 특별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쫓아 하려는 것 때문에 집에 와서 안하던 것도 하고 언어같은 것도 그때보다는 더 많은 단어를 듣고 오잖아요. 나쁜 것도 많이 듣고 오고 그거를 정말 습득을 빨리 하는거 같아요”(중소도시, 전업도시)

3) 방과후돌봄에 대한 인식

면담결과 방과후의 경우, 인기 많은 강좌의 시간이 서로 겹쳐서 듣고 싶은 것을 다 수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로 다시 추첨을 하거나 선착순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한 학기 배우고 다음번에 신청이 안 될 경우 끝까지 학습을 하지 못하고 중지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번 3개월에 1번씩 분기별로 방과후를 신청하는데 그것도 선착순으로...신청방법 매번 달라지고 맨날 오류 생기고..아무튼 아주 문제가 많아”(중소도시, 전업주부)

“조금 돈이 추가되더라도 조금 더 많이 배울수 있는 수업시간을 조금 더 늘려줬으면...왜냐하면 학원보내고 차태우고 이렇게 힘들니까 학교에서 모든걸 다 했으면 하는데 솔직히....질이 좋진 않아요. 학원처럼 일주일에 두세번 하는것도 아니고,,차라리 나는 사교육 그냥 하나를 시키더라도 그걸 제대로 시키는게 낫겠다”(읍면, 전업주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읍면 같은 경우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지만 중소신도시와 같이 아파트가 많이 생겨 학생 수 과밀지역인 경우는 방과후나 돌봄서비스 혜택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방과후 프로그램마다 시간 간격이 생기는 경우도 불편한 이유로 언급이 되었다. 이 공백 시간 동안 자녀들이 있을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한편, 학부모들은 방과 후 학교나 돌봄을 통해 친구의 폭이 넓어진다는 장점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예체능과 영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영어 같은

경우 사교육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방과후에서 교육의 질을 높여 이러한 요구가 잘 충족이 되길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악기 배우는 것도 괜찮은거 같아요. 큰 애가 플룻하고 작은애가 바이올린 이번 여름학기 들어갔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정도는 다 되는거 같아요”(대도시, 휴직 후 전업주부)

돌봄교실의 경우 자격제한이 너무 까다롭다는 불만이 많았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인 경우 어린 동생이 있는 경우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데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불만으로 지적되었다. 같은 이유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엄마의 경우도 사대보험의 문제로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고 언급하였다.

“돌봄은 들어가려면 일단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4대보험 되는 직장에서 일을 해야 재직증명서가 나오지 알바같은거를 하면 그런건 없잖아요..근데 알바하는 엄마들도 되게 많거든요. 조금이라도 알바해서 애들 학원비라도 벌고 싶은 엄마들이 많은데 알바를 못하게 되면...그리고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는것도 문제인거 같아요”(중소도시, 전업주부)

하지만 돌봄교실이나 방과후 수업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였지만 평가가 긍정적이지는 않았다. 돌봄교실 프로그램이 생산적이지 않고 그저 시간을 보내는 용이며 돌봄 교사가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한다고 지적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방과후 수업의 경우는 교사의 전문성과 수업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학부모들이 많았다.

“엄마들이 돌봄을 안 시키는 이유도 사교육을 돌리는 이유도 그 시간에 애들을 그냥 놀게 만든다. 돌봄도 선생님 재량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배워오는게 없다는거예요. 만약에 그냥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업무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아이를 방치시키는 거죠”(대도시, 맞벌이)

“조금 돈이 추가되더라도 조금 더 많이 배울수 있는 수업시간을 조금 더 늘려줬으면...왜냐하면 학원보내고 차태우고 이렇게 힘드니까 학교에서 모든걸 다 했으면 하는데 솔직히....질이 좋진 않아요. 학원처럼 일주일에 두세번 하는것도 아니고,,차라리 나는 사교육 그냥 하나를 시키더라도 그걸 제대로 시키는게 낫겠다”(읍면, 전업주부)

하지만 학부모들은 기본적으로 돌봄교실의 자격이 보편적으로 확대되길 바라는 것과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질 좋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선착순이나 추

침을 통해 당락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신청자는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정책적으로 다자녀를 희망하면서)막상 큰 아이를 초등학교 보내고, 동생을 낳았는데 동생 때문에 돌봄을 보내고 싶은데 전업주부니까 안돼. 그럼 애들 끌고 유모차 끌고...비오는데 한 손은 유모차 한손은 우산, 한 손은 애 손 잡고, 애들도 가방이 한두개가 아니야...어깨가방 무슨 가방 ...그러니까 엄마가 가방을 다섯 개는 지어야돼. 돌봄은 학년도 좀 확대되고 차상위까지 확대되고.. 아주 하위계층은 오히려 서비스가 집중되는데, 사각지대들이 존재해요.” (대도시, 전업주부)

라. 맞벌이와 외벌이 부모의 자녀 초등학교에 대한 인식 차이

1) 맞벌이 학부모

맞벌이 학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항은 정서적인 문제였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참여하지 못 할 때 아이가 섭섭해하는 마음과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갖게 될 부정적인 정서에 미안함과 죄책감을 보고하는 경향이 강했다. 맞벌이 학부모들은 자신들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을 자녀들이 이해해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도 가지고 있지만, 학교에 제 시간에 데리러가지 못 할 때 자녀가 토라져 있거나 화를 낼 때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직장일과 가사 뿐만 아니라 자녀의 숙제까지 까지 도와주다 보면 피로도가 높아져 자녀에게 짜증을 내는 경우 많아 자녀와의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직장을 다녀야하나..이런 생각이 들어요. 1학기 이렇게 잘 지냈는데 문득문득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직장을 다녀야 하나...휴식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걱정되는 부분이 많죠. 애기도 힘들어 하는거 같아요. 혼자 집에 와야하니까. 자기도 무섭대요 무서운데 내색은 안하고 조용히 온대요. 자기 나름대로 약간 긴장을 바짝하는거예요. 그런 애기 들으면 미안하고 마음 짠하고 그래요.”(대도시, 맞벌이)

“일 갔다 온 엄마입장으로는 6시 이후로 아이를 보는거잖아요. 그러다보면 그 시간은 밥먹고, 8-9시니까.. 숙제하려고 해도 서로가 너무 피곤한거예요. 어쩔 때는 짜증이 올라오고..”(읍면, 시간제 아르바이트)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부모 역할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이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자신이 학교를 잘 찾아가지 못할 때 혹시라도 아이가 피해를 받게

될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다른 학부모들이 자신을 양육과 교육에 관심이 없는 엄마로 인식하는 편견 역시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학부모들끼리의 모임이 주로 평일 오후에 있어서 자신이 참석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를 얻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문제에 대해서도 보고하였다.

“학교는 아무래도 봉사...녹색어머니부터 그것도 한 자녀당 1년에 3번인데 두 자녀만 해도 6번이거든요. 책 읽어주는 봉사, 준비물 해주는 봉사...식자재 모니터링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녹색 하나 하는 것도 버거워서 선뜻 체크를 못하겠더라고요. 한다고 했다가 그때 돼서 안 될 때 주변에서 마땅히 도와줄 사람도 없고....사람을 사서 하고...”(대도시, 맞벌이)

마지막으로, 면담에 참여한 많은 맞벌이 학부모들은 도움 받을 곳이 없다는 것을 호소하였다. 자녀가 갑자기 아플 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급히 구하기 어려우며, 방학은 방과후를 하더라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교육을 피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기 중이더라도 돌봄교실이 이른 시간에 마치기 때문에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하였다. 아무리 퇴근 시간을 엄격히 지켜서 바쁘게 집으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초등돌봄교실이 끝나는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지적을 하는 학부모들도 있었다. 회사에서는 자녀 일로 인하여 반차나 월차를 쓰는 것이 매우 어려워 곤란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방과후가 선착순이라서.. 인기있는 방과후 수업은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신청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학교에 열성적인 집에 있는 엄마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접수를 해야지 가능해요. 돌봄 같은 경우도 끝나는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나는거예요. 이 동네에서 일을 해도 그 시간에 못 맞추는거예요. 현실적이지가 않은거 같아요. 차라리 그냥 학원을 두 개 더 돌려서 여섯시 반에 집에 오게 한다든가 그게 훨씬 현실적이더라고요. 직장 다닐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랐고. 만나야 아는데 갈수가 없는 상황이니깐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선생님한테 기대는 부분이 훨씬 많잖아요.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거...”(읍면, 올해 퇴직 후 전업주부)

2) 외벌이 학부모

전업 주부의 경우는 하루일과가 주로 자녀 시간에 맞춰져 있는 경향이 높았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가사 일에 참여하다 자녀들이 귀가하기 전에 급하게 외부 업무를 보고 자녀들이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간식을 챙겨주고 학원을 보내

고 저녁을 준비하여 하루를 마무리하는 형태가 일상적인 전업 주부의 일과였다.

전업 주부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전업 주부라는 이유로 가사일과 양육에 대해서 남편과 역할 분담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라 할지라도 가사와 양육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몫인 경우가 다수였다. 맞벌이 가정의 어머니만큼 전업주부 어머니들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자녀들이 한곳에서 수업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 장소를 이동하다보니 자녀의 안전한 이동을 돕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힘들다고 보고하였다.

“직장을 올스톱하고 집에 있으니까 나도 올스톱. (남편이)혼자서 집에 있으면서도 청소기 한번을 안 밀어. 나 잠깐 나갔다올게 이려고 나가면 설거지는 그대로, 텔레비전 리모콘만 이려고 있고.. 거의 남자들이 대부분..여자들이 집에 있으면 남편들도 헤이해지는거 같아요. 거의 니가 알아서 다해 이런식. 하다못해 누워서 물 한잔만 갖다줘. 뭐 커피쯤 한잔 타와 봐.” (음면, 전업주부)

하지만 확실히 전업주부 가정이 자녀를 무리해서 학원과 방과 후 수업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놀거나 쉬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업주부들의 가장 큰 고충은 경제적인 문제와 재취업 문제였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르쳐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모두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외벌이 가정이라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어머니들도 있었다. 또한 전업 주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재취업을 할 조건들이 맞추기 어렵고 재취업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엄마에게 요구하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선불리 취업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내가 나가서 돈을 벌면 돈을 번다고 벌어도 그만큼 얼마의 비용을 써야 된다는 거 애를 위해서. 누구한테 봐 달라고 하면 그만큼 뭘 더 해야되고, 학원을 보내도 그만큼 또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맞벌이를 해도 돈을 버는게, 버는게 아니에요. 저같은 경우도 애들이...저는 막내니까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애가 집에 오는 시간이 빨라지니까 저도 겸사겸사 저 나름대로 일이 있었고, 그래서 직장두고...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계속 애들 봐주느라 직장 선지 한 삼년? 그 정도 됐어요. 지금은 다시 뭔가 알아보고 해도 그것도 쉽지 않고.”(음면, 전업주부)

마. 기타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정책 요구 사항

유-초연계과정이 확실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많았다.

예를 들어 유치원에서 이미 받아쓰기를 다 했는데 초등학교에서 다시 1, 2부터 배워야 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부모들도 있다.

“학교가면 등하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유치원은 7살은 좀 더 일찍 등원할 수 있게 초등학교에 무리없이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학교를 한번 보고 오는데 한번에 그치지 않고, 그저 보고 오는거 말고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좀 보고 연계수업이 된다면 애들이 가서 보고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걸 보고 1년에 3-4을 하면 학교에 적응하는데 좋지 않을까”(음면, 전업주부)

학교 내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공간과 시설에 관한 이야기를 학부모도 다수 있었다. 또한 교사가 좀 더 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부드럽게 대해주고 맞벌이 부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행사가 진행된다면 좋겠다는 응답도 있었다. 예를 들면, 유치원의 경우 부모님들의 참여수업이 토요일에 진행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방학과 재량휴일에 대한 양육대책이 전무하여 가정에서 오롯이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고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선생님은 계시지만 보호 아래 자유롭게 놀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책도 보고 숙제도 하고 그런 공간이 좀 있었으면...학교에 보면 도서관 외에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구요. 놀이터도 작고 갈 데가 없어.”(대도시, 전업주부)

학부모를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확충이 필요하다고 언급되었다. 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소규모로 근접성 높게 발달하면 좋겠다는 응답들이 있었다. 또한 다자녀의 경우 교육비가 많이 부담이 되는 만큼 학습지 바우처 등의 정책, 지역아동센터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엄마들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있긴 있는데 몇 개 안되잖아요. 도서관도... 성인엄마들도 읽을 수 있는...도서관을 확충해서 엄마도 이용하고 아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중소도시, 전업주부)

“동작구에서 보라매공원 가니까 청소년 센터나 이런거 많더라고요. 그런식으로, 동네, 지역에서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너무 넓게 퍼져있지 말구 작게. 학교를 1시에 마쳤는데 이 많은 시간을 오롯이 가정에서만 보낼 수도 없고 다 사교육을 보내기도 좀 그러니까...나라에서 정책을 만든다면 사회에서 모여서 같이 프로그램 만들어서 같이”(대도시, 전업주부)

2.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아동의 인식

가. 가정생활 변화

가정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아동들은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과 활동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였다. 아동들은 아빠는 집에서 보기가 힘들고, 엄마와도 대화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아동의 응답은 어머니 인터뷰에서 초등학교 입학 후 자녀와 대화가 많이 줄었다는 분석과 일치한다. 아동들이 부모와 공유하는 시간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였다.

“엄마만 해주는데. 아빠는 월화수목금토일도 다 일하거든요. 엄마는 아니 그냥 아무 말도 안해요.”(음면, 남아)

“우리 아빠는 한번도 안 놀아주고, 엄마는 딱 한번 놀아줬는데..아빠는 놀아주고 싶은데 일 때문에 못 놀아줘요”(음면, 남아)

“다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침밖에 없어요. 엄마는 계속 말만 무시하고 오빠는 숙제하느라 바쁘고 아빠는 늦게 들어오고...그래서 숙제도 같이 하고 싶어요”(대도시, 여아)

아동들이 초등학교 입학 후 부모와의 대화로 주로 학습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공부 열심히 해라’, ‘숙제해라’, ‘글씨를 또박또박 바로 써라’ 등을 부모님들께 많이 듣는다고 응답하였다. 교통안전이나 여러 범죄를 예방하는 당부뿐만 아니라,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해 선생님에 대한 예의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당부도 많이 듣는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아동들은 입학 후 부모님이 과거에 비해 더 엄격해 지고 무서워졌다고 보고하였다.

“잔소리, 공부하라는 잔소리... 얼른 자라고...”(음면, 여아)

“유치원 때는 엄마아빠가 예쁘다고만 해줬는데,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무섭게 말해요”(대도시, 여아)

대부분의 아이들은 엄마들이 말한 것과 일관되게 혼자있는 시간이 길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혼자 있을 경우는 숙제를 하거나 tv를 보거나 게임 같은 단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자 있을 때 식사를 먹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응답하였고, 엄마가 미리 준비한 간식을 꺼내 먹는다고 과자를 먹는 정도였다.

나. 학교 생활 적응

수업에 대해서 흥미를 표현하는 아동과 흥미가 없는 아동으로 나뉘었다. 특히 수업의 구성이 독창적일 때 아동이 수업에 더 몰입하고 교과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아동의 경우에는 이미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배운 것을 재학습하는 과정이 지루하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또한 신체 활동이 많은 유아교육기관에 비해 초등학교에서는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이 힘들다고 불만을 표현하는 아동도 있었다. 또한 아동들은 주로 학습량과 숙제가 늘어나 놀 시간이 줄어들어 힘들다고 응답하였다.

기본적인 학교 생활에 대해서 아동들은 갑작스레 엄격해진 규칙 적응의 어려움을 표현하였다. 예를 들면 40분 동안 집중해서 앉아있어야 하는 것, 떠들면 안 되는 것, 쉬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충분히 쉬지 못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등교 시간이 빨라져 학교 수업시간에 졸리고 피곤한 경우가 많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재미어요. 수업할 때도 재밌고. 카카오 프렌즈 있잖아요. 카카오 수업친구라는 거 그 라이언이랑 라이언 빼고 다른 친구들이 있잖아요. 카카오 수업친구 해서 몇 마리지 세어보기도 하고 재밌는 캐릭터나 다른 친구들이나 티비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주인공. 그것도 나와요.”(중소도시 여아)

“학교는 계속 공부만 하고 쉬는 시간이 10분밖에 안되고...그리고 어린이집이 장난감도 더 많고 소꿉놀이 하는데도 있고 블록놀이 하는데도 있고...”(읍면, 여아)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닐 때 비해 초등학교 입학 후 친구 수도 늘어나고 다양한 특성의 친구들을 만나고 있다고 아동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후 같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닌 친구가 있으면 적응이 용이하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친구 관계에서 어려운 점으로는 친구들이 욕설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거나 놀리는 경우와 모둠활동을 통해서 의견충돌이 있는 경우를 어려운 점으로 주로 언급하였다. 대다수의 아동들은 방과후에 학원을 다니다 보니 친구들과 오랫동안 놀 시간이 많이 없어 아쉽다고 표현하였다.

“유치원 때는 친구들이 많이 빌려주고 그러는데 지금은 남자들이 욕하고 막 그 래요”(중소도시, 남아)

“유치원 때는 친구랑 만날 같이 놀았는데 초등학교 가고 나서는 일주일에 두 번 밖에 안 놀아서...”(중소도시, 여아)

아동들의 대부분은 현재 초등학교 선생님을 유치원·어린이집 선생비에 비해 많이 무섭다고 표현하였다. 친구가 별을 서거나 혼났다는 표현을 하면서 이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아동들은 선생님의 반응에 민감했는데, 선생님이 친절하길 바라며 칭찬받는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어머니 인터뷰 내용과 일관되게, 어머니와 아동 모두 초등학교 교사를 더 엄격하고 권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엄한 선생님 보다는 따뜻한 선생비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유치원 때 선생님은 친절하시고 저희가 못하면 괜찮아 학교가면 잘해 이렇게 말했었는데 지금 1학년 선생님은 너 2학년 가서 어떻게 할거야! 이렇게 혼내세요.”(중소도시, 여아)

“선생님이 말하는데 방해하거나 끼어들거나 그런 것도 하고, 친구랑 얘기하는 것도 좀 참으라고 말하셨어요”(대도시, 여아)

다. 돌봄 및 방과후

아동들은 초등학교가 끝난 이후 학원에 가거나 돌봄교실,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국·영·수 등의 일반적인 교과보다는 요리, 미술, 태권도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생활 공예는 막 만들기해가지고 키도 자라는 것 같은데 마음도 자라는 거 같아요. 손실력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클레이를 엄청 못했거든요. 근데 생활 공예 다니다보니까 엄청 잘해져요.”(대도시, 여아).

또한 장시간 돌봄으로 인해 힘들어 하는 아동들도 있었다. 단순한 활동으로 이뤄진 돌봄에 대해서는 불만족 수준이 높았다.

“1학년 때도 돌봄 했는데, 엄마아빠가 둘 다 경찰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문 닫는 시간까지 있어요. 그래서 인제 시시해져 갖구. 이제 끊고. 엄마가 돌봄 끊으라고 해 가지구. 집에서 놀아요.”(대도시, 여아).

“저는 하루에 방과후를 두 개밖에 안해서 편해요. 근데 돌봄교실 때문에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대도시, 여아)

라. 입학 준비

아동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입학식 때 설렘과 기쁜 마음이 컸다고 응답하였다. 학교라는 새로운 곳에 대한 호기심과 친척들과 부모님의 축하를 받은 기억, 입학 선물, 입학식 후 먹었던 음식들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취학 전 아는 친구가 같은 학교에 진학하여 안심이 되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한편, 낯선 선생님과 친구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이제 나도 학생이다 막 이런 기분이 들어갖고.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와서 칭찬도 해주시고 우리 아빠의 아빠 할아버지도 오셔서 그래서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중소도시, 남아)

“입학식 때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들어오니까 뭔가 새로워진 거 같고... 좀 잘... 어떻게 해야 할까... 학교는 또 어떻게 될까...”(대도시, 여아)

아동들은 어머니와 유아교육기관에서 자신의 초등학교 취학 후 적응을 위해 어떤 것을 지원해줬는지 직접적으로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이 지원해 준 기억으로는 크레파스, 필통 등 학용품 구입해준 것과 같은 단편적인 기억이었다. 부모님께서는 자기할 일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 입학 후 선생님들이 준비시켰던 것에 대해서는 알림장 쓰기, 받아쓰기, 그림일기, 한글 연습 등 학습에 관한 준비와 교통안전, 자세, 글씨 등 세세하게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가 자기 할 일도 알아서 해야 된다고 조심하거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혼나지 말고 천천히 하라고.”(대도시, 남아)

“그때도 알림장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써야 했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썼는데 학교 가서는 안 써요. 풀칠해서 붙이고 도장받고 싸인해 오라고 해요.”(대도시, 여아).

3. 소결

부모와 아동 모두 초등학교 진학으로 인해 가정 생활이 달라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의 경우 자녀의 빠른 등교로 인해 아침 시간이 부족해 졌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이 일찍 끝나는 관계로 돌봄교실, 방과 후 수

업, 학원에 보내야하기 때문에 자녀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졌다고 인식하였다. 아동 역시 부모와의 활동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분이 심하게는 갈등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유치원·어린이집에 비해 생활규칙이 엄격한 초등학교에 아동을 적응시키기 위한 부모의 잔소리가 아동들을 더욱 힘들게 하였고, 이러한 아동의 어려움에 대한 호소를 부모에게 하는 과정에서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즉, 아동은 유치원·어린이집에 비해 엄격한 생활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모님까지도 함께 엄격해져 적응의 어려움이 배가 되고 이것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은 이러한 과정이 자녀의 자율성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였지만, 아동들은 부모들이 더 무서워졌다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들은 부모님에게 칭찬과 사랑을 많이 요구하였으며, 부모와 함께 놀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즉, 부모와 아동 모두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준비와 이해가 부족할 경우 부모와의 갈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부모들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위해 지인이나 인터넷상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학교에 따라 정보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적인 도움은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자녀 진학할 초등학교에 대한 정보와 입학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는 입학식에서 책자를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

가정에서는 이러한 정보와 별개로 나름대로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을 위해 생활습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화장실 가는 것, 낮잠 자는 문제, 젓가락질, 규칙 따르는 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습과 관련해서는 한글 습득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수학문제가 긴 서술형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강해 한글의 사전학습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어린이집에서는 기관마다 준비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초등학교 학급과 유사한 환경에서 적응시키는 훈련,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활동(알림장, 일기쓰기)에 대한 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동들도 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거쳤는지 잘 답변하지 못했다. 주로 부모가 아동에게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생활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 했던 기억과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기쓰기, 받아쓰기, 한글 연습 등을 실시했다는 기억 위주로 응답하였다.

부모들은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후 지원해야할 부분이 크게 증가함으로 인해 어려움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제지원뿐 만 아니라 참여해야하는 학교 행사의 증가가 이러한 어려움의 주요 원인이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학교 행사 불참으로 인하여 자녀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을까봐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대부분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경우에는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정규 수업과정이 유치원·어린이집보다 일찍 끝난다는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동을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동들을 돌봄교실, 방과후 수업, 학원 등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교실과 방과후에 대한 평가는 부모와 아동 모두 호불호가 나뉘었다. 돌봄교실의 경우에는 신청을 하더라도 선정이 되기 힘들다는 점, 자격조건이 까다롭다는 점과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아동 역시 놀이 활동 없는 돌봄교실을 지루해하는 경향이 강했다.

방과후 수업의 경우는 예체능에 대한 부분은 부모와 아동 모두 평가가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인기있는 방과후 수업의 경우는 돌봄교실과 마찬가지로 금방 인원이 차 신청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방과 후 수업과 다음 방과 후 수업 간의 공백이 있는 경우가 있어 불편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하지만 아동의 면담결과 아동의 욕구와 부합되지 않거나 단순한 돌봄은 아동들을 지루하게 하거나 지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생활에 있어서는 학부모들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후 다른 어떤 부분보다 교우 관계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가 혹시 따돌림을 당할까봐 걱정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자녀의 교우관계에 우려 때문에 어머니들과의 모임을 가져서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과는 달리, 친구와 비교하여 경쟁을 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녀가 경쟁에서 뒤떨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반면 아동들은 이러한 부모와의 우려와는 달리 교우관계보다는 초등학교 교사와 관계, 학업 부분에 대한 걱정과 불만 많았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를 유치

원과 어린이집 교사보다 어려워하는 경향이 많았다. 아동은 교사에 대한 불만과 무서움과 함께 수업시간이 길고, 휴식시간이 짧다는 점을 언급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단순히 교사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학교 규율, 수업시간의 변화 등으로 인해 나타난 복합적인 결과로 추측된다.

유아교육 내용과 초등학교 교육 내용의 연계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배웠던 내용과 중복되어서 지루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부 아동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미 사교육 기관에서 배웠다고 간주하고 가르쳐서 따라가기 어렵다고 대답한 아동들이 많았다.

면담결과를 통해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각 부모와 아동의 대처과정과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종합하면, 아동의 초등학교의 취학 지원을 위해 부모는 주변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가정교육을 통해 지도하였지만 많은 가구들이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준비와 지원에 대한 방법과 전략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정규수업이 짧아져서 발생하는 돌봄 문제, 부모의 역할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과정과 적응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확인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발굴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VII. 결론 및 정책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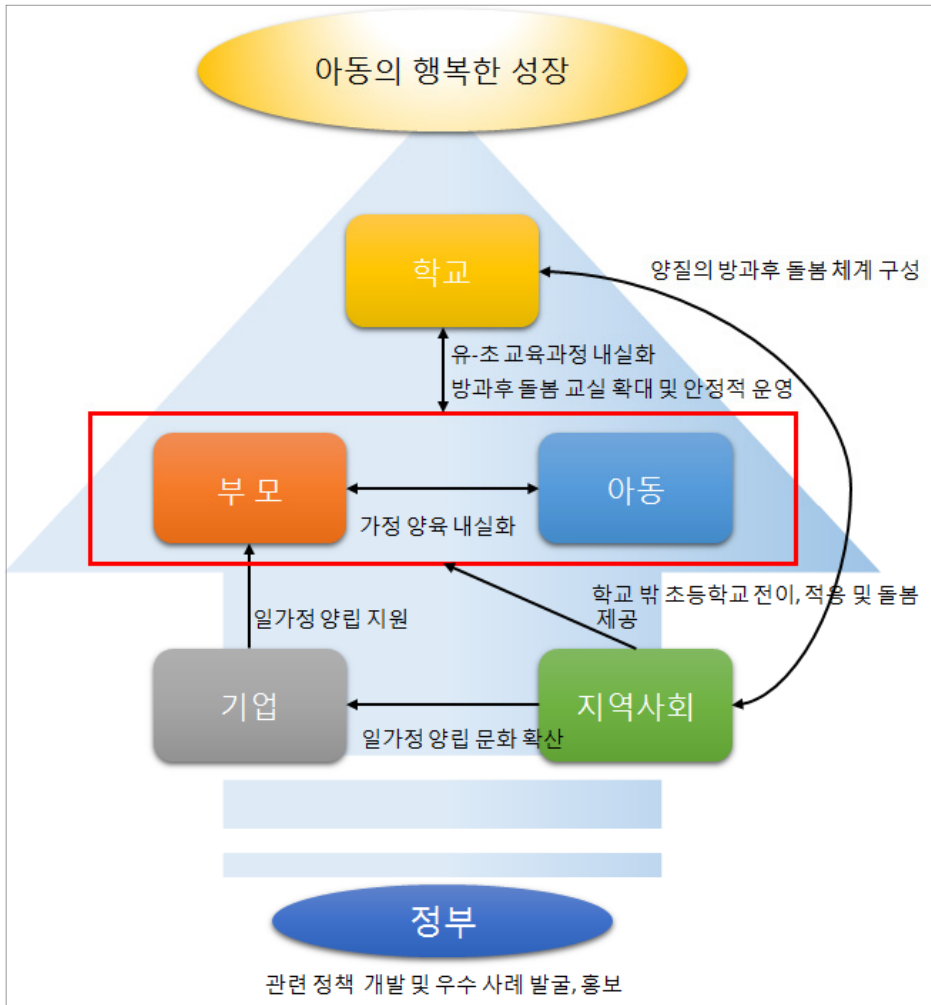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의 발달특성, 입학에 따른 가정 및 학교 환경 변화, 아동 및 부모의 가정 생활 변화와 정책 요구도 등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를 통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필요한 부모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이와 연계된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과 전이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다. 본 장에서는 앞의 연구 내용을 검토를 통해서 초등자녀 양육 지원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 설정을 제시하고,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 및 전이 지원 정책 제언과 방과 후 돌봄 활성화 및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은 다양한 생태학적 변화를 수반하는 시기이고 의무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향후 교육과정의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Entwisle & Alexander, 1998).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동이 성공적으로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노력뿐만 아니라 부모, 지역사회 등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초등교육 목표인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과 기초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것을 넘어서 아동의 행복한 성장과 이어져야 할 것이다.

2015년 발표된 제1차 아동정책 기본 계획에 따르면 아동이 생애주기에 가장 행복하게 아동기를 누리고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화적 발달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5. 5. 12:26). 따라서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양육지원 정책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VII-1-1]에 초등자녀 양육 지원 정책 방향 및 개요도를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을 위해서는 앞서 각 장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다양한 계층의 자체적인 노력과 각 계층과 연계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즉, 하나의 단일한 정책만으로는 그 효과성을 보기가 힘들다.



자료: 본 연구의 결과임.

[그림 Ⅶ-1-1] 초등자녀 양육 지원 정책 방향 및 개요도

가장 우선시해야 할 부분은 부모와 아동과의 관계이다. 아동과의 심층면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아동은 부모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가정, 학교 등 생활환경 변화로 인하여 부모와 아동과의 갈등이 많아지는 시간이다. 이러한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부모가 자녀의 초등학교 적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정양육 내실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부모와 아동이 함께 초등학교 적응을 위해 공유할 시간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결국 일-가정양립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 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노력, 정부의 관련 정책 개발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는 학교 밖 초등학교 전이 및 적응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 특히, 프랑스 등 국외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역사회도 아동의 돌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한다. 도봉구의 방과후마을과 같이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한다든지, 돌봄 공간 및 놀이 공간 제공, 우수 방과후 교사 발굴 등,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 및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하여 학교와 함께 양질의 돌봄 체계의 구성과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함께 모색 하고 공유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지자체, 부모가 공동으로 내실 있는 유-초연계 프로그램 개발되도록 노력해야한다.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 학부모 등과의 지역협의체 구성하여 각 주체별 실천과제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이뤄져야할 것이다.

2. 정책 제언

가. 부모 지원을 통한 가정 양육 내실화

1) 시간지원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확대

한국아동패널 분석 결과 취업모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후 아동의 학교 적응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로 아동의 학교 적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양육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이러한 현상이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아동패널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초등학교 저학년은 유아교육기관보다 더 많은 돌봄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맞벌이 가구 아동의 적응 어려움은 단순히 돌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아동의 학교 적응하는 것을 부모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된 정보, 아동의 학교 생활에 관심 등 초등학교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지식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 즉, 시간 지원 정책 등 일-가정 양립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시간 지원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정부정책으로는 유일하다. 초등 부모의 육아휴직은 2~4월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CJ이나 SK텔레콤에서 자녀 돌봄 휴가, 입학자녀 돌봄 휴직 등을 개발하여 시행하여 최대 90 일까지의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각 기업의 여건상 이러한 정책을 국가 수준의 정책으로 이끌어서 적용하는데 무리가 따르지만 이러한 시간정책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각 기업 상황에 맞는 시간지원 정책 개발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는 개정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쓸 수 있는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수업시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단축제도 활용 기간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이 계류 중에 있고, 법안이 통과되면 사용자가 크게 늘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보도자료, 2016. 12. 13:32).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 사용을 1회한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의 상황,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수강 신청 여부, 방학 등에 따라 아동의 스케줄이 수시로 변하게 된다. 이러한 스케줄에 부모가 유동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 단축 분할 사용 횟수를 증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영아기 위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이 들어가게 되면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짧아져 임금이 감소한다. 단축급여 일부를 지원해주지만 소득의 감소가 많아지는 우려 등으로 인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심층면담에 따르면 초등 부모의 경우는 필요한 시간은 하루에 1~2시간이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5시간이상 35시간으로 개정하여, 임금 손실 우려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는 부모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①구간(15~30시간), ②구간(31~35시간)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①구간의 경우에는 기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준용하여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②구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전체 육아기로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본 연구에

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방학 중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방학시기마다 육아기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사용 횟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의 예시는 <표 VII-2-1>에 제시하였다.

<표 VII-2-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안)	
신청 시기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좌동	
근로 시간	15~30시간	①구간	②구간
		좌동 (15~30시간)	신설 31~35시간 ¹⁾
기간	1년 이내	2년 이내	최대 8년 이내
분할 사용	1회	5회 이상으로 확대 ²⁾	
단축 급여 지원	통상임금 60%에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모든 근로단축은 통상임금 60%에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급여 지원기간은 총 2년 이내로 확대) 혹은 ②구간의 경우는 중소기업 사업장에만 인건비 지원(총 3년 이내)	

- 주: 1) 단축 시간을 구분하여 사용 기간에 유동성을 줄 수 있도록 변경함.
 (예: ①구간은 2년 이내 사용, ②구간은 31~35시간은 만 8세 이하 전체 육아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
 2) 초등학교 입학 후 초등 2학년까지 방학이 최대 4회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분할 사용 횟수 확대가 필요함.
 자료: 현행기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2(2007.12.21. 조항 신설), 19조의 4(2007.12.21. 조항 신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4조의 2(2011.9.15. 조항 신설)”에서 발췌

2) 초등학교 입학 관련 정보 전달체계 마련

가) 자녀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부모교육 활성화

앞서 제시하였듯이 ‘초등학교 전이 준비를 위한 부모교육’은 주로 학부모지원센터, 지역교육지원청, 초등학교,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고 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해 학부모지원센터, 나이스 학부모서비스처럼 오프라인/온라인 채널이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이용자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수강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다. 자녀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정보와 부모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단일한 통로가 필요하고 거기에 걸맞은 맞

춤형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다.

결국, 앞서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등학교 적응은 부모의 학교 생활 관심과 자녀와의 소통이 중요하다.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 부모와 자녀가 공유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따라 부모도 변화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

나) 지역 학부모와의 멘토링 구성

학부모 면담 조사 결과 각 초등학교마다 특성이 달라 초등학교 입학 준비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도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진학할 초등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초등학교 진학 후 활용할 자원들의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초등학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와 해당학교 자녀를 입학시켜야 할 학부모가 멘토-멘티 관계를 형성해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멘토-멘티는 나이스 교육정보시스템이나 혹은 해당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연결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나. 유-초연계 강화

1) 유-초연계 지역 협의체 구성

앞서 논의 하였듯이 아동의 초등학교로의 전이와 적응은 아동, 가족, 지역사회,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가 포함될수록(Epstein, 1992). 학교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차원의 전이 협력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전이를 위한 협력팀을 구성할 때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사 및 교장, 가족복지사, 지역사회 대표가 참여하여 팀을 구성하여 전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장명림 외, 2015).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지역 사회 유아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성, 아동의 이용 자원 확인, 전이 및 적응 프로그램 개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교사 양성 과정에서의 유-초연계 과목 활성화 및 공동 연수를 통한 교류 활성화

유아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 양성과정에 유-초연계 과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면담 결과, 유아교사와 초등학교 교사의 교수법에 대해서 아동의

큰 차이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각 교육과정의 목적과 철학, 교육 내용 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줄일 수 있게 유·초연계 과목 수업을 통한 상대 기관의 수업참관까지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아 교사와 초등학교 저학년 담당 교사의 공동연수 등까지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유치원·어린이집의 예비 학급 운영 활성화

영국과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는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을 연계하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서 예비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유치원에서 아동의 초등교육을 위해 예비학급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초등학교 전이에 대한 훈련은 교육으로 이뤄진다. 또한 아동과 부모의 면담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초등학교 적응 훈련은 한글과 수학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실시하는 활동은 주로 알림장과 일기 쓰기 정도였다. 따라서 초등학교 입학 후 달라진 교육환경에 아동이 적응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예비 학급을 구성하는 것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비학급은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병설 유치원과 같이 초등학교가 접근성이 용이한 유치원이나 다수의 아동이 동일한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는 진학할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진학할 초등학교가 상이하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유치원·어린이집에서는 자체적으로 초등학교 예비학급을 운영하도록 정책을 구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예비학급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는 초등학교 견학, 수업참관 등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간의 교류를 추진하는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다.

4) 유·초연계과정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관리

현재,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 및 전이 정책은 분절되어 작동되고 있다. 학부모에 대한 지원은 예비 학부모 교육 내용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교육과정은 유·초연계 과정에 매몰되어 진행되고 있으나 학부모 면담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초연계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이유는 유·초연계과정에 대한 가시적인 목표와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지표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다. 따라서 향후 아동의 학교 적응에 대한 명확한 지표 개발과 이에 대한 성과관리가 병행되어야 하고 학부모 지원, 유·초교육과정 연계와 연결고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3. 방과 후 돌봄 활성화 및 내실화 방안

가. 방과 후 돌봄 활성화 방안

1) 방과후돌봄 서비스에 대한 통합·관리 행정전달체계 확립

현재 방과후돌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아이돌봄서비스, 지역아동센터 등은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로 구분되어서 전달되고 있다. 아동돌봄협의체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그 기능과 역할이 제한되어 있어 전달·관리 체계가 통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복 수혜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각 돌봄서비스가 기본적인 방향이 유사하지만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목적과 재원, 대상이 상이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하나의 부처가 일원화하여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돌봄 체계의 수요와 공급의 정확한 산출, 목표 산정,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각 돌봄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대상이 필요하다.

2) 방과 후 돌봄서비스 공급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과 성과 관리

현재 문재인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은 명확한 목표 설정과 성과관리체계 필요하다. 온종일 돌봄 체계의 주 표적 대상이 학교에 다니는 아동으로 한정된 것인지,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공급 비율의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현재 성과체계 지표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은 돌봄교실 운영 교실 수, 만족도 조사 점수, 지역 돌봄 협의체 구축 수 등이다. 향후 방과후돌봄 서비스 공급이 일원화 되고 지자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게 될 경우를 지역별, 부처별 재정 여건의 차이 등으로 인해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격차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가 필요하다.

3) 방과 후 돌봄에 대한 학교와 지자체 협력 강화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방과 후 돌봄을 지자체 및 지역사회에서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다. 즉, 학교는 정규교육과정과 생활지도에 전념하고, 방과후돌봄은 지자체 및 지역 사회가 맡기는 형태의 지원 방식이다. 즉, 이 모델은 학교는 공간을 대여해 주고 지자체와 지역 사회는 학교 공간을 활용하

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도봉구가 이 모델에 따라 마을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5개 시범학교가 수의계약에 의한 공공위탁 방식으로 마을 방과후 활동이 운영되고 있고 거점 방과후마을학교, 주민설계 방과후 마을학교로 구분되어 예체능 및 특기적성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학교가 아닌 지자체에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 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이 용이해 돌봄서비스 공급확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지방재정 상황, 공간, 인적자원 등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학교와 지자체의 협력은 강조하고, 구체적인 협력과 방과후 운영 모델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 넘겨 다양한 모형으로 방과후돌봄이 운영되도록 지원해야한다.

하지만, 지자체가 운영하였을 때 돌봄교실 교사에 대한 고용 및 처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학교 시설의 안전관리 주체 문제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처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방과후 학교는 학교가 운영하기 때문에 이용 요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6(교육비 세액공제)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가 대상이 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게 될 경우 이용 요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세액공제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4) 수익자 부담 돌봄서비스 공급 증대

면담조사 결과 학부모의 방과후돌봄 서비스의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는 선정 기준이 까다롭다는 것이었다. 또한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모두 저소득층 위주로 선발하여 실제 수요가 높은 맞벌이에게 기회가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우리나라 방과후돌봄 서비스의 이용은 대부분의 OECD 국가가 가구소득이 많이 맞벌이 가구 위주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따라서 추후 방과후 돌봄서비스 공급, 특히 초등돌봄교실은 수익자 부담률을 높여 맞벌이 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급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 살펴보았듯이 조부모 및 친인척을 활용하는 경우는 약 27만원, 대리양육자를 활용하는 경우 거의 60만원 이상의 금액을 돌봄을 위해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소득별로 차등을 두어 수익자 부담률을 산정한다면 활용 층의 폭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나. 방과 후 돌봄 내실화 방안

1) 수요조사 및 신청 방법 개선

면담조사 결과, 수요조사는 현재 초등돌봄교실이나 방과후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의 나이스(NEIS) 시스템을 활용하고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아동센터와 아이돌봄서비스는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신청방법이 상이하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실제 운영하는 주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방과후 학교나 초등돌봄교실의 같은 경우도 학교 단위로 신청하게 되어 있어 수강신청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을 신청, 선정,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일원화 될 필요가 있다. 거리가 가까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지역단위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필요하여 방과후돌봄 서비스의 운영을 다각화 할 수 있다.

2) 방과후돌봄 실태조사 실시

OECD 자료를 살펴보면 국외의 많은 국가에서 방과후돌봄 현황이 조사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간접적으로 관련 통계자료를 통해 초등돌봄교실 9.1%, 방과후학교 65.9%, 지역아동센터 3.1%,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0.9%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각 돌봄정책은 운영 주체를 비롯하여 대상 아동과 운영 방식의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저소득, 요보호 아동 중심이므로 일반가정의 아동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초등돌봄교실과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이고, 학습/여가와 돌봄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방과후학교이다. 각각의 돌봄정책의 주요목적이나 정책대상이 다소 상이하므로 이용률만으로 공급수를 결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 돌봄서비스의 문제점, 개선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다. 각 소관 부처에서 따로 만족 조사 및 운영 실태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 가구의 특성, 접근성, 시간 등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이 기반된 통합된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3) 놀이 및 여가활동 위주의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초등학교 입학 후 아동의 가장 큰 불만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비해 놀이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놀이는 신체적 기술뿐만 아니라 인지적, 언어적, 사회적 기술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놀이 활동을 통한 지식의 습득은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에 필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UNICEF, 2012). 놀이는 동료, 선생님, 친구와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 제스처, 놀잇감에 대한 상징 등을 배우게 되고 이러한 기술을 아동이 배울 때 사회적 적응이 촉진된다. 하지만, 현재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는 놀이시간이 충분히 녹아 있지 못하다. 국외 사례에서도 확인하였듯이 대부분의 방과후돌봄은 놀이를 비롯한 예체능 활동 중심으로 이뤄진다.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조사에서 확인하였듯이 방과후 과정에서 예체능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놀이 및 여가 활동 위주로 방과후돌봄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초등돌봄교실 등 대부분의 돌봄서비스는 교사 대 아동 수가 놀이 활동을 진행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교사의 확충 반편성 방법 개편 등을 고려해야한다.

4) 방과후 교사 전문성 제고

부모와 아동 면담을 통해서 확인하였듯이, 부모들은 방과후 교사의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앞서 제시한 놀이와 여가활동 위주의 방과후 프로그램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교사의 보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동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전공 배경이 다양한 교사가 공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최소의 질적 기준 마련과 전문성 향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방과후아동지도학회 등 일부 민간 학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방과후 교사 자격증을 참고하여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에는 교사의 처우 개선 정책도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5) 초등돌봄교실 등 방과후돌봄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방과후 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은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을 근거로,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봄지원법(2015.12.1.시행, 법률 제13538호)을 근거로,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2017.7.26.시행, 법률 제14839호)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방과후돌봄 혹은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약하다.

방과후 학교 및 초등돌봄교실은 고시 수준의 법령일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제52조 3항의 6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의 방과후 아동지도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정된다. 또한 청소년 기본법(2017.7.26. 시행, 법률 제14839호) 제48조의 2(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에 대한 조항은 만 9세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초등돌봄교실을 주로 이용하는 초등 저학년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방과후돌봄의 국가의 책임을 강조할 수 있는 법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 2018년도까지 초중등 교육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지만(연합뉴스, 2016년 2월 16일 기사47)), 장기적으로는 아동기본법 제정과 동시에 아동에 대한 방과후돌봄 혹은 활동에 대한 국가 지원이 기본법 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6)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모형 재검토

학부모와의 면담자료와 한국아동패널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방과후돌봄 서비스에 대한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아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봄서비스를 활용하는 비율을 합산하면 전체 초등학생의 약 15%를 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5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이후 돌봄서비스 공급 증가 부분은 반영되지 못하였고, 한국아동패널 응답가구의 경우 저소득층이 많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서비스 이용 비율을 낮게 추정하는 수치일 가능성이 높지만 2016년 전체 학생 대상 학생 수 대 초등돌봄교실 참여 인원수의 비율이 9.1%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와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아동 수를 합하여도 15%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공급 비율은 기관 기반 방과후돌봄 서비스 OECD 평균이용 비율인 30%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추후 방과후 돌봄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47) 연합뉴스(2016. 2. 16.일자). ‘가족되살려 아동학대 막는다...건강가정기본계획 뭘 담았나 (검색일: 2017. 2. 1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6/0200000000AKR20160216092000005.HTML?input=1195m>

문재인 정부는 10시까지 운영되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경제, 2017년 8월 25일 기사⁴⁸). 하지만 저녁돌봄을 포함한 ‘온’종일 돌봄을 정책 목표로 삼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에 제시된 아동의 수면 시간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은 10시 이전에 취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OECD 통계 자료에서 확인하였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공급률은 낮지만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이 매우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면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장시간 가족이외의 돌봄에 대해서 아동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아동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온’종일 돌봄교실은 교대근무자, 대기근무자, 야간 근로자 등 특수한 집단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일반 돌봄교실과 서비스 이용은 평균 아동의 하루 일과를 고려할 때 6~ 7시 이전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양육지원 부분은 돌봄서비스에 집중하여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48) 한국경제(2017. 8. 25일자). 맞벌이 부부 안심하게... 초등 전학년으로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검색일: 2017. 9. 1)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82516431>

참고문헌

- 강창희·이정민·이석배·김세움(2013). 관광정책 및 관광사업 프로그램 평가방법. 문화체육관광부.
- 곽희선(1993). 초등학교 아동의 학원 수강과 학업성취 및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 청구논문.
- 관계부처 합동(2015. 5. 12).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안)(‘15~’19).
- 관계부처 합동(2016. 3. 29).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 고용노동부(2017).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7. 8. 21). 9.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
-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 교육부 고시 제2015-61호. 유치원 교육과정(3-5세 연령별 누리과정).
-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별책 2. 초등학교 교육과정]
- 교육부 보도자료(2016. 5. 3).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안).
- 교육부 보도자료(2016. 6. 23). 행복교육과 일가정 양립의 핵심정책, 초등돌봄교실.
- 교육부 보도자료(2017. 1. 11). 2017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4). (2014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모델) 초등학교 예비 학부모.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전국학부모지원센터·경기도교육청(2014). 초등 1~3학년 학부모를 위한 자녀교육.
-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행정자치부·한국교육개발원(2015). 2015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체제 구축·운영 매뉴얼.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 (17개 시·도교육청 공동개발) 2016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안).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6). (17개 시·도교육청 공동개발) 2017 방과후학교 운

영 가이드라인(안).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국회예산정책처(2017). 대한민국 재정 2017.
- 권영임(2010). 영국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추진 현황에 관한 연구: 유아 및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생태유아교육연구, 9(1), 110-136.
- 금천구청(2017. 9. 30). 지역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부-지자체 합동회의 회의자료 (내부자료).
- 김민진(2006). 유치원과 초등학교 국어과 연계교육에 대한 사례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1(1), 293-315.
- 김민진(2008).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입학 초기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 교육과학연구, 39(1), 181-210.
- 김양화·김남순(2013). 방과후 교육 국제적 동향 고찰: 독일,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48(1), 343-365.
- 김영복(2005).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설·배윤진·조숙인·이예진·송신영·임준범·박은영·김신경·김은정(2016). 한국 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6(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조운주·김진숙·이세원(2008). 유아교육·보육과정과 초등교육과정 연계 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김은지·홍승아·민현주·성경(2016). 육아휴직 소득보장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재인·이향란(2004). 외국의 방과후 아동보육제도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주후(2007).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의 준비도에 대한 부모의 신념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4), 587-603.
- 김주후·김경란·유운영(2011). 조기 교육 실시에 따른 취학 전 유아 학교준비도에 대한 부모의 신념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5(1), 99-116.
- 김창복·이경순·나성식(2007).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

- 열린유아교육연구, 12(6), 403-429.
- 김창복·이신영(2013). 자녀의 초등학교 전이 및 적응에 대한 어머니들의 이야기. *어린이미디어연구*, 12(3), 319-350.
- 김현숙·성명재(2007). 자녀세액공제제도 도입이 기혼여성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공공경제*, 12(1), pp.75-117.
- 나수현(2008).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이 지원 프로그램이 장애학생의 중학교 초기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 도봉구청(2017). 도봉형마을방과후활동 운영계획(내부자료).
- 도봉구청 교육정책특별보좌관 면담(2017. 8. 16)
- 문무경(2006). 스웨덴의 육아정책: 유아교육과 보육, 학교교육의 통합을 중심으로.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문무경(2007). 영국의 육아정책.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민선옥·배지희(2014).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자녀 사교육에 대한 인식과 경험. *한국아동교육학회*, 23(4), 263-285.
- 박진희(2009). 남편의 미취업이 여성배우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노동정책연구*, 9(2), 43-65.
- 박창현·박선영·김영주·윤경옥(2010). 스웨덴의 영유아교육·보육 통합이 한국 영유아정책에 주는 함의: 스웨덴 유아학교의 정치학을 중심으로. *유아교육논집*, 14(4), 69-90.
- 박효정(2002).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 스트레스에 대한 담임교사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변종임·조순옥·최종철·박현정·김인숙(2009). 2009년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 조사 및 성과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보건복지부(2015).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2015년 12월 기준).
- 보건복지부(2016).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2016년 12월 기준).
- 보건복지부(2017). 2017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 손은영·손원경(2010). 유아의 초등학교 입학준비에 대한 부모와 유아교사의 인

- 식. 아동교육, 19(1), 215-225.
- 송헌재·신우리(2017). 가계부채와 기혼여성 노동공급의 관계 분석. 노동경제논집, 40(1), 37-68.
- 여성가족부(2016). 내부자료.
- 여성가족부(2017). 2017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오소정·이은주·김영태(2012). 화용능력 체크리스트 문항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 언어치료연구, 21, 111-135.
- 우석진(2016). 경제분석을 위한 STATA. 서울: 지필미디어.
- 유희정·홍승아·김지혜·이슬·동제연·이향란(2014). 취업여성의 직종 및 고용형태에 따른 자녀양육지원정책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윤윤규·홍민기·강창희·이진면·이혜정·고영우(2012). 노동시장정책 평가방법론 및 다부문 거시산업모형 DB 구축. 한국노동연구원.
- 윤자영(2016). 초등학교 교육지원활동과 모의 취업. 여성경제연구, 13(2), pp. 183-212.
- 이경민·강정원(2006). 유아의 초등학교 적응을 위한 전이 프로그램의 운영실태. 유아교육학논집, 10(3), 311-337.
- 이경희·고재홍(2006). 유형별 초등학생 집단따돌림 발생원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1), 23-45.
- 이남연(2005). 취학 전 교육경험에 따른 1학년 아동의 학업성취도, 학습태도 및 학업적 자아개념.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옥(1997). 학령기 아동을 위한 보육 국제비교연구. 교육연구, 5, 83-98.
- 이윤경·박은혜·전홍주(2007). 초등학교 입학유예와 적절한 입학 연령 및 학제 개편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 유아교육연구, 27(2), 211-233.
- 이정환(1998). 취학 전 교육이 초등학교 학습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화도(2007). 쟁점연구: 프랑스 유아교육 및 보육 행정체계 연구. 유아교육연구, 27(5), 5-31.
- 이화도(2010). 다양성에 기초한 프랑스 유아교육의 동향분석. 비교교육연구,

20(4), 255-275.

- 장명림·김홍원·지성애·염지숙·정정희·김선미(2015). 초등학교 취학에 따른 학부모의 인식과 지원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장명림·현주·박균열·이정옥·하민경(2014).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연계 강화 방안 연구. 서울:한국교육개발원.
- 전정훈·이명승·성지윤·봉현경(2016). 도봉구 아동·청소년 방과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도봉구청. 책을타고날다.
- 정대현·지성애(2006). 유아의 또래 상호 작용, 유아-교사관계, 다중지능과 초등학교 적응 간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6(3), 201-221.
- 정미라·박은혜·허혜경·권정윤·임준희(2007). 생애초기 기본학습 능력 보장을 위한 영·유아 교육복지 정책 비교: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11(3), 207-225.
- 정미리(1996). 프랑스, 독일의 방과후 프로그램. 아동연구, 10(1), 13-54.
- 정우정(2006). 초등학교 입학 아동의 학교 적응에 대한 학부모 인식.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운주·김은영(2009).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의 차이와 연계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이해 탐색.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3(4), 51-74.
- 조진일·김홍원·최형주·손종렬·신화주·안성현·정유진(2015). 초등돌봄교실의 환경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지성애(2010). 학부모의 유치원-초등학교 연계교육에 대한 인식과 현황. 유아교육학논집, 14(2), 217-248.
- 지성애·백선희·채영란(2007). 영국의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제도. 유아교육연구, 27(5), 135-155.
- 지성애·정대현(2006). 초등학교 일학년용 학교적응 척도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7(1), 1-15.
- 지성애·정대현·정효은·안지송·박은영(2006). 유아의 초등학교 준비도에 대한 유아교육기관 교사와 학부모 및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열린유아교육연구, 11(5), 227-249.
- 최성은(2011). 보육료지원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 27(2), 85-105.
- 최지영·염애경(2011). 취학 전 유아의 초등학교 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부모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 2011, 6(1), 5-46.
- 최효미(2013).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및 근로시간 결정시간 결정요인: 린이 집·유치원 근접성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7(1), 21-46.
- 통계청 보도자료(2016. 12. 13). 2016 일·가정양립 지표.
- 한국교육개발원(2016). 2013년 해외교육동향.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CRM 2013-169-9.
- 한치록(2016). 계량경제학 강의. 서울: 박영사.
- 한치록(2017). 패널데이터 강의. 서울: 박영사.
- 허혜경(2014). 유아-초등교육 전이에 관한 학부모의 인식과 참여실태. 유아교육 연구, 34(2), 435-453.
- 황윤세·최미숙(2006). 유-초연계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신념, 지식 및 실제 간의 차이. 아동교육학회지, 27(4), 147-163.
- Andrews, G., & Halford, G. S. (1998). Children's ability to make transitive inferences: The importance of premise integration and structural complexity. *Cognitive Development*, 13(4), 479-513.
- Angrist, J. D. & Pischke, J-S. (2009). *Mostly Harmless Econometr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강창희, 박상곤 역. 2014. 대체로 해롭지 않은 계량경제학. 서울: 박영사).
- Angrist, J, D. & Pischke, J-S. (2014). *Mastering 'Metrics: The Path from Cause to Effect*. Princeton University Press. (강창희, 박상곤 역. 2017. 고수들의 계량경제학: 인과관계란 무엇인가. 서울: 시그마프레스.)
- Artman, L., & Cahan, S. (1993). Schooling and the development of transitive infer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753.
- Bagwell, C. L., Schmidt, M. E., Newcomb, A. F., & Bukowski, W. M. (2001).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2001(91), 25.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Berk, L. (2001). *Development through the lifespan*. Pearson Education India.
- Borjas, G. J. (2015). *Labor Economics* (7th Ed.). McGraw-Hill Education. (박철성, 송헌재, 강창희 역. 노동경제학, 제7판. 2017. 서울: 시그마프레스).
- Brenner, E. M., & Salovey, P. (1997). Emotion regulation during childhood: Developmental, interpersonal, and individual consideration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s*, 168-195.
- Bussey, K. (1999). Children's categorization and evaluation of different types of lies and truths. *Child Development*, 70(6), 1338-1347.
- Butler, D. L. (1998). The strategic content learning approach to promoting self-regulated learning: A report of three studi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0(4), 682.
- Cairns, R., Xie, H., & Leung, M. C. (1998). The popularity of friendship and the neglect of social networks: Toward a new balance.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998(81), 25-53.
- Cameron, A. C. & Trivedi, P. K. (2010). *Microeconomics using Stata, Revised Edition*. Stata Press. (강창희, 박상곤 역. 2017. Stata를 활용한 미시경제학. 서울: 지필미디어.)
- Carpenter, C. & Dobkin, C. (2011). The minimum legal drinking age and public health.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5(2), 133-156.
- Carpenter, C. & Dobkin, C. (2009). The effect of alcohol consumption on mortality: Regression discontinuity from the minimum drinking age.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1(1), 164-182.
- Cassady, J. C., & Johnson, R. E. (2002). Cognitive test anxiety and academic performance.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7(2), 270-295.
- Clark, D. & Martorell, P. (2014). The signaling value of a high school diploma.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2(2), 282-318.

- Damon, W. (1981). *The development of justice and self-interest during childhood*. In *The justice motive in social behavior* (pp. 57-72). Springer US.
- Dempster, F. N., & Corkill, A. J. (1999). Interference and inhibition in cognition and behavior: Unifying themes for educational psychology.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1(1), 1-88.
- Diamond, K. E., Reagan, A. J., & Bandyk, J. E. (2000). Parents' conceptions of kindergarten readiness: Relationship with race ethnicity and development.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4(2), 93-100.
- Elliott, J. G. (1999). Practitioner review: School refusal: Issues of conceptualisation, assessment, and treatment.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0(7), 1001-1012.
- Entwisle, D. R., & Alexander, K. L. (1998). Facilitating the transition to first grade: The nature of transition and research of factors affecting it. *Elementary School Journal*, 98, 381-397.
- Epstein, J. L. (1992). School and family partnerships. In M. Alkin, *Encyclopedia of educational research* (6th edn) (pp. 1139 - 1151). New York: MacMillan.
- Erikson, E. H.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Selected papers*. Psychological issues.
- Ferguson, T. J., Stegge, H., & Damhuis, I. (1991). Children's understanding of guilt and shame. *Child development*, 62(4), 827-839.
- Flavell, J. H., Flavell, E. R., & Green, F. L. (2001). Development of children's understanding of connections between thinking and feeling. *Psychological Science*, 12(5), 430-432.
- Gauvain, M., & Rogoff, B. (1989).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and children's planning skills. *Developmental Psychology*, 29, 139-151.
- Goldberg, M. C., Maurer, D., & Lewis, T. L. (2001). Developmental changes in attention: The effects of endogenous cueing and of distractors. *Developmental Science*, 4, 209-219.
- Gujarati, D. (2011). *Econometrics by Example*. Palgrave Macmillan. (강달원·김윤

영·제상영·차경수·홍찬식 역. 2013. 예제를 통한 계량경제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Gullone, E. (2000). The development of normal fear: A century of research. *Clinical Psychology Review, 20*(4), 429-451.
- Hamachek, Don E. (1977). *Human Dynamics in Psychology and Education: Selected Readings* (3rd ed.). Boston: Allyn & Bacon, .
- Halford, G. S., & Andrews, G. (2006). *Reasoning and problem solving*.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Heckman, J. (1976). The common structure of statistical models of truncation, sample selection and limited dependent variables and a simple estimator for such models. *Annals of Economic and Social Measurement, 5*(4), 475-492.
- Heckman, J. (1979).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47*(1), 153-161.
- Hodges, R. M., & French, L. A. (1988). The effect of class and collection labels on cardinality, class-inclusion, and number conservation tasks. *Child development, 1387-1396*.
- Hoffman, M. L. (2008).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Handbook of emotions, 3, 440-455.
- Howard, B. J., Broughton, D. D., & Committee on Psychosocial Aspects of Child and Family Health. (2004). The pediatrician's role in the prevention of missing children. *Pediatrics, 114*(4), 1100-1105.
- Jacob, R. & Zhu, P. (2012). *A practical guide to regression discontinuity*. NY: MDRC.
- Kail, R., & Park, Y. S. (1992). Global developmental change in processing time. *Merrill-Palmer Quarterly (1982-), 525-541*.
- Kail, R., & Park, Y. S. (1994). Processing time, articulation time, and memory spa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57*(2), 281-291.
- Kliewer, W., Fearnow, M. D., & Miller, P. A. (1996). Coping socialization in middle childhood: Tests of maternal and paternal influences. *Child*

- Development*, 2339-2357.
- Kochenderfer Ladd, B., & Wardrop, J. L. (2001). Chronicity and instability of children's peer victimization experiences as predictors of loneliness and social satisfaction trajectories. *Child Development*, 72(1), 134-151.
- Kunzinger, E. L. (1985).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f memorial development during early grade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21(4), 642.
- Lara-Cinisomo, S., Pebley, A. R., Vaiana, M. E., & Maggio, E. (2004). *Are LA's Children Ready for School?*. RAND Corporation. PO Box 2138, Santa Monica, CA 90407-2138.
- Lee, D. S. & Lemieux, T. (2010).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s in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8, pp.281-355.
- Liben, L. S. (2001). *Thinking through maps*. In Spatial schemas and abstract thought (pp. 45-77). Cambridge, MA: MIT Press.
- Lin, C. C., Hsiao, C. K., & Chen, W. J. (1999). Development of sustained attention assessed using the continuous performance test among children 6 - 15 years of ag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7(5), 403-412.
- Marsh, H. W. (1990). A multidimensional, hierarchical model of self-concept: Theoretical and empirical justification.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2(2), 77-172.
- Marsh, H. W., Craven, R., & Debus, R. (1998). Structure,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s self concepts: A multicohort - multioccasion study. *Child Development*, 69(4), 1030-1053.
- Marshall, M. L., & Barnett, R. C. (1993). Work-family strains and gains among two-earner coupl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1(1), 64-78.
- McCubbins, J. L. (2004). *Transition into kindergarten: A collaboration of family and educational perspectives*. Mater's thesis. Blacksburg, Virginia.
- McInnes, K. (2002). What are the educational experiences of 4-year-olds? A

- comparative study of 4-year-olds in nursery and reception settings. *Early Years*, 22(2), 119-127.
- OECD(2016). PF4.3: Out-of-school-hours care services(Updated: 2016.12.07.).
- Oosterwegel, A., & Oppenheimer, L. (1993). *The self-system: Developmental changes between and within self-concepts*. Psychology Press.
- Oreopoulos, P. (2006). Estimating average and local average treatment effects of education when compulsory schooling laws really matter.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6(1), 152-175.
- Paul, J. J., & Cillessen, A. H. (2003). Dynamics of peer victimization in early adolescence: Results from a four-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pplied School Psychology*, 19(2), 25-43.
- Piaget, J., Gauvain, M., & Cole, M. (2004). 4 Development and Learning. *Readings on the Development of Children*, 25.
- Pianta, R. C., & Kraft-Sayre, M. (2003). *Successful kindergarten transition: Your guide to connecting children, families, & schools*. PH Brookes.
- Pons, F., Lawson, J., Harris, P. L., & De Rosnay, M.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children's emotion understanding: Effects of age and language.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4(4), 347-353.
- Saarni, C. (1999).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competence*. Guilford Press.
- Schneider, W., Knopf, M., & Stefanek, J. (2002). The development of verbal memory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Findings from the Munich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4(4), 751-761.
- Sharp, C. (2002). School starting age: European policy and recent research. Paper presented at the LGA Seminar 'When should our children start school?' LGA conference center, London.
- Taguma, M., Litjens, I., & Makowiecki, M. (2012). *Quality Matte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United Kingdom(England)*. OECD.
- Tuchfarber, B. S., Zins, J. E., & Jason, L. A. (1997). *Prevention and Control of Injuries*.

UNICEF(2012). School readiness and transitions.

Van den Bergh, B. R., & De Rycke, L. (2003). Measuring the multidimensional self-concept and global self-worth of 6-to 8-year-old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4(2), 201-225.

Wadsworth, B. J. (1996). *Piaget's theory of cognitive and affective development: Foundations of constructivism*. Longman Publishing.

Wooldridge, J. M. (2013). *Introductory Econometrics: A Modern Approach* (5th Ed.). Cengage Learning. (박상수·한치록 공역. 2016. 계량경제학 I, 서울: 박영사.)

<온라인자료>

교육부 홈페이지(2017. 3. 20 인출). 2016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7&boardSeq=7036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202&opType=N>

교육통계서비스.

① 교육통계(2016년 10월 조사)(검색일: 2017. 5. 23)

http://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8&cd=3535&survSeq=2016&itemCode=01&menuId=m_010802&uppCd1=010802&uppCd2=010802&flag=A

② 2004~2016년 초등학교 연도별 추이(검색일: 2017. 6. 27)

http://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943&survSeq=2016&itemCode=01&menuId=m_010105&uppCd1=010105&uppCd2=010105&flag=B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 강화 설명 페이지(검색일: 2017. 5. 22).
<http://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html&bcode=HAFAAAA&bmode=view&idx=HAFAAAA>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검색일: 2017. 5. 29)

① <http://par.sen.go.kr>

② http://par.sen.go.kr/edusys.jsp?page=spr_m31210

동아일보(2017. 5. 24일자). (검색일: 2017. 5. 2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

&oid=020&aid=0003067009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① <https://www.afterschool.go.kr/info/infomation.do> (검색일: 2017. 5. 15)

② <https://www.afterschool.go.kr/careservice/careserviceMap.do> (검색일: 2017. 5. 15)

③ <https://www.afterschool.go.kr/careservice/classroom.do> (검색일: 2017. 6. 1)

베스트베이비(2017. 3월호). '달라지는 2017 육아지원정책'. (검색일: 2017. 5. 29)

http://navercast.naver.com/magazine_contents.nhn?rid=1097&contents_id=132945

베이비뉴스(2017. 1. 17).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앞둔 부모 고민 1위 '교우관계' (검색일: 2017.6.30.)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429>

서울신문(2017. 2. 14). 초등생 엄마는 2월부터 육아휴직 '눈치 전쟁'. (인출일: 2017. 8. 2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798012>

스포츠월드(2017. 5. 24일자). CJ그룹의 기업문화혁신방안 '화제'... '5년마다 한 달 휴가 및 자녀입학 돌봄 휴가 등 도입' (검색일: 2017. 5. 2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396&aid=0000443326>

아이돌봄서비스. 주요통계(검색일: 2017. 5. 23).

<https://www.idolbom.go.kr/intro/index2.go>

여성가족부(2015). 가족실태조사(검색일: 2017년 10월 23일).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1510001022&conn_path=I3

연합뉴스(2016. 2. 16.일자). '가족되살려 아동학대 막는다'... 건강가정기본계획 될 담았나(검색일, 2017.2.1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6/0200000000AKR20160216092000005.HTML?input=1195m>

에너지경제신문(2017. 6. 1일자). SKT초등생 자녀 입학시 최장 90일간 무급휴직 준다.(검색일 2017. 8. 22)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90955>

중앙일보(2016. 3. 21일자). 초등생 돌보려... 직장 떠난 엄마 3만 명 (검색일: 2017. 3. 3.)

<http://news.joins.com/article/19753959>

통계청 e나라지표(www.index.go.kr).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인출일: 2017. 8. 31)

한국경제(2017. 8. 25일자). 맞벌이 부부 안심하게... 초등 전학년으로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검색일: 2017. 9. 1)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82516431>

학부모On누리(검색일: 2017. 5. 22)

① <http://www.parents.go.kr>

② <http://www.parents.go.kr/EgovPageLink.do>

③ <http://www.parents.go.kr/NEL-2010-detail-view.do>

United Kingdom public sector information website (검색일: 2017. 6. 5)

<https://www.gov.uk/early-years-foundation-stage>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사회복지사업법」

「서울특별시 공립학교 회계 규칙」

「소득세법」

「아동복지법」

「아이돌봄 지원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청소년 기본법」

「초·중등교육법」

Abstract

A Study of Support System for Parent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Jaehee Lee Keun Jin Kim Ji-won Eo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upport policy for parents and children at the time of elementary school entrance. For this purpose, we examined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changes in family life and examined foreign policies on transition and child care at the time of elementary school.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parents and children to investigate their perceptions on elementary school entrance. In addition, Korean Children Panel Data were analyzed to identify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elementary school entrance in family life and relationship between mother employment and adaptation of children to elementary school.

Current public child care service in elementary school are Care Class in elementary school, After-School program, Public In-home Child-care Services, Community Children Center and Care Class provided by local government. These public child care service provide from different branches of the government. Also, education program for preliminary school parents are provided by kindergarten, elementary school and local parent center. In addition to parental leave and reduction of working hours for periods of child care are implemented for working parents.

Most OECD country provide out of school hour care service for children aged 6 to 11 and around 30% of children participate in center-based before and/or after school care service. Out of school hour care service in France, Germany, US and Japan are provided by joint between school and local

government. Advanced countries such as France and United Kingdom have made various efforts, offering preliminary class and making transfer program, to improve quality of transfer to elementary school up preliminary class.

The critical change due to elementary school entrance in family life is that hours of after school care increase from 0.85 to 2.51. An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Korean Children Panel Data, children's elementary school entrance decrease their mother's pay, working time and opportunity to be employed regular job. Parent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recognized that they need information related to entrance and life in elementary school, and need to increase the number of care class. Children referred to difficulty of adaptation to school attributed to rigid rules in contrast to kindergarten, and become tired due to long care class without parents.

Based on results of present study, we suggest the following. The ultimate goal of support system for or parent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should focus on happy heathy development of children. Suppor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improve parenting and quality of parent-child relationship. Systems and programs to improve quality of continuity between early childhood and elementary educations should be developed. Reduction of working hours for periods of child care should be encouraged in working parents group, and also, its related law should be revamped. Expanding provision of care class in elementary school should be considered through joint efforts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elementary school.

부 록

1. 연구 참여에 대한 설명문
2. 화용능력 체크리스트
3. 면접진행 매뉴얼
4. 부모대상 면담지
5. 아동대상 면담지

부록 1. 연구 참여에 대한 설명문

“초등자녀 양육지원 방안” [연구] 참여에 대한 설명문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초등자녀양육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문과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000 연구책임자 또는 000 연구원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입니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 **연구의 목적** : 아동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 진학 시 적응을 돕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부모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함.
- **대 상** : 본 연구는 맞벌이 부모 30명, 외벌이 부모 30명과 각 가정의 아동 6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할 것입니다.
- **연구의 참여 절차** : 만일 귀하와 귀하의 자녀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부모님에게는 심층면담을 실시할 예정이고, 아동에게는 간단한 면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모님에게는 아동이 초등학교 진학 후 좋아진 점, 어려운 점 및 불안한 점, 변화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대처하고 있는 방안, 이러한 대처 방안을 지원하든 혹은 방해하는 국가 정책 등에 대해서 면담할 예정입니다. 아동에게는 초등학교 입학 후 좋아진 점, 힘들어진 점, 부모님의 태도가 달라진 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과 초등학교 선생님과 차이점, 혼자 있는 시간 여부, 부모님이 없으면 불편한지 등에 대해서 물어볼 예정입니다. 면담시간은 30~40분정도, 아동에게는 15~20분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 **참 여 기 간** : 2017.5.17.~ 8.31 귀하가 원하는 날짜 하루.
- **장 소** :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교실, 혹은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자택포함).

- **연구참여에 따른 보상:** 본 연구에 참여하시면 부모는 50,000원, 아동에게는 10,000원 상당의 장난감이 지급될 것입니다.
- **연구참여에 따른 위험성 및 이익:** 본 연구는 약물투여나 시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특별한 위험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동의 경우 낯선 어른과의 대화로 인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동이나 부모님이 면담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이나 위험 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본 연구의 참여로 귀하에게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부모 혹은 본인의 e-mail, 부모 혹은 본인의 핸드폰 번호입니다. 이 정보는 연구의 진행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며 수집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됩니다. 수집된 관련 정보는 잠금장치가 있는 육아정책연구소의 문서함에 보관될 것이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연구진만이 접근 가능합니다.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 **제3자 정보제공:**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공개되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자료의 보관:** 조사로부터 수집된 원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시건장치가 있는 연구책임자의 연구실 내에 5년간 보관되며, 이후 즉시 폐기됩니다.
- **연구참여 도중 중도 탈락:** 귀하는 연구에 참여하신 후에도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수집된 모든 정보는 중단 즉시 폐기됩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 **연구 문의:**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책임연구자 이름: 이재희 부연구위원 (02-398-7773)

공동연구자 이름: 엄지원 연구원 (02-398-7751)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화번호: 02-398-7727

부록 2. 화용능력 체크리스트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아이가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횟수가 다른 또래들과 비슷하다				
다른 사람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주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는다				
대화 주제를 갑자기 엉뚱한 내용으로 바꾸지 않는다				
주제를 유지하면서 5차례 이상 대화 상대자와 말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자료: 오소정·이은주·김영태(2012). 화용능력 체크리스트 문항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 언어치료연구, 21, 111-135.

부록 3. 면접진행 매뉴얼

면접진행 매뉴얼

1. 사전 준비

○ 소개

소 속: 육아정책연구소 위탁 한국심리학회 면담조사팀

본인 소개: 면담조사원 ○○○, ○○○입니다.

- 면담 내용 소개: 초등자녀 양육지원 방안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달라지는 생활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과 그 자녀를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에게는 심층면담을 실시할 예정이고, 아동에게는 간단한 면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모님에게는 아동이 초등학교 진학 후 좋아진 점, 어려운 점 및 불안한 점, 변화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대처하고 있는 방안, 이러한 대처 방안을 지원하는 혹은 방해하는 국가 정책 등에 대해서 면담할 예정입니다. 아동에게는 초등학교 입학 후 좋아진 점, 힘들어진 점, 부모님의 태도가 달라진 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과 초등학교 선생님과 차이점, 혼자 있는 시간 여부, 부모님이 없으면 불편한지 등에 대해서 물어볼 예정입니다. 모든 면접내용은 녹취될 예정입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셔도 되고, 면접중 언제라도 원하시면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면접은 부모님께서 지켜보시되 아동의 면담 소리가 들리지 않은 곳에 위치하셔야 합니다. 아동이 이상 징후를 보이면 바로 면담을 종료하겠습니다. 면담시간은 30~40분정도, 아동에게는 15~20분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 준비물

면담질문지, 아동이 대기시간에 놀 수 있는 책과 장난감,

아동에게 지급할 장난감(참여아동 당 10,000원 지급)

2. 면담장소 입장, 부모와 초등학생 자녀(아동)와 익숙해질 시간 갖기

- 면담에 임할 때에는 가능한 편안한 미소를 띄며, 상냥한 말투로 대하며,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선택하여 대화하도록 한다.
- 면담대상 부모와 아동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아동과 라포 형성을 위해서 면담자가 먼저 자기소개를 하고 부모, 자녀 순으로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 오늘 진행할 면담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먼저 부모님과 면담을 진행하고 부모님과의 면담이 끝난 후에는 아동과의 면담이 이어질 거라고 알려준다. 면담내용이나 진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지 물어본다.

3. 면담 진행시 유의점

가. 부모 면담

- 부모 면담 시에는 아동이 면담자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같은 공간에 있되, 초등학교 저학년 권장도서와 그리기도구 등 장난감을 준비하여 대기 시간에 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한다.

나. 아동 면담

- 아동 면담 시에는 부모는 면담장소(방)에서 나가서 대기하도록 하여 아동이 부모를 의식하지 않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면담 완료 후

- 부모에게는 참여수당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받고, 아동에게는 참여승낙서에 답례품(장난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글씨를 따라 쓰도록 안내한다.

4. 면담 종료 후 디브리핑

- 향후 초등자녀 양육지원 방안 일정내용 안내
(조사 종료기간 공지 및 연구 종료 기간 2017년 11월 30일 안내)
- 향후 궁금한 점에 대한 문의사항 시 연락할 방법 안내
- 조사 진행 시 어려웠던 점 문의
- 종료 시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함 표시

부록 4. 부모 대상 면담지

초등자녀 양육지원 방안 관련 부모 면담			
지역	맞벌이 여부	부모 성명	아동 성명
면담 일자	면담 시작시간	면담 종료시간	면접원 이름
영역	항목	면담 내용	
가정생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치원(어린이집)과 비교하여 초등학교 등교와 귀교시간, 아동의 생활시간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2. 초등학교 입학 후 가족의 생활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구체적으로 자녀와의 관계, 부모의 역할 분담, 자녀의 일과시간 적응, 교육비 등 가족 경제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주세요. 3. 초등학교 입학 후 활용하는 교육 및 돌봄 시설(주로 방과 후) 등이 어떻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활용하고 있는 교육 및 돌봄시설 외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 방과후 교육이나 돌봄시설 있나요? 4. 초등학교 입학 후 자녀에 양육 중 유달히 더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떠한 부분입니까? 		
학교생활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는 어떠한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수업, 기관분위기, 교사의 자질 태도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6.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지원해야할 사항이 많이 변경되었나요, 상담, 부모교육, 참여수업, 보조활동(미화 및 환경보조) 등에 중심으로 말씀해주세요. 		

아동의 변화	<p>7.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후에 달라진 점(생활태도, 자녀와의 대화 주제, 친구들과의 관계, 공부 방법, 놀이 종류 등 있습니까?)</p> <p>8.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후 사회적·정서적으로 성장했다고 느꼈던 적이 있습니까?</p> <p>9.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후 학교 생활 적응(친구들과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하는데 어떠한 부분을 어려워 했습니까?</p>	
초등학교 진학 준비	<p>10.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시키기 전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취학을 위해 실제로 어떠한 준비를 하였습니까?</p> <p>11. 취학 준비 정보는 어디서 획득하였습니까?</p> <p>12. 초등학교 취학을 위한 준비가 취학 후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어떤 준비가 도움이 되었습니까?</p> <p>13. 취학에 대한 지원이나 정보 중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방해가 된 준비가 있습니까?</p>	
대처방안	<p>14. 초등학교 진학 전에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어떤 지원을 받으셨습니까?</p> <p>15. 현재는 아동의 초등학교에 잘 적응하기 위해 부모로서 어떠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p> <p>16. 아동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p>	
정책 요구도	<p>17.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후 적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 있습니까? 초등학교 전과 후,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지역사회 각각에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p>	

연구책임자	성명		날짜		확인	(서명/인)
-------	----	--	----	--	----	--------

부록 5. 아동 대상 면담지

초등자녀 양육지원 방안 관련 초등학생 면담			
지역	맞벌이 여부	부모 성명	아동 성명
면담 일자	면담 시작시간	면담 종료시간	면접원 이름
영역	항목	면담 내용	
가정생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등학교 들어오고 나서 엄마나 아빠가 주로 해주는 말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유치원 때랑 달라졌어요? 초등학교 오고 나서 엄마 아빠한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2. 학교 가기 전이나 집에 온 다음에 엄마랑 아빠랑 주로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 해줄 수 있어요?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유치원(어린이집) 끝나고 집에 와서 어떤 것을 했어요? 지금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3. 학교 다니면서 엄마, 아빠에게 현재 바라는 점 없어요? 초등학교 입학했으니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4. 집에서 혼자 있을 때가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주로 어떤 것을 하나요? 		
학교 생활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초등학교 친구들이랑 유치원(어린이집) 친구들이랑 어떤 점이 달라요? 6. 공부하는 것은 어때요? 어떤 과목이 재밌어요? 어떤 과목이 어려운가요? 유치원(어린이집) 다닐 때 배웠던 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7. 유치원(어린이집) 선생님하고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어떤 점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한테 바라는 점 없어요? 		

취학 준비도	<p>8. 유치원(어린이집) 선생님이 초등학교 가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한다고 얘기해 준 적 있어요? 초등학교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른 얘기 해준 것은 없어요?</p> <p>9.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아빠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초등학교 들어갈 준비하려고 엄마하고 아빠가 OO한테 해준게 어떤 것이 있었어요?</p> <p>10. 초등학교에 입학식날 기분이 어땠어요?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이랑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p> <p>11. 초등학교 가기 전에 생각했던 것이랑 초등학교와 실제 초등학교 다니면서 생각했던 것과 달라진 것 있어요?</p> <p>12. 학교 가면 어떤 것을 가장 많이 하고 싶었어요?</p>	
방과후	<p>13. 학교 끝나고 집으로 바로 가요? 아니면 다른데 가야하는데 있어요? 학교 끝나고 가는 곳에 가면 재미있어요? 초등학교 공부나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p> <p>14. 학교가 끝나면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p>	

연구책임자	성명		날짜		확인	(서명/인)
-------	----	--	----	--	----	--------

연구보고 2017-13

초등자녀 양육지원 방안

발행일 2017년 11월

발행인 소장직무대행 이미화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정인애드 02) 3486-679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7952-26-8 93590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Institute of
ChildCare and Education

